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3월 2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67 호

정화관광 운전기사 이원규씨(불교봉사단체 심우회 회원). 그는 군포를 출발 전남 소록도 나환자촌을 천리길도 마다않고 매달 달려온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부모처럼 생각하는 원순(80세) 할아버지의 집. 나병으로 하체와 한쪽손을 못쓰지만 유머와 정감이 가득한 할아버지는 이씨가 집에 들어서면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주고 손수 음식도 준비한다. 이씨가 맛있게 식사하는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모습이 즐거운 할아버지는 숭늉도 떠다주며 그의 곁을 뜰 줄 모른다. 이씨의 방문은 자식이없는 할아버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처음 이섬을 찾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주는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거리를 두지 않고 스스럼없이 대해 줄 때이다.

식사를 끝내고 나면 이씨는 집안손질과 마당의 잡초제거, 가전제품등을 수리해주고 도시구경이 힘든 이들의 말벗이 돼 세상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손발이 성치 않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8년째 소록도 봉사



것은 이렇듯 집안 구석구석에 잔손가는 일들이다. 어떤때는 찬장 귀퉁이에서 죽은쥐를 치워주기도 했다.

이날 원순할아버지는 지난해 거둬 빻아둔 고추가루등 양념거리들을 이씨에게 듬뿍 싸줬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밭농사를 지어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만 달리 보낼데가 없어 내다 버리기 까지 한다고. 외지사람들이나 친인척들에게 나눠주고싶지만 발기 꺼려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여러번 보아온 이씨는 그런때가 가장 가슴아프다고 말한다.

"누구나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내 부모님처럼 생각합니다."

이씨는 소록도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인 공동참길회 회원들을 버스에 싣고간 것이 계기가돼 8년째 매달 물과 식량을 가지고와 4박5일간 숙식을 같이하며 봉사하고 있다.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정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웃은 있어야 한다"고 이씨는 힘주어 말했다. 〈김원우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매달 국난극복 법회 연다

4월5일 신흥사서 시작 11월까지 전국순회
범종단 합심 "참회 수행으로 IMF 이기자"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종단 차원의 대대적인 전국 순회법회가 4월5일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 열린다.

종단협의회(회장 월주 조계종총무원장)가 주최하고, 조계종 태고종(총무원장 인곡) 천태종(총무원장 문덕) 진각종(통리원장 성초)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총지종(통리원장 총지화) 법륜종(이사장 정각)이 주관해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를 개최한다.



봉축 포스터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올 봉축 포스터를 선보였다. 희사한 색과 현대적 감각을 살린 포스터는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라는 봉축 표어와 4월26일 연등축제 5월3일 전국사찰의 법요식 일정을 담았다.

이번 국난극복 법회는 △4월5일 오후2시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 · 불교방송 이사장)에서 국민화합기원 '화합의 동산' 식목행사를 시작으로 △5월26일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에서 과사현정 실천 철야참선정진 △6월 관음종의 삽교천에서 영산대재 △7월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동체대비 구현 철야 관음정근 △8월 진각종 대구불교회관에서 통일발원 철야 옴마니반메훔정근 △9월 총지종 부산 정각사에서 진호국가 발원 철야 옴마니반메훔정근 △11월 태고종 순천 선암사에서 대참회 관음예문연비 △11월28일 법륜종 목포 보현정사에서 지역화합기원 3천배정진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 정당불자모임과 불교언론 3사(현대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TV)와 군승단 경승단이 후원해 추진된 이번 법회는 경제난국을 참회라고 하는 실천수행을 대안으로 타개하고, 국민화합을 통해 나라안정을 회복하려는 점에서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종단협 내부적으로는 2년여 만에 갖는 합동행사여서 화합에도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 행사인 신흥사법회는 1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으로 1부 법요의식과 2부 '국민화합의 동산' 기념식수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종단협 회장 월주스님의 법어,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님과 자민련불자회 박철언 회장의 발원문이 있다. 이어 전두환 前 대통령, 신나균 문화관광부장관, 서석재 국회정각회장과 속초시장이 각각 경제회생을 기원한다.

한편 이날 법회를 위해 신흥사에서는 사찰이나 단체가 동참할때 입장료를 받지않기로 하는한편, 불교방송은 법회참가자를 위해 차량을 마련한다.

〈위영란 기자〉

◇국난극복 법회 일정

장 소	달
속초 신흥사	4월
예산 수덕사	5월
관음종 아산 삽교천	6월
진각종 서울 관문사	7월
총지종 대구불교회관	8월
부산 정각사	9월
태고종 순천 선암사	11월
법륜종 목포 보현정사	11월

전통사찰 농지취득 허용

농림부 농지법 개정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을 가능토록 하는 농지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이 농림부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농림부는 농지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1일자 관보에 농림부공고 제1998-10호로 고시했다.

고시내용은 "승려의 수행과 민족의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추가함." 농림부는 이 고시에 대한 의견을 30일까지 수렴한 후 4월부터 법제처 등 해당 부처와 협의해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현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의한 농지취득의 허용' 조항에 전통사찰의 농지취득 가능 조항을 삽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지법시행규칙의 개정은 작년 10월 21일 조계종 송월주 총무원장과 당시 이효계 농림부 장관과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6월 LA서 평화통일 기원법회

남북불교대표단 북경회담서 합의
초파일 동시타종 · 공동발원문 봉독

5월 3일 오전 10시 한국과 북한에 지정된 사찰에서 동시에 범종이 울리고 공동 발원문이 낭독된다. 또 6월15일 미국 LA 관음사(주지 도안)에서 남북한 및 해외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남북불교지도자 통일평화 기원법회'가 봉행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중앙회장 법타 · 미주 평불협 회장 도안)는 3월 13, 14일 양일간 베이징(北京) 쉐라톤호텔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대표단과 남북불교실무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대표단은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공동 발원문, 제2차 남북불교지도자 평화통일 기원법회 봉행, 한국종단협의회 대표단 방북시 조불련에 다각적인 지원 등 4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또 대표단은 금강국수공장 준공식을 5월5일경 갖기로 하고 한국 불교대표단을 초청한다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이 밖에도 인도적인 차원의 남북 불교도간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는 한편 불교문화재 교환전시, 남북 사찰간 자매결연 등 남북불교간 정기교류와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방안 등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서 · 공동발원문 3면〉

한편, 16~17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능관스님은 남북대표자 실무회담을 별로로 갖고, 남에서는 박태호 조불련 위원장을, 북에서는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호 초청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 및 접촉을 계속하기로 했다. 불교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상호 가능한 것부터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교류 관련기사 3 · 20면

현대불교 '명예기자' 29명 위촉

▶강주수(부산) ▶김영비(하남) ▶김한근(부산) ▶김연장(미국) ▶김민지(서울) ▶김성심(안산) ▶김재화(울산) ▶목영태(경기) ▶박민수(광주) ▶박윤희(부산) ▶박희길(청주) ▶배선욱(경주) ▶배연파(서울) ▶이경숙(서울) ▶이매립(서울) ▶이란(서울) ▶이순란(인도) ▶이종철(경북) ▶이희명화(서울) ▶인금숙(안양) ▶정선식(양산) ▶장기연(부산) ▶장인식(서울) ▶장명화(서울) ▶조명숙(대전) ▶최길락(캐나다) ▶최순환(수원) ▶한수갑(서울) ▶현재명(의정부)

불교문화 체험기행

따스한 봄햇살에 비친 부처님의 미소가 한층 정겹게 느껴지는 4월. 산과 들이 어우러진 넉넉한 내포땅의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산사와 '백제의 미소'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4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온화한 미소로 정평이 나있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과 단아하면서도 기품있는 대웅전(국보 제49호)으로 유명한 수덕사, 겹벚꽃이 만개한 개심사를 찾아 갑니다. 이 답답한 시절에 마음을 활짝 열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화사한 계절에 온화하고 따사로운 백제인의 숨결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백제인의 미소와 숨결을 찾아서'

수덕사, 개심사, 서산 마애삼존불

◇출 발: 4월12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5천원(점심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담 화 문

- 일부 해종행위자들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즈음하여 -

제방에서 수행과 종단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개혁종단(총무원)이 출범한 지 올해로 3년여가 지났습니다. 이 3년여 동안 종단은 종도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키고 종단의 대사회적인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종단은 승가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이 현재 한국불교 발전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요, 제반의 발전상을 종합하는 가장 큰 성과라고 여겨왔습니다. 종단의 안정적인 기틀 위에서만이 흔들림없는 개혁이 성취되며 나아가 21세기 한국불교발전도 보장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3년 동안 종단은 종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단단한 안정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기조 위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중앙승가대학의 4년제 정규대학 승격을 인가받았으며 종단 제반 교육개혁사업 추진과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하여 포교활성화와 대사회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종단 관련 국가법령을 종단의 의도대로 개정하여 종단 운영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지평을 넓혔으며 전통사찰 경내지에 부과되던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제도화하였고 공원입장료폐지 운동을 벌여 현 정부의 자연공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 14곳에 달하는 성보박물관 건립에도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는 전례없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종단의 이 모든 성과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협력을 해주셨던 사부대중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종단개혁 이후 이러한 종단의 발전상을 방해하고 흠집내려는 해종분자들이 최근까지 각종 송사를 벌였던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고 그 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보려던 그들의 시도는 대법원의 지난 **1998년 2월 24일** 최종 기각 판결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해종행위자들 (진경(황한수), 성월(박희수), 종진(황종빈), 윤성(김원석), 원정(장환덕), 덕수(정순식) 이상 6명)은 1995년 1월 24일과 4월 21일 각각 '총무원장 월주(송현섭) 선출무효 확인소송'과 '총무원장 월주(송현섭)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하고, 94년 3월 29일부터 있었던 일련의 종단개혁과정에서의 개혁회의법과 이후의 종헌이 무효이며 이 법에 근거해 선출된 현 총무원장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사부대중이 개혁과정에서 보인 열의와 헌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체는 그 자율성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결의에 따라 그 기구를 개폐하고 단체내부를 규율하는 규범을 정리할 수 있고 이는 스스로의 질서규범으로서 그 자치에 맡겨지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러한 전제에 기반해서 지난 94년에 있었던 종헌개정과 개혁회의법 제정은 불교고유의 '산중공사'에서 유래한 종단의 전통화된 의견창출방식인 '전국승려대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전례에 따라 법통성이 부여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개혁회의법에 의해 제정된 총무원장선거법 역시 유효하며, 선거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했다는 점이나, 선거법상 총무원장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총무원장에 피선됐다는 점 등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반대로 현 총무원장은 제반 자격요건을 구족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1994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종단개혁의 큰 흐름 즉 종헌개정, 개혁회의법, 개혁종단 및 총무원장 선출이 모두 적법성과 정통성 및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공인되었습니다. 판결에서는 특히 종단개혁 당시 긴급한 사태하에서 불교고유의 산중공사에서 유래한 1994년 4월 10일자 전국승려대회의 결의가 초종헌적인 구속력이 있고 법통성을 계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결의에 따른 종단개혁은 적법타당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종단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종단과 총무원장을 음해하던 해종분자에 대하여 그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소모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일이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종단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하는 어떠한 해종분자도 종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됩니다.

전국의 원로 · 중진스님과 사부대중들의 종단을 수호하고 불조혜명을 지키려는 끊임없는 애종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원은 앞으로도 개혁종단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는 불온한 시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격하게 종법을 집행하고 그러한 시도가 애초부터 발생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종단 앞에 놓여 있는 각종 현안의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21세기 종단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 세계 속의 한국불교를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佛紀 2542年 3月 20日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宋 月 珠

사 설

포교전선 '적신호'

다종교사회에서의 교세의 확장은 장차 그 종교의 사회적 위상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종교마다 교세확장을 최우선적 과업으로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불교계도 교세확장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종단이나 개인의 원력만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할 최우선적인 과업이다.

그동안 불교계의 포교전선은 각 종단마다 중요 사업의 하나로 중시되어 왔고 다중을 상대로 하는 불교계의 언론·방송사들과 지역민을 상대로 하는 포교당이 축을 이루어 왔었다. 그런데 요즘 IMF 한파의 영향으로 불교계의 포교전선에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한다.

조계종의 경우 포교는 종단의 3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면서 그 재원을 주로 관람료사찰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었으나 관람료 수입의 감소로 그 계획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다중을 상대로 하는 포교일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불교방송과 불교TV가 광고수입의 격감으로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지역민을 상대로 최일선에서 포교활동을 담당해 왔던 도심포교당 가운데는 시설임대료조차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 기존의 대 사회적 자선활동을 중단하거나 급기야는 아예 문을 닫아 버린 곳까지 있다고 들린다.

아직은 IMF한파가 시작단계라는 데도 불교계의 포교전선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니 앞으로 IMF한파가 본격적으로 밀어닥칠때는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자못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종단적 차원의 계획이나 지원 아래 포교당운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원력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도심포교당운동이다. 비록 도심포교당들이 개인의 원력으로 시작된 것이라 해도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의 포교당들을 종단에서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도 좋을 상황은 아니다.

불교방송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불교방송의 경우 파행적인 재정운용으로 불자들의 지탄을 받아왔음에도 무엇하나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구조조정의 문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같다. 또한 영상포교를 담당한 불교TV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작은 커녕 재탕 삼탕 방영으로 오래전부터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해왔었다.

이들 두 방송사의 문제는 불교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미루어 도심포교당의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불교계 두 방송사에 들이닥친 재정적 난관은 더이상 방치하고만 있을만큼 한가하지 못하다.

포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포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어려움에 빠진 때일수록 중생들의 고달픔을 위로하고 내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포교운동, 특히 불교계의 방송만은 더욱 제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불교계 두 방송사의 재정적 난관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만에 하나라도 특정 종단의 아집이 개입되어 있다면 더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방송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계는 특정 종단에 미루지 말고 범종단적으로 방송포교 정상화에 나서길 바란다.

"성보마다 고유번호 붙인다"

조계종 성보전산화 작업…도난·훼손등 예방

모든 성보에 고유관리번호가 부여된다. 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성보는 별도의 종단지정을 통해 보호관리 될 전망이다.

조계종 문화부가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보전산화 및 성보종단지정 작업은 그 가치에 비해 지금껏 주목받지 못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훼손이 심한 성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 고유관리번호가 부여되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보도난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보전산화 작업'은 우선 성보문화재의 유형을 분류해 고유관리번호를 부여, 재질·크기 등 현상 및 보존상태, 명문내용 등을 부가 설명하는 한편 기존의 보고서나 연구성과물을 함께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현재 해인사(1천8백점), 월정사(2천6백점), 화엄사(1천1백점) 등 3대교구 총 5천5백점의 성보에 대한 1차유형분류작업이 끝났으며, 현재 2차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사찰별 성보문화재 도록제작과 CD-ROM제작 등을 통해 성보를 입체영상화 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성보도난 예방 및 성보도난시 조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보종단지정사업'은 1910년 이전 성보 가운데 문화재급 성보를 상·중·하로 분류, 그에 걸맞는 종단문화재로 등록·지정하는 종단중심 성보관리의 종적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 국가 및 지방문화재 대상 성보도 별도로 분류, 종단이 일괄 신청하게 되며, 비지정 성보문화재의 도난이나 훼손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현재 직할에서 11교구까지 조각, 탑파(석조), 가람(건축), 장엄(법구), 회화, 경전 등 유형별로 총 1백55건의 문화재가 입력돼 있는 상태이며, 올해 내 지정대상 성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기석 기자〉

성보보존위령 통과

성보보존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성보보존위원회령'이 16일 종무회의를 통과했다.

성보보존위원회령에는 성보보존위의 관장사업으로 △전통사찰의 불사 △사찰 및 사적지 지표·발굴조사 및 복원 △성보전시관 및 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전통사찰의 불사시 위원회의 심의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완료후 1개월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분종땐 등록재산 환원해야"

대구지역 선학원분원장 14명 성명

대구지역 선학원 소속분원장 스님 14명이 15일 '조계종과 선학원에 요구하는 결의사항' 성명을 발표했다.

분원장 스님들은 성명서에서 "조계종과 선학원이 결별하는 것은 우리의 법통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조계종은 선학원 분원장에 대한 권리제한을 성급히 집행하지말것 △선학원 이사회는 분종할 경우 조계종 종지를 따르는 분원장이게는 선학원에 등록한 재산을 돌려줄 것등의 4개항을 주장했다.

대구광덕선원등 성명에 동참한 분원장 스님들은 "선학원에 재산등록을 한 분원들은 종단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선학원에서 재산환원을 거부할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분원장스님들을 규합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새 정부 인사 종교형평성 없다"

실천승가회 · 선우도량등 9개단체 공동성명

정부 인사가 종교 형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련칼럼 23면〉

실천불교승가회, 선우도량, 중앙승가대학생회등 9개 불교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기독교신자이고 각료의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신자인 반면 불교신자는 3명이내이며 문화관광부 신낙균 장관이 신학을 전공한 인사인데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기독교인으로 내정됐다는 점은 매우 당황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성명서는 "최근까지 선임된 일련의 인선과정은 불교계의 기대에 못미칠 뿐더러 김대중 정부 출범의 우려스러운 점들만 불교계에 각인시킨 것"이라며 "만약 우리의 우려가 신정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김영삼 정부때에 가졌던 불자들의 분노가 신정부에서도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계종 총회 97년 세입·세출결산 통과

조계총림 보성방장 의결…지유스님 원로의원 추천

25일 재소집키로

제130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17일 개회,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각종 위원회 선출및 동의의 건과 중앙종무기관 종무보고 일부를 처리하고 19일 폐회됐다. 종회는 25~26일 2일간의 일정으로 다시 소집키로 했다. 종회의장단은 25일 소집되는 제131회 임시중앙종회에서는 기초선원 지정결의 요청의건, 종헌개정특위 구성의건, 종법제개정 안에 관한 건등 현안문제를 우선 다루기로 했다.

종회는 조계종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마치고, 세입 1백16억여원과 세출 1백3억여원의 결산내역을 통과시켰다. 또 조계총림 방장에 보성스님을 추대 의결하고 원로의원으로 지유스님(범어사조실)을 추천했다. 소언심사위원과 재심호계위원 중앙승가학원 이사장 후보추천의 건등을 처리한 종회는 총무원이 요청한 호법부장 영배스님 임명동의안은 종무보고 도중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와관련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이 "회의 진행이 종회법에 어긋난다"고 이견을 제시해 18일 오후 종회가 유회되었으며 19일 오전 이번 종회를 폐회키로 의결했다.

관람료사찰 입장객 17.7% 감소

올 1·2월, 작년비교

올 1월과 2월 두달동안 전국 관람료 징수사찰의 관람료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람객의 입장도 17.7%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집계한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올 1월과 2월 두달동안 전국 54개 관람료 사찰의 관람료 징수액은 24억9천2백53만5천8백50원으로 작년의 같은 기간 징수액 25억1천4백9만1천2백원에 비해 2천1백55만5천3백50원이 감소했다. 이는 작년 7월 관람료 인상 이전의 수치와 비교한 것이어서 IMF로 인한 관람료 감소율은 더 크다는 것이 재무부의 분석이다.

관람객은 작년 1월과 2월동안 2백만7만6천8백19명이 찾은데 비해 올 같은 기간 동안에는 1백70만 9천47명이 입장해 36만7천7백72명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재무부의한 관계자는 "대비기간동안 39개사찰은 관람료 수입이 13%내지 30%정도 증가한데 비해 39개사찰의 관람객은 11%에서 45%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관람료와 관람객의 감소 추세가 역력하다"며 IMF에 따른 사찰 수입 감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1월과 2월간 북한산 지리산등 공원입장객은 작년대비 5~25%가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찰이 없어 문화재관람료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으로 입장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주스님이 17일 신낙균 문화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고 있다.

"불교관련 대선공약 지키도록…"

월주스님, 문화장관에 교계현안 건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7일 오후4시 신낙균 신임문화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종단현안 등을 포함한 불교관련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월주스님은 건의서에서 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화재 보존 보수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개국 허가, 조계사 경내지 정비지원, 불교중앙박물관 및 사찰의 성보박물관 건립지원,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사업지원, 경주 황룡사와 익산 미륵사지 등 사사지 복원, 남북불교교류지원, 청소년 수련장 건립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10개현안을 검토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수부대 발언 와전"

해병대사령관 해명

'예수부대' 발언과 관련, 발언당사자인 전도봉 해병대사령관이 16일 조계종포교원에 해명서를 보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사령관은 해명서를 통해 "불자님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수부대'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병대군목 서울역앞 선교활동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포교원과 종교편향 대책위준비위는 참가단체의 내부논의를 거쳐 곧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앙승가대 학생회는 24일 2백여명의 학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빙부앞에서 집회를 열어 전도봉 해병사령관 사퇴를 요구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큰마음을 모아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영산대재

철웅대선사 초청대법회

3월 31일 팔공산 파계사에서 만납시다



철웅대선사 근영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불같은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팔공산 파계사에서는 우리지역 불자들의 원력을 한데 모아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부처님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영산대재"를 봉행함과 아울러 20여년간 수행정진으로
높은 법력을 갖추시고 하산하시는 철웅대선사를 모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데
꼭 필요한 슬기와 용기를 얻어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옵길 바랍니다.

팔공산 파계사 주지 석성우
영산대재 봉행위원회 합장

- 일시 : 1998년 3월 31일 오후 1시
- 장소 : 대구 팔공산 파계사 진동루
- 문의 : 파계사 (053) 984-4550, 조계사 (02) 732-2115, 안일사 (053) 655-0225, 은적사 (053) 653-1572, 용연사 (053) 616-8846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파계사
- 주관 : 영산대재 봉행위원회
- 후원 :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대구광역시사원주지연합회, 불교대구방송, MBC대구문화방송, TBC대구방송, 불교텔레비전, 법보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대한불교

※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동참금 없이 영산재의 축원문을 올려드리며 큰스님의 화보 법문집을 기념으로 드립니다.

법회 프로그램 안내

· 제1부(오후 1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영산대재
영산재의식/구해스님(인간문화재) 외 3인

· 제2부(오후 2시)
철웅대선사 초청대법회

· 진행자 : 김병조(불자 연예인)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팔공산 파계사

"얼싸 안았다"…남북화해 '물꼬'



◇남북화해와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해 채택된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과 합의서 내용을 남과 북이 검토하고 있다.



◇법타(오른쪽 끝부터)·도안스님·심상련 서기장·능관스님 이 합의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았다.

남북 불교대표단 북경회담 스케치

3월13일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쉐라톤호텔 회의실. 남북불교실무자 회담장.

법타 도안 능관스님과 지현정사(미주평불협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한국 불교대표단이 심상련 조불련 서기장, 류인수 책임지도원, 임성훈 조불련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일행을 만났다. 북측 인사들과 낯설지 않은 법타스님은 그들과 얼싸 안으며 반가움을 전하기도 했다.

13, 14일 이틀간 진행된 회담에서의 남북 불교실무자들의 표정을 전한다.

○…회담장에 들어선 조불련측이 기자들의 사진촬영과 취재에 난색을 보이자 분위기가 경색되는 듯 했으나 기자들이 실무회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한국측이 배려하면서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됐다.

회담장의 분위기는 남북 대표단이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으로 불자로서 예를 갖추는 사이 이내 화기가 감돌았다.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은 조계종 총무원과 조불련이 마련한 초안을 남북 화해와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평불협이 조율해 하나의 공동발원문으로 재 작성했다.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 성과로 평가된다.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은 이번 회담에 대해 "불교교류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과 남북 신뢰회복에 기여하는 성과적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이 모임이 통일의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남북한 대표자 모두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주 평불협 회장 도안스님은 또한 "한국 불교사이래 금강국수공장 관련 합의서 채택 이후 이번 합의문은 조계종 총무원, 평불협, 미주 평불협, 조불련 등 네 당사자가 동시에 서명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번 회담을 성사시킨 평불협은 남북불교교류 창구역할 및 활성화에 청신호를 밝힌 메신저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불련측은 평불협이 사리원에 설립한 금강국수공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거듭거듭 요청하고, 지정기탁을 통해 조불련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5월5일경 금강국수공장 준공식에 한국 불교대표단을 초청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조불련은 북한에 헌옷을 보내주면 어떻겠느냐는 기자의 제안에 옷보다 더욱 절실한 먹고 사는 것이라며 식량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조불련측 참석자들의 표정과 복장은 현 북한 경제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심상련 서기장은 줄담배를 피며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한 초조한 감을 감추지 못했고, 그들이 입고 온 양복과 와이셔츠는 계절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입었던지 보푸라기가 피고, 이제는 도저히 바지주름이 잡힐 것 같지 않았다.

○…한인식당에 마주앉은 양측 불교대표단은 서로 남과 북 할 것없이 사이사이 앉아 안부를 묻고,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돕자고 손을 맞잡았다. 또 대구 불교방송 기획위원 태경스님이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노래를 선창하자 조불련 류인수 책임지도원이 뒤를 이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자며 '다시 만납시다'라는 노래로 화답했다. 이날 태경스님과 류인수씨는 의형제를 맺고, 회담일정 내내 함께 다니며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 베이징=도필선 기자

남-북 북경회담 합의서

1. 남북, 북남의 화해와 통일을 기원하는 제2차 남북(북남) 불교 대표자 조국통일 기원법회를 1998년 6월15일 미국 로스안젤레스 관음사에서 갖는다.

2. 1998년 5월3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법요식에서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타종식과 함께 합의한 공동 발원문을 봉독한다.

3. 북조선의 경제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의 방북시에 조선불교도연맹에 식량 등을 지원하도록 주선한다.

4. 위의 3개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무접촉을 계속 갖기로 한다.

국수공장 준공식 한국불교단 초청
조불련 "금강국수공장 지속지원을"
태경스님-류인수씨 의형제 맺어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최근 북경에서 북한불교 대표들을 만나고 온 몇몇 인사들의 말이다.

말이란 꼭 입으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표정에서도 옷차림에서도 상대방을 읽을 수 있다. 북측대표들의 그 '무언의 말'이 어떠했길래 우리측 인사들은 연민을 느끼고 눈물까지 흘렸을까. 동족이기 때문에 더 가슴 저렸을지도 모른다.

남북불자들이 LA서 합동법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을 봉독하고, 북쪽에 식량등을 지원하자고 합의했는데, 우리 정부도 남북화해를 위한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다.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하고 다음달부터 1백가구가 제3국에서 가족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되는 이산가족 1세대는 이 소식을 듣고 아마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정부는 '대북지원 활성화 조처'도 내놓았다. 현재 종교계와 민간단체가 북한과 추진중인 병원, 국수공장, 식료품공장, 합영농장 건립추진등 '남북협력사업'방식의 대북지원을 승인할 것이라고 한다.

때맞춰 기독교단체에서는 5월5일 나진 선봉지역에 제약공장 기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주민의 의료지원을 위해 '평화의 천사운동'을 전개한다. 1천4명의 후원자들이 1백만원씩 10억4백만원을 모으는 캠페인이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이 소식을 접한 불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식량지원협의 및 분배결과 확인을 목적으로 한 방북과 대한적십자의 지원물품 인도·인수 참관도 허용키로 했다.

남쪽의 이러한 남북화해 움직임에 북쪽도 응답하는듯 빠르면 올 가을부터 한국인에게 북한관광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관광객보다는 실향민을 대상으로 입북을 허용하고 북한주민접촉 제한을 위해 관광특구를 지정, 집중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여기서 남북은 공히 순수해야 한다. 겉으로는 민족애와 화해의 교류를 내세우면서 명예와 이익을 챙기려 들면 안된다.

시작이 좋아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목어

화해의 시작

부처님오신날 남북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남과 북(북과 남)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정진하는 우리 불교도들은 사바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부처님께서 몸을 나투신 지 2542년이 되는 뜻깊은 날(성탄절)을 맞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남과 북(북과 남), 해외에서 모든 사찰에서 동시에 법회를 개최하고, 하루라도 빨리 조국 통일이 성취되도록 사부대중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간절히 참회 발원하옵니다.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신 부처님,

우리 7천만 민족과 불교도들은 단군을 국조로 하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반세기가 넘는 긴긴 세월동안 민족 분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북과 남)의 첨예한 대결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위험이 가시지 않은 채 긴장과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늘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모든 불교도들은 이러한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극복되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바꿔 부처님 오신날(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남과 북(북과 남)의 모든 불자들은 거룩하신 불보살전에 간절히 참회 발원하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분단의 고통에 더하여 남과 북(북과 남)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 민족에게 전래된 이래 민족과 국가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국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에 반대하여 평화를 지키고, 민족을 수호하는데 그 빛나는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우리 민족이 분열과 대결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신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지중한 인연의 원리를 망각한 채 무명에 가리워 자비롭게 화합하는 불도의 길을 저버리고 질시한 공업의 소산이며, 중도의 바른 길을 잊은 채 양극단의 사도를 걸어 온 탓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처님 앞에 진실로 참회하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남과 북(북과 남), 그리고 해외의 모든 사찰들에서 부처님오신날(성탄절)을 봉축하는 모든 불교도들은 사바세계의 한 생을 중생구제에 바쳐 오신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온 민족이 당하고 있는 분열의 고통과 대결의 역사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발고여락의 이념이 실현된 통일조국, 지상정토를 삼천리 강산에 실현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불자들은 그동안 남과 북(북과 남) 공동으로 천명한 평화공존과 조국통일을 위한 원칙을 존중하고 그 이념 및에 자주적으로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남과 북(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 체계를 존중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쌍방에 다같이 이로운 것은 편견없이 받아들이고 단결하여 민족의 공존과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하도록 앞장서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아직도 우리 나라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에게 화해와 화합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광명을 주십시오. 나아가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여 불국정토를 이룩하는데 우리 불교도들이 앞장서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서원을 깊이 헤아려 무량한 가피력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남과 북(북과 남) 해외 불교도
동시법회 참가 대중

북동포에 국수 보시합시다

현대불교신문사는 평불협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세운 금강국수공장을 후원하기 위한 '금강국수공장후원회'와 공동으로 후원금 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금강국수공장' 운영에 동참하시어 큰 복을 짓고 무너지지 않는 공덕탑을 쌓읍시다.

※ 금강국수공장후원회 회원가입

◇후원회원: 매월 1천원 이상
◇일반회원: 매월 3천원 이상
◇운영회원: 매월 1만원 이상
※ 일시불 후원 보시금도 환영.

※ 은행계좌 및 지로번호

국민은행: 006-21-0808-274
농 협: 053-01-237065
우 체 국: 010041-0302852
지로번호: 7602812
예금주: 금강국수

※ 거래 은행에 자동이체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 동참하신 분은 팔공산 은해사에서 기도 축원해 드립니다
※ 수시로 후원금 모금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처: (02)735-5559

현대불교신문사·금강국수공장후원회

만공큰스님 탄신 127주기 다례행사

원력이 있는 곳에 가피가 있고
가피가 있는 곳에 원만성취가 있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호서제일의 백제불교 요람이며 근대불교의 선맥을 진작하시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신 경허·만공 대선사의 혜맥(慧脈)을 이어 내려오는 선지종찰입니다. 금번 덕숭총림 수덕사에서는 만공 큰스님의 탄신 127주년을 맞이하여 다례를 올리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보살계를 받는 것은 여법히 수행하는 방편문이며 윤회고(輪回苦)를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수덕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에 수회 동참하시어 다생겁래의 업장을 소멸하시고 현세의 고통을 넘어 이고득락의 열반도(涅槃道)를 이루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 다 례 ●

■ 일 시 : 불기 2542년 4월 3일 (음력 3월 7일) 오전 10시
■ 장 소 : 덕숭총림 정 혜 사

덕숭총림 수덕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

■ 일 시 : 불기 2542년 4월 3일 (음력 3월 7일) 오후 1시
■ 장 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덕숭총림 수덕사
■ 보살계동참금 : 3만원
■ 접수처 : · 수덕사 종무소 전화 : (0458)37-6565
팩스 : (0458)37-0072
· 수덕사 서울포교당 서천사 : (02)682-5055
· 수덕사 춘천포교당 정법사 : (0361)54-7194
·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당진지역 제7교구 말사

불기 2542년 3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김 법 장 합장



"백장청규의 절약정신 갖춰야"

녹원스님 'IMF시대 불교인' 법문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백장 청규의 생활 덕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녹원 스님은 17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IMF 시대의 불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봉행된 특별법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 한파의 여파로 일부 대학들이 부도 위기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교직원 교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법회에서 스님은 "불교는 철저한 무소유 정신을 추구하기에 절약과 근검이 계율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아나바다 운동도 따지고 보면 부처님 승단의 살림을 말했던 아난다의 재활용 정신"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좋은 일을 위해 가치있게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국대 임기중(기획조정실장), 서윤길(교무처장) 오정수(학생처장) 염준근(총무처장) 교수를 비롯 교직원 교수 학생 3백여명이 참석했다.

오종욱 기자

"용성사상 등 불교 폭넓게 연구"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스님



"용성스님께서 중흥시킨 근세 한국불교사의 연구와 포교의 대중화, 현대사회의 제반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 정진하겠습니다."

"용성스님의 사상을 정리하고 불교계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3일 서울 서초동에 대각사상연구원을 개원하고 원장에 취임한 보광스님(동국대 교수).

보광스님은 "스스로 대각(大覺)을 성취하여 다양한 방편으로 그 깨달음을 사회에 실현한 용성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명칭을 '용성사상연구원'이라 하지 않고 '대각사상연구원'이라고 명명한 것도 용성스님의 업적에 기인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불교연구를 하려는 뜻에서다.

연구원의 첫 사업으로는 용성스님의 사상 연구성과를 정리한 학술지 출판과 함께 유고 정리와 저술 재발간, 각종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177개교 참여…청소년포교 앞장"

대구교사불자회 창립준비위원장 손기완 교감



공감대가 형성, 3월1일 경남교사불자회가 발족한데 이어 이번에 대구교사불자회가 출범하게 됐다.

"3월19일 열린 발기인대회에서 선생님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창립법회에는 인근지역의 교사불자들도 초대해서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이윤호 기자

"제자들의 가슴에 자비와 깨달음의 싹이 움틀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선생님들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는4월4일 창립을 앞두고 있는 대구교사불자회의 창립준비위원장 손기완교감(다구능인고등학교, 법명 본각). 손교감은 同불자회가 청소년교화의 선봉에 설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알찬 신행활동으로 지역불교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 직할인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구지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同불자회는 대구시내 1백5개 중학교와 72개 고등학교에 근무중인 불자교사들로 구성되며 창립법회에는 약3백여명이 참석할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의 규모가 커 초등학교 교사는 당분간 회원가입에서 보류됐다. 대구교사불자회는 분기별로 정기법회를 갖고 년2회 성지순례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당면과제는 학교마다 파라미타 지회와 같은 불교학생회를 조직하는 것.

지난 1월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태동하면서 지역교사불자회의 활성화에 대한

교 차 로

진주불교회관서 법문



성수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은 4월18일 진주불교회관 개관 5주년 기념 법요식에서 법문한다.

日 山梨縣에서 공로패 받아



혜성 청담학원 명예이사장 스님은 20일 15년간 한·일 청소년의 교육·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 야마나시현(山梨縣) 후지요시다(富士吉田)시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종단발전실천회 회장에



무상 법주사 부주지는 16일 중앙종회 종단발전실천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 지홍 평상, 총무 원행, 재무 정념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IMF시대 종교' 토론회 참석



홍선 중앙승가대 교수스님는 17일 서울 YMCA 대강당에서 'IMF 시기, 종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98차 시민논단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대구교육원 10주년 기념식

운성 불교대구교육원장 스님은 26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교육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거행한다.

대구에서 가장 먼저 개원한 교육원은 4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98 육사생도 수계법회



동광 삼각산 도선사 주지는 14일 육국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서 98학년도 생도 수계 법회 및 환송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은 지난 5년간 수계및 환송법회를 여는 등 군포교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광림사 신도 체육대회

혜성 광림사 연화복지원장 스님은 4월19일 광림사 신도회와 청각장애인 불자회, 동국대 손짓사랑회 등 광림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02)202-5831

미타사 지장보살상 기공

명인 충북음성 미타사 주지는 4월8일 지장보살상 건립 기공식을 봉행한다.

충헌문화상 시부문 대상



원철 스님(시인)은 25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대아예식장에서 열린 충헌문화상 시상식에서 시부문 대상을 수상한다.

지장불교포교당 개원

경산 포항 지장불교상조회장 스님은 14일 강원상업불자회장, 포항거사림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장불교포교당을 개원했다.

옥수종합복지관 개관



상덕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옥수2동에 소재한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을 갖는다. (02)282-1100

삼천종합복지관장에



각우 중앙승가대 사회복지정보센터소장 스님은 4월1일 승가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삼전동에 소재한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에 취임한다. (02)421-6077

부처님 오신날 행사 논의



송재건 중앙신도회장은 25일 서울 정동 신도회 회의실에서 운영회의를 열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계획을 논의한다.

장기기증 서약서 서명



정한용 의원(새정치국민회의)은 14일 생명나눔실천회에 '사후 각막기증 및 뇌사시 장기기증' 서약서에 서명했다.

봉축케익·IMF빵 세미나



정판수 대한불과회 회장은 16일 경기도 의정부 모병열베이커리에서 98연꽃 봉축케익 및 IMF 빵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0417)574-6983

美 인공위성 프로젝트 따내



곽문규 동국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13일 美 공군국방연구소(AFOSR)로부터 인공위성 기기연구 프로젝트를 따냈다.

부산·거제경불련 창립 추진



강인성 대구경불련 회장은 15일 은해사에서 창립1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부산경불련 및 거제경불련 창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4월 초 서울·울산경불련과 함께 '훈할머니 귀국환영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초대 백제불교대학장 성수스님

"부여를 불교중흥 터전 삼을터"



"지금은 6개월 과정의 기초교리강좌로 출발하지만, 1~2년 후에는 정식 불교교양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다음 달 8일 개원예정인 백제불교대학 학장 성수스님(조계종포교원 포교국장, 고란사 주지)은 이곳을 백제불교 중흥의 터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1백곳 이상의 불교대학이 있지만,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중소도시 불자들에겐 불교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부여 같은 읍(邑)단위에서 불교대학을 개설한 것은 불교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고무적인 현상이다.

"교육교재도 백제불교의 역사와 사찰현황을 자세히 담아 새로 제작했습니다. 지역불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신도교육체계화를 위한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운 기자

문화부 불교종무관 이·취임



◇이용부 전 종무관

15년간 '종무' 외길

역경·'불재법 폐지' 기여

15년간 종무관직을 맡아왔던 이용부 전종무관은 88년 강영훈 국무총리가 10.27법난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를 하도록 적극 주선했으며 불교재산관리법 폐지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특히 대장경 역경사업을 기획,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사업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조계종 전국 본사의 성보박물관 건립 사업과 전통사찰 총서 발간 사업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윤청하 새 종무관

공보분야 업무 밝아

"교계-정부교량역 충실"

문화관광부 종무실 불교담당 종무관에 윤청하 이사관이 16일자로 임명됐다.

윤청하 신임종무관은 전남대 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10회 합격후 주미공보관, 문공부 종무행정과장, 해외 공보관 기획과장, 주토론토공보관, 해외공보관 해외부장등을 두루 거쳤다.

불자인 윤신임종무관은 "불교계와 정부 각부서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신은정 60,000원 △장준분 50,000원 △김은영 10,000원 △김준구 10,000원 △박은영 10,000원 △오승민 10,000원 △강문자 20,000원 △이정도 20,000원 △한 주 한끼굶기 460,000원(총 32명) △밥 한 공기 105,000원(총 73명)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이춘경 1,000,000원 △김민영 1,204,000원 △윤창윤 200,000원 △이상현 200,000원 △임종석 2000,000원 △무상주 70,000원 △김명아 50,000원 △김정숙 50,000원 △장재욱 50,000원 △윤남용 30,000원 △최영자 30,000원 〈3월18일 현재 총 957,803,69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신행수기 부상 '행운의 열쇠' 소쩍새마을에 기증



소쩍새마을에 번쩍번쩍 빛이 나는 행운이 찾아들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2회 특별상 수상자인 최성구씨가 6일 부상으로 받은 행운의 열쇠를 소쩍새마을에 기증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최씨는 "소쩍새마을 가족들이 IMF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은 정성을 보태게 됐다"라며 열쇠를 보내는 사연을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신행수기 2회 수상자가 소쩍새마을에 행운의 열쇠를 기탁하기도 했다.

IMF 시대의 가정 상비약!!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남산 스님의 파스요법

1,000원만 가지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고통 없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신국판/10,000원

아무리 심한 기침과
콧물 감기도 파스를 붙인 후 3분이면 **뚝!**

술을 마신 다음 날 주독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오는 설사와 몸살도 파스 한 장이면 **말끔!**

오래된 위장병도 파스
요법 15일이면 통증이 **싹!**

잠 못 이루는 불면증도 파스를 붙인 후
20분이면 잠들게 하는 신비한
비법을 알기 쉽게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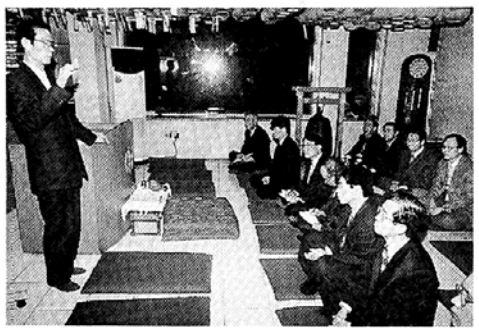
명상
TEL 733-4277
FAX 733-4279

각 질병에 대한 파스 요법의 실제

■ 소화기 질병 12종 — 신경성 위장병, 위 궤 양, 위십이지 궤양, 설 사
■ 호흡 순환기 질병 8종 — 기관지 천식, 중 이 염, 감 기, 두 통
■ 비뇨기 질병 12종 — 당 뇨 병, 생 리 통, 발기부진, 변 비
■ 신경계 질병 28종 — 어깨의 통증, 좌골 신경통, 만성관절 류머티즘, 치 통
■ 기타 질병 15종

■단체 강연 및 개인 강연회 참석요청이 쇄도하고 있사오니 2주일 전에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TEL 733-4277~8 / 전화주문시 발송료는 출판사에서 부담합니다 외환은행 022-13-440647-8 예금주 이영기

탐방 한국세무사불자회



◇세무사불자회원들이 서윤길교수의 불교강의를 듣고 있다.

불자에 세무상식 지도

회원 120명…무료 세무상담전화

지역불자회 구성 회원배가운동

"불교공부는 너와 나, 나와 너의 관계를 좁히는 작업입니다."

13일 부처님 열반절날. 서울 서초동 마하연포교당 법당에서는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송호승, 영진세무사회계법인) 회원들이 서윤길교수(동국대 교무처장)의 '불교란 무엇인가?'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 법회가 끝난후 저녁공양을 함께하며 자유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낸다.

이런 분위기만큼이나 세무사불자회는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도록 4월부터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한다. 세무사불자회는 최근 7인 부회장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불자회 구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 세무사들에게 법공양지 보시와 세무사회보를 통해 집중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불자회는 96년 9월 조계사에서 70여명의 회원이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사회봉사, 회원 친목강화'를 목적으로 창립했다. 현재 1백20여명의 회원이 가입, 매월 둘째주 금요일 7시30분 서초동 마하연포교원에서 법회를 열고, 봄 가을 연2회 사찰순례와 수계식을 갖고 있다. 명절때마다 강릉자비원등 불교복지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사회봉사도 빠뜨리지 않는다.

세무사불자회는 신도들이 사찰과 복지단체에 보시하는 기부금의 세금공제혜택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등 교계가 타종교에 비해 아직도 세금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료세무상담전화(585-3577)를 설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자들이 세무상담을 통하여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 또 김동규회원이 일타스님의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와 김성규교수(경북의대)의 금강경 해설서 '마음은 보석' 등의 불교서적을 초심자들에게 법보시 중이다.

세무사불자회에는 전국 2천5백명 세무사모임의 양대산맥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종태)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정구영)의 회장단이 모두 회원으로 있는 세무사모임의 대표적인 단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송호승회장은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반기에는 참선위주의 법회운영을 준비중이다"며 "1차적으로 불교세가 강한 경상남 · 북도에 세무사회를 창립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상 세무상담 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국세무사불자회와 함께 사찰과 불교단체, 불자들을 위한 지상 세무상담을 실시합니다. 세무관련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적어 본사에 연락(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해 주시면 세무사불자회 회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직장·직능단체 전국 조직화로 신행 다지기

한통불자회 수도권 · 전국연합 결성

KBS 불자회 연내 영호남지역국 창립

금융단불교회 20여곳 은행불자회 추진

IMF시대를 맞아 위기에 처한 직장 · 직능단체들이 전국조직화로 단위 직장단체의 신행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한국통신불자회와 KBS불자회,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등 이들 단체들은 현재 조직확대와 연대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8개 지역에 불자회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통신불자회(회장 김문수)는 최근 전국전화국불자회 임원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연내 전국연합회를 결성키로 했다. 한국통신 본사불자회는 22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혜화전화국불자회등 서울지역 전화국 불자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법회를 갖고 수도권지역 조직을 결집했다. 또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연합체를 4월초 결성키로 하고 기존의 북전주 정읍 군산전화국 불자회원들이 중심이 돼 부안 순창 전주전화국에 불자회 창립을 준비중이다. 또 경북지역도 경주전화국불자회를 결성중에 있다.

KBS불자회(회장 김학선)는 지난해부터 전국권역별 순례법회를 통한 지역국 창립작업에 들어가 현재 20여곳에 불자회를 창립했다. 올해는 목포방송국등 영 · 호남 지역국에 불자회를 창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하동 쌍계사에서 영 · 호남 단합법회를 열어 지역화합과 불자교류를 강화하겠다고.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하용이)는 지난 16일 운영회의를 열고 20여곳의 미창립 지방 금융기관에 불자회를 창립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IMF파고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회원이 감소한 만큼 연합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단불교연합회는 앞으로 자체법당도 마련하여 금융인 불자들의 단합을 기하기로 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1일 경남지부를 창립한데 이어 4월 4일 대구시지부 창립식을 갖는다. 교사불자회는 앞으로 각 지방의 지부창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의 전국조직화 움직임과 관련 교계에서는 상호협조체제를 기함으로써 우의가 증진돼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고 신행증진을 시켜주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원우 기자

하불동에 온라인법회 떴다

서진스님 · 보현보살 생활불교등 법문

질의응답 대화식 참여…매주 2회 운영



◇서진스님이 온라인 수요법회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는 지난 6일부터 직장에 근무하는 불교동호회원들의 신행생활을 위해 온라인법회를 개설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 대화방의 '관전대화방'에서 매주 2회 삼귀의를 시작으로 열리는 온라인법회에서 수요법회는 서진스님(서울 서원사 주지)이 금요법회는 보현보살(부산 동네장갑 대표)이 법사로 법문한다. 특히 통신법회인 만큼 법문시간은 법회에 참가한 회원들과 질의하고 응답하는 대화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12명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람은 무한대로 참여할 수 있다.

서진스님이 생활불교중심의 교학에 치중하는 반면 보현보살은 좌선과 관련한 선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서진스님은 통신이 불교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과 통신인들의 법회참여를 위해 일본유호·중 배운 워드를 이용하여 하이텔 대화방에 '법회방'을 만들어 법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방해와 '무슨자격으로 대화방에서 법회를 하느냐'는 항의를 견디다 못해 96년부터 불교동호회로 옮겨 매주 수요법회를 시작했다. 스님은 불교입문서 '부처님 마음 길라잡이'를 펴내 교재로 삼고 있다.

서진스님은 "메일을 보내고, 사찰의 법회에 나가 신행생활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매주 금요법회를 열고 있는 보현보살(52세)은 법정스님의 '말과 침묵', 동국역경원의 '불교성전'에 근거하여 법회의 법문대화를 하고 있다. 보현보살은 "법회는 누구를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이 만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경기은행불자회 내달 창립

경기은행불자회가 4월 창립한다.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경기은행불자회는 28일 강화도 무애원에서 철야정진법회를 갖고 4월 창립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경기은행 길관우과장은 "금융단불교연합회 가입을 통한 불자금융인들과의 친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02)610-4400

MBC불교연 전국법회

부산문화방송 불교연구회(회장 주홍식)가 주관하는 제2회 MBC불교연구회 전국합동법회가 28, 29일 양일간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다. 합동법회는 분과토의와 범어사주지 성오스님의 법문을 듣고 금정산 산행도 한다. (051)760-1000

대광맹인회 · 정법회 산행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와 대구개인택시 정법회는 19일 대구 팔공산 관봉(갓바위)에서 3백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일반인과 장애인이 하나되기를 기원하는 제7회 시각장애인 산행대회를 갖는다.

대구개인택시정법회의 자원봉사로 열리는 산행대회는 오전10시 기념식과 관봉 정상법회순으로 진행된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교육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12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2급 지도자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3개월 과정의 2급 지도자과정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7시부터 9시까지 2시간동안 열린다. (02)738-7860

'IMF시대 금융인 자세' 법회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하용이)는 4월 11일 오후7시 한국은행에서 금융단불자회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IMF시대 불자금융인들의 자세'를 주제로 열리는 법회에서는 초파일을 맞아 자원봉사활동 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02)759-4505

KBS불자회 정기법회

KBS불자회(회장 김학선)는 26일 제5회의실에서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초파일을 맞아 회사내와 국회앞 도로등 KBS불자회가 매년 설치하고 있는 여의도지역 장엄물 설치계획과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02)781-2310

반야라이온스 이사회

반야라이온스클럽(회장 강학일)은 24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개원과 운영, 4월 자원봉사활동, 창립 9주년 행사계획을 수립했다. (02)816-4252



조계종 창작찬불가 당선작 시상식

조계종 문화부(부장 원학스님)가 주최한 제1회 창작찬불가 당선작 시상식이 16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거행됐다.

이날 도안스님(광주 향림사)이 금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김현지 박상훈씨가 은상, 장기찬 양병철씨가 동상, 이순희씨등 4명이 장려상을 수상, 상장과 상패 상금을 받았다. 월주총무원장스님은 "감성에 호소하는 좋은 찬불가를 많이 만들어 포교와 대중화합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이취임식

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 이 · 취임식이 13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설정(조계종 총회의장) 지선(백양사주지) 동광(도선사주지) 효림(보광사주지) 운경(백련사주지) 원혜(조계종 포교부장)스님을 비롯하여 국민회의 한광옥 김근태 부총재, 자민련 박철언부총재, 김재일 동산반야회장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실천회 '100일결사' 선포식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14일 법련사 3층 대법당에서 정기총회 및 '생명을 나눔시다' 100일결사 선포식을 가졌다. 연꽃사진 전시회(작자 최차영)를 겸한 법회에는 조계종 총회의장 설정, 前 불교TV사장 태응, 인덕원 원장 성운,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과 정한용의원(국민회의), 박진탁목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장) 등 3백여명 참석. 생명나눔실천회는 4년간 2천8백93명의 장기기증 신청, 61명의 이식수술을 실시했다.



대승불교연구원 개원법회

대승불교연구원(원장 오형근)은 18일 서울 묵정동 대학문화원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대승불교연구원은 지난해 동국대학교를 정년퇴임한 오형근 교수가 "불교수용 당시의 대승불교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개원식에는 서울대 윤이흠 금장태 최병헌 교수, 서울산업대 정명근 교수, 고려대 최종교 교수, 도윤스님(서울 충정사 주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訃 告

蓮花山 海光寺 會主이신 海光堂 性允 大禪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2年 3月 18日 (陰 2月 20日)
午後 7時 15分 海光寺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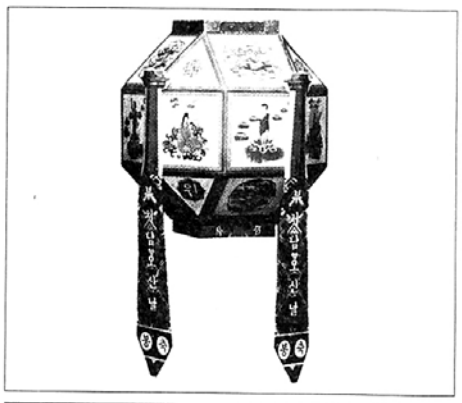
1. 永 訣 式 : 佛紀 2542年 3月 22日(陰 2月 24日) 年前 10時
2. 永訣式場 : 蓮花山 海光寺 道場
3. 茶 毘 場 : 蓮花山 海光寺 茶毘場

大韓佛教 曹溪宗 蓮花山 海光寺

門徒代表 圓 明 合掌
上座 慧惺·慧衍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인하 하였습니다.



가격 인하 단행!!

● 외환 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연등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낚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발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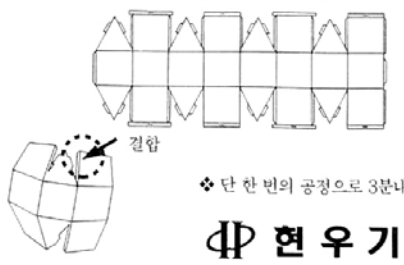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법회안내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 25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법당 다보법회. 매월 음력 1일 승현사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보름법회. (02)703-0108



대운스님(봉원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신증기도.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안등기도, 오전 11시 관음법회.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7시 봉원사청년회. (02)392-3008



응현스님(보명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가족법회. (032)815-6610



한정섭법사(한국불교금강선원 이사장) 25일 저녁 7시 반 법련사 불일청년회 수요정기 법회. 매주 일요일 새벽 5시 관악산 성주암 법회. 매월 첫째 일요일 동명사 법회.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청주 수도원 법회. 매월 셋째 넷째 일요일 오전 10시 의정부 자비회관 법회. (02)962-1666



김태영법사(문사수법회) 매주 금·일요일 오전 10시30분 일산 문사수 정기법회. 매주 월·화요일 새벽 5시 30분 경전법회.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 대전 문사수 법회. 매월 셋째 금요일 낮12시 한국은행 법회.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6시30분 한국전력 법회. (0344)966-2544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생활 이렇게 점검하세요"

조계종 실천항목 수록 '자기점검표' 배포

대한불교조계종 깨달음의사회화운동연구기획단은 불기2542년도 '자기신행점검표'를 제작 배포한다.

스스로 자신의 신행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1아침 예불을 하였다·2공양발원을 하였다·3경전독송을 하였다·4취침전 좌선을 하였다·5법우의 법명을 부른다·6불교언론매체를 접했다·7인연닿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다·8인연닿는 사람에게 자비봉사행을 하였다·9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하였다·10음식을 남기지 않았다' 등 10가지 실천항목을 지정해 매일매일 실행여부를 기록하도록 했다.

이것을 다시 년간점검표에서 '수입중 8/100보시(108조)를 실천하였다·법회에 월2회 이상 참석하였다·2권이상의 불서를 읽었다·1회이상 수련법회에 참석하였다·5계를 지켰다' 등 20개 항목으로 분류점검할 수 있도록 해 놓아, 자신의 신행생활을 반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02)735-5864

신행수첩

국난극복기도 2천4백일

선원사 대장경 이운기념법회

올해는 팔만대장경 해인사이운 600주년. 팔만대장경의 관각성지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4월1일 오전 10시 이를 기념하는 대법회를 봉행한다. 또 선원사 복원을 위한 천일지장기도가 2천4백일을 맞기도 하는 이날 법회는 영가 천도재도 병행한다.

조계종 초대 기초선원장인 진허스님이 초청법사로 팔만대장경을 관각한 고려 2대선찰 선원사의 역사적 증요성을 일깨워 준다. 국난의 어려움을 부처님의 법음을 새기며 민족자존의 의지로서 이겨냈듯이 IMF한파를 선인들의 흐국의지와 법열을 배우며 견뎌내는 것도 좋을 듯. 법문을 들으며 곧 착수되는 2차발굴작업에 좋은 인연이 있길 서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032)933-8234

내면의 불심 꽃피우자

'맑고향기' 예쁜꽃 심기

개나리의 노란 얼굴이 고개 내미는 봄! 맑고 향기롭게 모임(회주 법정)이 봄단장을 위한 불사를 길상사에 마련했다.

29일 오전 8시부터 성북동 길상사 경내에 '예쁜 꽃 심기' 행사를 펼치는 것.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더욱 좋다. 아이들과 함께 꽃삽과 면장갑을 준비하고, 거름이 될 퇴비나 흙 또는 자신이 꼭 심고 싶은 꽃이나 나무를 직접 가지고 와도 된다.

동참을 원하면 전화신청을 하고 당일 길상사 극락전 앞에 모이면 된다. (02)741-4696

불황 이기는 알뜰마당

두송복지관 바자회 열어

두송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은 31일 복지관내 육상에서 'IMF극복을 위한 두송아나바다 바자회'를 연다. 이날 바자회는 의류 가방 책자 신발 아동용품 기증 교환도 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한다.

두송복지관은 이번 행사후에도 상설시장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알뜰살림에 보탬을 줄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능협과 연계해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도 할 예정이라고. (051)265-9471~3

재활꿈 다지는 기술교육

불자련 자원봉사대학 개강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IMF 시대 명예퇴직과 실직의 위기를 자원봉사의 기회로'란 슬로건 아래 98자원봉사대학을 30일 개강한다.

실직의 실의 속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위해 마련된 자원봉사대학은 △불교 호스피스 △수지침 △원왕생 등 전문기술 강좌 의에도 실직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교육기간은 7월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수강료는 무료. (02)723-6258

내면의 불심 꽃피우자

'맑고향기' 예쁜꽃 심기

개나리의 노란 얼굴이 고개 내미는 봄! 맑고 향기롭게 모임(회주 법정)이 봄단장을 위한 불사를 길상사에 마련했다.

29일 오전 8시부터 성북동 길상사 경내에 '예쁜 꽃 심기' 행사를 펼치는 것.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더욱 좋다. 아이들과 함께 꽃삽과 면장갑을 준비하고, 거름이 될 퇴비나 흙 또는 자신이 꼭 심고 싶은 꽃이나 나무를 직접 가지고 와도 된다.

동참을 원하면 전화신청을 하고 당일 길상사 극락전 앞에 모이면 된다. (02)741-4696

불황 이기는 알뜰마당

두송복지관 바자회 열어

두송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은 31일 복지관내 육상에서 'IMF극복을 위한 두송아나바다 바자회'를 연다. 이날 바자회는 의류 가방 책자 신발 아동용품 기증 교환도 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한다.

두송복지관은 이번 행사후에도 상설시장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알뜰살림에 보탬을 줄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능협과 연계해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도 할 예정이라고. (051)265-9471~3

재활꿈 다지는 기술교육

불자련 자원봉사대학 개강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IMF 시대 명예퇴직과 실직의 위기를 자원봉사의 기회로'란 슬로건 아래 98자원봉사대학을 30일 개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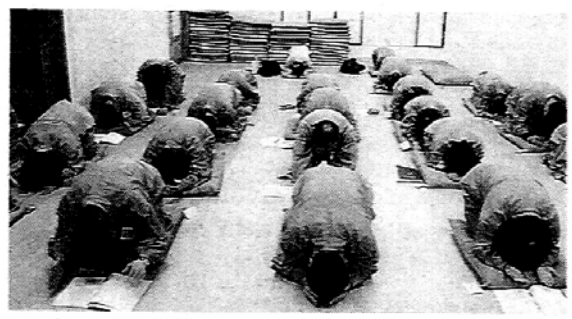
실직의 실의 속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위해 마련된 자원봉사대학은 △불교 호스피스 △수지침 △원왕생 등 전문기술 강좌 의에도 실직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교육기간은 7월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수강료는 무료. (02)723-6258

"버려야만 새 것 얻는다"

대구BBS 동화사서 단기출가 수련

짧은 기간이지만 승가의 계율을 익히고 참선 수행을 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구불교방송(지사장 법타스님)은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등안 팔공산 동화사 부도암에서 '단기출가 수련회'를 개최한다.

참선, 1080배 기도, 팔공산 향토와 역사 강좌, 발우공양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이번 수련회는 장적(대구 불교방송 총괄국장)·재범(대구 불교방송 기획위원)스님 등이 진행을 맡는다. 산사에서 정진 삼매에 빠지다보면 '버리는 자만이 새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053)427-5114



◇단기출가수련회는 경제위기로 위축된 불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준다. 사진은 길상사 단기출가수련회에서 정진중인 불자들.

게 시 판

♣ 인사

△교무처장 서윤길 △사회교육원장 권기종 (동국대)

△교학처장 겸 전자계산소장 김무생 △사무처장 겸 중앙도서관장 배도순 △비서실장 겸 아시아 태평양연구소장 홍윤헌 △사회교육원장 권재찬 △신라학연구소장 이정옥 △전자기술연구소장 김태수 (위덕대)

♣ 알림

▲연꽃노래잔치=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4월19일 오후 1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10회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접수마감은 4월 18일까지. (02)730-9108

▲하루찻집=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28일 중앙동 '다전'에서 하루찻집을 연다. 목적은 어린이 포교기금 마련. (051)808-4569

♣ 강좌

▲기초교리·경전공부=광덕사(주지법사 능인)는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에 〈한글아함경〉 경전공부, 매주 수·목요일 오전 11시에 기초교리강좌를 실시한다. (062)652-6050

▲무료 꽃꽂이=분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응)은 4월7일 화요일 오후 2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코싸지, 꽃장식, 신부부케 등의 무료 꽃꽂이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02)817-8052

♣ 모집

▲성훈따주기=등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전통가정의학 응급처치법인 성훈따주기 제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성훈따주기는 중풍 급체 어린이경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민간의학요법 중의 하나. 4월1일부터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실시하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053)784-3669

▲관음불교학교=관음사(주지 토진)가 관음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31일부터 3개월간 불교교리, 〈천수경〉, 〈법구경〉, 관음신앙 등을 교육한다. (062)223-7666

▲결식노인 후원자=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실시하는 결식노인들을 위한 점심공양 후원자를 모집한다. (02)587-6613

▲만해불교대학 수강생=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부설 만해불교대학(학장 이춘기)가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학개론, 21세기 불교의 역할, 보살사상, 정토사상 등 불교이론과 함께 성지순례도 한다. (051)645-7871

♣ 부음

▲경남 양산 해광사 회주 성윤(性允)스님이 18일 해광사에서 입적했다. 영결 다비식은 22일 해광사에서 엄수됐다.

나의 수행일기



홍 순 종

〈도서출판 '중명' 대표〉

"나 버려야 사물 바로 보여"

모순된 기도·치우친 생각 법화사상으로 극복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곧 진리이며, 나를 영생으로 이끌것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그런 믿음으로 수십년간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했다. 머리가 뜰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으며,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어먹지 않는 인생이 되길 원하며 살아왔다. 진정 그렇게 되리라 굳게 믿고 생활하면서 최고의 경지를 추구해 왔다. 그런데 이 산이 최고봉이라고 믿고 올라갔는데 정상에 다 올라가서 보니 저멀리 더욱 높은 산이 턱하고 앞에 버티고 있었다. 다시 산을 내려와 최고봉의 산을 찾으려니 도대체 어느산이 진정 최고봉인지 알 길이 없는 것처럼 즉, 모든 것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정상에서의 깨달음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최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 내가 가는 길만이 최정상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쪽 종교에 귀기울이면 이런 것 같고, 저쪽 종교에 귀기울이면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내 자신 스스로 정립된 믿음이 적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다. 구구절절한 도(道)의 경지를 설명들어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들을때는 금방이라도 환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자리만 뜨면 다시 전과 같은 암흑의 상태여서 도의 길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 같은데도 자기 스스로는 마치 도의 길로 접어든 것처럼 믿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다. 나 역시도 다를바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절하게 된 법화사상으로 인해 그런 어리석음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되었다.

도는 세상의 지식이나 관념, 수행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면 어느 순간 도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기간이나 읽었던 경전을 사랑하며, 수행의 경험으로 도의 경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리어 그런 변(邊)과 작위(作爲) 때문에 도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을 수가 있다고 한다. 변이란 유위든 무위든 좋고 나쁘고 밝음과 어둠이란 생각을 하면 변위다. 내가 최고고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때가 그렇다. 일반 불교에서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생각하는 공자체는 실상이 아니라 다만 변견일 뿐이다. 물론 실상에는 공이 포함되지만 실상에서 바라보는 공은 변견으로서의 공이 아닌 여실한 공이기에 가관과 중도관에 입각하지 않은 공은 그 역시 분별심에 의한 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주 어릴때부터, 아니면 몇대째 교회에 다닌 것으로 믿음의 척도를 판단하고, 이웃들에게 선함을 베풀며 절대자임을 자처하는 마음과 행동들은 진정 자신의 길을 망칠수도 있다고 본다.

나 역시 십수년간 빌어먹지 않고,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되게 해 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얼마나 모순되고 이기적인 기도인가를 나무묘법연화경을 봉창하면서 이런 부분이 바로 변견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변이며 작위라 증도실상지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지 한쪽에 치우쳐 바라본다면 이것이 곧 사도며 나를 막는 행위이다. 나의 지식과 관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이 자체가 변이며 각이다. 그래서 불교든 기독교든, 그 어떤 종교든지 간에 나를 버릴 때 만이 비로소 도의 길에 이르는 것이며 도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인 나무묘법연화경을 봉창하면서 정진해 나아가면 그 수승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글과 인연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시하여 사람이 살아가며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말하고, 접촉하고, 생각하는 일체 모든 유무정물들을 즉신성불케 하여주소서.

*지난주 게재된 노익원씨 수행일기의 원고정리와 교정잘못으로 필자와 독자께 누를 끼치게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경전을 듣는 사람이면, 어리석음에서 눈뜨고 무명을 깨뜨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 무소유 보살경 -

1장의 CD에 25시간 분량의 부처님의 무량한 진리를 담았습니다! (세계 최초)

인켈 오디오북 「불경대전집」

● 수록내용:천수경, 반야심경, 고왕경, 금강경, 화엄경, 산왕경, 부모은중경, 법화경, 지장경, 석가모니불 정근, 관음정진, 관세음보살보문품경, 나응화상 발원문, 천지팔양신주경, 신심명, 보현행원품, 약사여래본원경,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주, 약사여래불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지장보살 정근, 화엄성중 정근, 마하반야바라밀 정근,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아미타경, 우리말 반야심경, 회심곡, 명상의 말씀 등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이 수록되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 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오디오북 플레이어(재생기)

●듣고 싶은 부분을 바로 찾아 들려주고 빨리감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원터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인켈이 세계최초로 특허한 휴대용 오디오북 압축 CD와 FM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규격 : W×D×H(26×16×6.5cm)

특별할인판매 40% 할인



= ~~₩485,000~~ → 특별 할인가 ₩290,000

「불경대전집」과 「삼국지」는 인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 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오디오북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오디오북 소프트웨어(CD)는 TOEIC, 생활영어, 어린이영어, 소설, 시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에서도 들을 수 있으며 별도의 아답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별도판매)

구입 문의
■판 매 원 : 아울렛 유통(서울 용산)
■문의전화:(02)3274-119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은행계좌 : *국민은행 : 015-21-0955-947 *능협 : 011-01-430541 *조흥은행 : 952-04-132815 *예금주 :이 종 주

inkel

외국관광객 불교문화 '체험'

봉원사 28일부터 주말마다 영산재 시연
봉축위 외국인에 연등축제등 홍보리플렛

외국인들이 직접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場)이 늘어나고 있다. 다도, 발우공양, 연등만들기와 제등행진, 관욕 등 불교문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속속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는 외국인관광객들도 늘고 있다. 외국인들의 한국관광을 유치하는 여행사에서는 불교문화체험 팩키지 상품까지 만들고 있다.

신촌 봉원사(주지 대운)는 사찰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25일과 31일 불교육법공양중 하나인 헌다의식과 차 시음회, 28일부터 매 주말에 영산재시연회를 갖는다.

원법스님의 지도로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25일과 31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다도시연에는 우리나라에 관광온 2백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할 예정. 부처님께 차를 공양하는 헌다의식과 함께 다구 설명부터 차 우리기 찻물따르기와 차를마시는 의식 전 과정이 시연되고 시음기회도 제공된다. 헌다의식의 유래와 차마시는 자세·공덕 등도 상세히 설명된다. 사전작업으로 지난 16일 각 여행사 가이드 30여명을 대상으로 다도시연회를 가진 봉원사는 앞으로 여행사가 요청할 경우 외국관광객들을 대상 다도시연회를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8일부터 매주 토(오후 5시 30분), 일요일(오전 11시 30분)에 실시하는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시연회는 매년 음 5월 5일 봉행하는 영산재의 핵심만을 모아 1시간 반으로 압축해 무대에 올리는 문화포교. 천수바라, 나비춤 법고무 등 화려한 의식무와 삼현육각 호적 취타 등의 연주가 한층 불교의식의 장엄을 더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연후에는 전통사찰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사찰음식을 외국인들이 직접 발우에 담아 먹으며 발우공양 의식도 경험한다.

한편 조계종봉축위는 4월 26일 연등축제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외국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미 영문과 일어로 된 홍보 리플렛 각 1만장을 인바운드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주한외국대사관, 주한미군 여행안내소, 외국인집단거주지 등에 배포했다. 봉축위는 연등만들기, 제등행진, 관욕 등 외국인들이 흥미를 느끼고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확대해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

이번 연등축제에는 지난해의 3배가 넘는 5천여명의 외국인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봉축위는 따라서 외국인들이 생소한 불교문화에 친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연등만들기 코너와 제등행진의 기회도 보다많이 제공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일반인들뿐 아니라 해외관광객들이 꼭 보고싶어하는 세계적인 종교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일은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포교측면은 물론, IMF구제금융이라는 국난속에서 외화획득에도 톡톡히 일조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서는 다도 발우공양 연등만들기뿐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독특한 불교문화상품 개발이 과제로 남는다.

이경숙 기자



◇지난해 종로거리에서 열린 연등축제에서 연등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

불심시심 〈122〉

노년의 꽃은 역시 안개 속의 꽃

경암대사가 보은군수, 옥천군수와 함께 주고받은 시를 한편 더 감상하자. 보은군수가 먼저 "오늘의 시가 모두 우수에 싸여 즐겁지가 못한 듯하니, 도덕적 격식을 벗어나는 것도 이런 모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하고는

嫩梅暎雨碧闌干 나른한 매화에 성근 비가 푸르름이 졸졸
(난매소우벽란간)
長憶丹中翠袖寒 선녀 궁중의 푸른소매 차가움이 길이 기억되다
(장억단중취수한)
忽見使君如夢寐 홀연히 사군님을 보니 꿈결 잠결 같다기에
(홀견사군여몽매)
題詩寄與玉娘看 시를 지어 써서 옥랑에게 부쳐보라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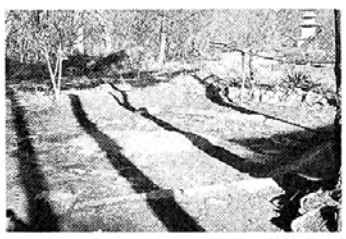
읊었다. 대사에게 화답하라 하니, 대사는 할 수 없다 하며,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경계하되 구업이 청정하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하였다 하니, 군수는 웃으면서 옛날 대전스님은 흥랑과 함께 여러날 있어도 태연히 혐의는 기색이 없었는데 경암은 옥랑을 보지도 않고서 욕되듯이 하니 왜소한 것이 아닌가 했다. 대사는 사람마다 의지가 다르니 한 궤도로 말할 수 없다 하고는 억지로 한 수를 지었다.

觀空觀色總無干 공을 보든 색을 보든 도무지 간여 안돼
(관공관색총무간)
高臥雲端碧樹寒 높이 구름 끝 푸른 나무에 누워 싸늘하다
(고와운단벽수한)
聯韻偏憐工部語 시를 짓되 유독 두보의 싯구를 사랑하니
(연운편련공부어)
老年花似霧中看 늙은이의 꽃은 안개 속에 보는 것 같다 했지
(노년화사무중간)

옥천군수가 이어 화답했다.

佳人翠袖淚闌干 아름다운 여인 푸른 소매에 눈물 주루룩
(가인취수루난간)
尙想分酹慰薄寒 막걸리 나누며 싸늘한 추위 달래던 일 생각나
(상상분요위박한)
一幅情詩同活畵 한 폭의 정다운 시가 산그림 같아서
(일폭정시동활화)
强敎泥絮霧中看 애써 가리앉은 마음으로 안개속에서 보듯 하네.
(강교니서무중간)

이종찬 〈동국대 교수〉



◇목탑자리냐 금당자리냐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동사지의 유구.

"목탑자리" "금당자리"

하남 동사지 유구놓고 논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동사지(棟寺址·사적352호)에 노출돼 있는 유구를 둘러싸고 목탑자리냐 금당자리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KBS 9시뉴스는 삼국시대에 조성된 국내최대의 목탑자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현장을 둘러본 장충식교수(동국대)는 "동사지 주춧돌 사이에 노출돼 있는 유구는 목탑의 심초석으로, 사리함을 넣어두던 사리공의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주변에 널려있는 주춧돌로 보아 한면이 7칸 28m로 황룡사지 9층목탑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88년 이 지역을 발굴한 문명대교수(동국대)는 "현재 남아있는 주춧돌로는 정면 28m, 측면 20m밖에 되지 않아 정방형의 목탑자리로 보기 어렵고 달리 금당이 있을 만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어른공경 미풍양속 이어가야죠"

부모은중도 1만장 법보시 김이랑씨





◇김이랑씨가 그린 부모은중도(부분). 먹으로 그린 담백한 선화풍이다.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이 들어있는 5월까지 소외된 이웃과 청소년을 위해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그린 그림 1만장을 법보시하겠다는 화가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동양화가 김이랑씨(45)씨. 법보시에서 나온 기금은 소년소녀가장·결손가정·무의탁노인 돕기와 불교유치원설립기금으로 쓰인다. 김씨는 "우리 사회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다시 찾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원력을 냈다"고 말한다. 그는 부모은중경의 내용이야말로 오늘날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는 교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이랑씨는 원래 집안대대로 독실한 가톨릭신자였으나 87년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회 촌장 법전스님을 만나면서 불연을 맺었다. 스님의 권유로 부모은중경을 그림으로 옮기게 되었고 은중도를 인연닿는 대로 스님과 불자들에게 하나씩 법보시해 왔다. 10년동안 1만장을 채운 김이랑씨는 지난해 드디어 '법연'이란 법명을 받고 불자로서 새로 태어났다.

"오계를 수지할 때의 그 환희심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제자로서 열심히 정진하며 그림으로 포교하고자 합니다." 이당 김은호화백에게 사사했고 그동안 많은 초대전과 그룹전을 가진바 있는 김이랑씨는 앞으로 부모은중도, 달마도 선서화 등을 모아 개인전도 개최할 계획. (02)873-6646 〈숙〉

日서 백제대사 9층탑 기단 발견

한면 30m 황룡사지 목탑과 비슷

백제인이 창건한 일본 최초의 국립사찰 백제대사의 9층탑터로 보이는 기단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나라(奈良)현 사쿠라이(櫻井)시 기비(吉備)에서 발견된 기단은 한면이 30m인 장방형으로, 〈일본서기〉 등에 기술돼 있는 백제대사의 9층탑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탑기단 주변에서 발견된 기와등의 추정연대가 640년대로 백제대사의 조성이 639년으로 기술된 〈일본서기〉와 거의 일치하다"며 "당시 불교의 수용과정과 정치상황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백제대사는 이번에 발견된 기단의 규모로 볼 때 신라 황룡사지목탑과 거의 비슷한 크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사진전

'세계문화유산 특별사진전'이 7일부터 남산 서울타워 지구촌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3개월동안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및 관전, 캄보디아의 앙코르사원, 중국의 돈황 등 전세계 50개국의 세계문화유산 1백30점이 선보인다. (02)773-9590.

부여문화재지도 발간

부여지역의 탑과 불상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여군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발간됐다. 이 책자에는 부여지역의 국보(5점)·보물(13점)·사적(14점) 등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를 포함해 1/5000 지도에 담아냈다.

'선종영가집' '춘추좌씨전'

간행연도 위조 논란

양산 대성암서 같은 판본 발견 대조

조선시대 전적이 고려시대 것으로 위조, 보물지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경남 양산시 대성암(주지 원진)에서 같은 판본의 고서들이 발견돼 비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제의 전적은 지난 78년 보물 제641호로 지정된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과 94년 보물 제1208호로 지정된 〈춘추경좌씨전구해(春秋經左氏傳句解)〉.

〈선종영가집〉은 새로 발견된 판본에는 맨 뒷부분에 '조선조 세조때 세자로 책봉했다가 즉위 전에 요절한 덕종의 비인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발원으로 간행했다'는 간기가 붙어있는 반면 보물에는 이 부분만 고스란히 누락돼 있다. 고의로 뒷장을 없애 간행연도를 앞당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 더욱이 당연히 보관해야 할 보물 지정 당시의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서가 없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춘추경좌씨전구해〉도 이번에 발견된 간기부분의 간행연도가 '선덕(宣德)6년'인 반면 보물에는 '선광(宣光)6년'으로 돼 있어 위조의혹을 사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새로 발견된 전적들을 입수,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석 기자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만든 화제의 책!

알기쉬운 불교미술

조계종 '98 신도 교육의 해 권장도서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 만든 화재의 책
◆불교미술 전반에 걸쳐 도판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

일반인을 위한 불교미술해설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면서도 어려웠던 불교미술,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부처님과 탱화, 그리고 모든 성스러운 불교미술품에대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사찰의 모든 불교미술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값 9,000원/동국불교미술인회 엮음

동국불교미술인회는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미술가 모임으로 전국 각지의 사찰에 많은 작품들을 조성, 봉안해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품전과 주제전,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 전통불교미술발전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원과 불상, 불화의 의미 ·법당과 부처님, 탑 ·석조물, 문루와 그 의미 ·법구, 불교의 상징물, 단청

동국불교미술인회 펴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02)738-1117
보급처 : 불교방송사업국 ☎(02)705-5302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 장가 안가길 잘했네 ❶❷

각권 6,500원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메마른 마음을 사랑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주옥같은 수필집.
마음을 밝혀 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국 출판계를 강타했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전 ❹권 각권 6,000원

"우학 스님!
불교가 이렇게 재미 있군요!
열번을 읽어도 매번 다른
느낌으로 다가 옵니다."

우학 스님의 책

☞ 새로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上·下
☞ 불교 EQ ❶❷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불교 문답집
☞ 불교 사경집 반야심경·천수경·금강경·초발심자경문·중도가 등 3대 경전

-도서출판 좋은인연-

도서출판 좋은인연 (영남불교대학 부속 출판사) 053)475-3707

화엄사상으로 '신과학' 화두 푼다

카프라 '생명의 그물' 등 5권 완역

"생물시스템 구성성분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중적 연결망 갖춘 생명의 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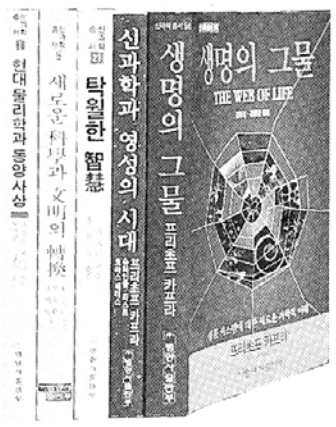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1939~)는 인간과 자연, 주관과 객관, 부분과 전체,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동양의 유기적 세계관이 현대물리학의 이론과 맞어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화엄사상에 바탕을 둔 그의 불교관은 현대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카프라의 저서 〈생명의 그물〉(김용정·김동광 譯, 범양사 출판부 刊)은 전체론적 패러다임과 시스템적 사고, 혼돈속의 질서, 생명의 자기조직화과정, 복잡성과 생명 등 현대과학의 화두를 불교사상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같은 접근의 바탕은 생명이 하나의 시스템이며, 우주도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관점에 있다. 그리고 생물시스템은 그 구성성분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른 구성 성분들에 의해 변형되고 대체되는 다중적으로 상호 연결된 연결망, 즉 생명의 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지는 심층 생태학에 이어 시스템이론과 마음의 논리, 자기조직화의 모형들, 생명의 전개 및 세계의 탄생 등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카프라는 여기에 생물학적·사회적 행위의 역사와 떼놓고 볼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즉 '무릇 함이 곧 앎이며, 앎이 곧 함이다'라는 산티아고학파의 중심인물인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인지이론을 도입하고 이들의 이론이 모든 고정된 형상들이 환영에 불과하며 분리된 자아의 개념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고정된 사고 범주에 대한 고착에서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불교사상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카프라는 우리의 완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체 생명의 그물과의 연결성을 근본적으로 자각해야 하며, 불교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카프라의 불교관은 1975년 나온 첫번째 저서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에서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는 불교의 화엄사상과 소립자 물리학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화엄의 사사무애(事事無碍) 세계관으로 설명했다.

또 두번째 저서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에서는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접합론을 펼치고 있으며, 88년 작품인 〈탁월한 지혜〉에서는 양자 물리학자 제프리 츄의 '구두끈 가설'(사물은 상호 일관성 있는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이론으로,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보다 기본적일 수 없는 상관을 가진 역동적인 거미줄로 자연을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 불교사상과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신학과 종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두 신부와의 대화록인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에서도 카프라는 불교의 정신세계가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고 있다.



한명우 기자

프리초프 카프라는 누구

동양적 솜ㅡ 세계관으로 현대물리학의 한계 극복



오스트리아 태생의 물리학자로 '신과학'의 대표적 인물.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으로 대표되는 현대물리학을 불교, 도교, 힌두교 등 동양사상으로 접근하고 이론적으로 해명해냈다. 카프라는 미국의 물리학 잡지에 여러 차례 현대 소립자 물리학과 동양철학의 비교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로스엔젤레스 선센터에서 직접 선을 공부하기도 했다.

카프라의 사상은 한마디로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입각한 기계론, 결정론, 환원주의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 유기체적, 시스템적, 전체론적,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과학이 동양의 종교 내지 철학의 사유방법과 유사한 일면을 띠고 있으며 인류의 우주관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동양철학적 사고관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불교사상에 더욱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학강의 현각스님 지음

신심명등 선종4부록 일화 소개



흔히 선사들의 감칠맛 나는 문자의 법열을 느끼려면 〈선종 4부록〉에 빠져보라고 한다. 무량겁을 넘나드는 대자유와 해탈이 깃들어 있고, 세계가 멸한다 해도 넉넉하고 한가로운 기상이 넘쳐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신심명·증도가·십우도·좌선의 등 〈선종 4부록〉을 일화 등을 소개하며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또 게송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설과 함께 어려운 한자에 대한 풀이도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좌선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글을 부지런히 익히면 너 나 할 것 없이 다 깨치게 되리라"는 구절이 있다. 인내심으로 읽고 참구하면 불법의 심오함을 맛볼 수 있다고 현각스님은 얘기한다. 〈불일 5천원〉

화제의 책

초발심자경문 강의 무관스님 지음

초발심자의 마음가짐·생활규범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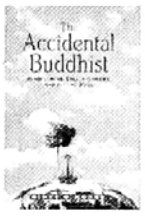


보조스님의 저술인 〈계초심학인문〉과 원효스님의 저술 〈발심수행장〉, 야운스님의 저술 〈자경문〉을 합해 한 권으로 엮은 이 책은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나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생활규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상의 갖가지 욕망에 탐착하지 말고 마음을 분발하여 하루 속히 깨달음에 이르라는 옛 선지식들의 고훈이 스며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것' '윤회의 원인' 등 각 주제마다 한문 원문과 번역 그리고 자세한 해설을 실었다. 행자교육과 강원에서 직접 강의해 온 것을 토대로 한 무관스님의 강설은 이해와 깊이를 더해준다. 〈민족사 6천원〉

해•외•신•간

우연히 불자가 되다



〈우연히 불자가 되다(The Accidental Buddhist:Mindfulness, Enlightment, and Sitting Still)〉는 아시아 전통 종교인 불교가 90년대부터 미국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발돋음하게 된 이유를 고찰한 딘티 W. 무어(美 퀸 스테이트대) 교수의 학술 연구서.

무어교수는 이 책에서 "7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중국·일본·티벳·베트남인들의 불교는 90년대에 이르러 이들 이민세대의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미국문화의 중심으로 등장했다"며 "미국인들은 티벳 법왕 달라이 라마를 자신들의 동반자라고 믿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美 알론퀸서적 刊. (256 pp. ISBN 1-56512-142-2)

티벳



〈티벳(Tibet)〉은 티벳의 웅장하고 초자연적인 경관과 티없이 맑은 사람들, 종교, 문화 등을 생생하게 담은 가츠요시 노마치의 사진집.

이 사진집에는 △야크 가죽과 해골로 만든 만다라 △죠캉사원 △세라사 뒤 언덕의 화려한 마애불 △롤라 캉르리산의 만년설 △세계7대 불가사리로 꼽히는 포탈라궁 △라사강변에서 빨래하는 여인 등 2백여점이 수록되어 있다.

노마치씨는 일본사진학회와 국립출판사진작가협회의 상을 수상했던 일본의 저명한 사진작가. 사진 에세이는 美 콜럼비아대학에서 인도-티벳학을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트루만교수가 썼다. 美 삼발라 刊. (198 pp. ISBN 1-57062-256-6)



'한국의 불상' 출간

황수영박사 전집 첫째권

금동불관련 저서·논문등 모아

우리나라 불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불상(상)〉(도서출판 혜안 刊)이 나왔다. 한국미술사학계의 태두 초우 황수영박사의 전집 제1권인 이 책은 반가사유상을 제외한 금동불 등에 관해 저자가 그동안 발표한 저서와 논문, 강연문 등을 한데 모은 것이다.

'한국 불상의 연구' '한국불상의 시대적 특징' '삼국·통일신라·고려시대의 불상' '사(寺)·사지(寺址)' 등 4부로 구성돼 있으며, 유점사 53불 등 저자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포함한 희귀하고 소중한 2백여 점이 넘는 유물이 도면 및 사진자료와 함께 실려 있어 이해를 돕고 있다.

더욱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수많은 유물을 찾아내 박물관으로 옮겨지기까지의 모습을 담은 논문들은 문화재 자체의 유래와 조성 배경에 대한 관심없이 양식사(樣式史)에만 치중하는 최근 한국미술사의 학문 연구 풍토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황수영 박사는 이 책에 이어 〈한국의 불상(하)〉 〈한국의 불교 공예·탑비〉 〈금석유문〉 〈인도일기〉 등을 순차적으로 펴낼 예정이다.

백제문화 총정리

'백제를 다시본다'

최몽룡·홍윤식교수 등 20명

불교·공예·민속등 연구분석

〈백제를 다시본다〉(도서출판 주류성 刊)는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고고학, 공예, 민속, 언어에 이르기까지 백제문화 전체를 다루고 있다. 최몽룡 서울대 박물관장의 서문을 필두로 이기동·홍윤식교수(이상 동국대) 강우방(경주박물관장) 장경호(경기도립박물관장)씨 등 각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했다.

이 책은 '불국정토' 건설을 꿈꾼 백제인의 불교사상은 백제인들이 얼마나 불교적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백제인의 웃음으로 비유되는 충남 서산 용현리의 마애삼존불(국보48호), 부여 정림사 절터에 남아있는 5층석탑의 단아함, 부여 능산리 고분군 절터에서 발굴된 소조 불두의 미소, 전북 익산지역에서 출토된 동판불에 새겨진 ㅇ래삼존상의 등근 자태가 이를 증명한다. 또 동양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는 금동연화관반가사유상(국보83호)과 부여 정림사지 출토 납석제삼존불좌상 등은 백제인의 혼과 생명력이 들어있음을 느끼게 한다.

특히 백제금동대향로와 금동연화관반가사유상의 컬러화보와 함께 중간중간 각종 유물에 대한 자료사진이 실려있어 이해를 돕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됐던 '백제시를 다시본다'를 재구성했다.

'좋은 물음…' '죽음을…'

'정토문고' 시리즈 2·3권 나와

불교출판 연지문에서 〈정토문고〉시리즈 두번째와 세번째인 〈좋은 물음·좋은 대답〉 〈죽음을 준비합시다〉가 나왔다.

〈좋은 물음·좋은 대답〉은 호주인 쉬라와스티 담미카 스님이 호주와 아시아 각국 대학강연에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던 것을 모아 정리한 책으로 현장스님이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 〈죽음을 준비합시다〉는 중국과 티벳의 불교서적 가운데 정토신앙의 왕생 해탈법과 밀교의 중음신(中陰神) 해탈법을 정리해 엮었으며, 참된 불교신앙과 해탈의 길을 찾는 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

연지문은 95년 지장보살을 통해 부모의 죄업을 씻고 어린 영혼들을 정토에서 태어나게 하는 자비의 가르침을 담은 〈정토문고〉시리즈 첫번째인 〈장수멸죄경〉을 펴낸 바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2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3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6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7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제 열	대원정사
8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대교재편찬회	반출판사
9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10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구입문의:(02)737-0695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최봉수


◇김영덕


◇김사업


◇권오민

"역경작업 원시불교 자료확보 필요"
"진언 의역보다 소리나는대로 표기"

조계종교육원 불학硏 '역경편찬 세미나'

경전 번역상에 나타나는 문제와 발전과제에 관한 역경세미나가 종단차원으로는 처음 열린 가운데 역경사업 전개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스님)가 2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역경연찬세미나'에서는 팔리어본 원시 경전과 한역 밀교 경궤(經軌) 번역상의 문제, 대승불교원전 번역상의 문제연구 등 그동안 역경과정에서 나타난 문체론과 어휘론상의 문제에 대한 연구발표와 함께 밀교경궤에 나타난 '진언'의 번역에 대한 문제가 발표됐다. 또 비관 교정본 제작과 주석문헌에 바탕한 번역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향후 역경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팔리어본 원시 경전의 번역상의 문제'를 발표한 최봉수씨(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팔리어본 원시경전 번역상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보다 충실한 팔리어본 경전의 해석을 위해서는 필연적 관계를 맺는 다른 원시불교 자료들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팔리어본 번역에 있어 선행돼야할 문제로 제시한 것은 번역의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 첫째, 팔리어본 경전이 부파불교 시대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착되며 남방 상좌부에서 전승된 것인 만큼 다른 부파 경전들을 살펴야 할 것과 둘째, 팔리어본이 아닌 다른 원시 경전의 분포상황 셋째, 다른 언어로 된 부파불교의 자료 연구 등이 선행돼야 팔리어본 번역의 대상이 정확히 규정된다는 것이다. 최씨는 "현재 우리나라는 범본 아함경 단편의 경우 완벽히 입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자료의 충실한 수집부터 전제되어야 번역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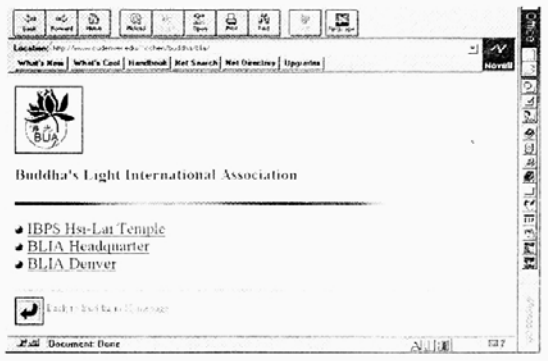
'한역 밀교경궤 번역상의 문제 연구'에서 김영덕 교수(위덕대)는 "인도에서 건너온 진언(眞言 · 다라니)이 중국에서 한역될 당시 번역자의 주관외에는 일정한 규칙이 적용된 바가 없다"며 "진언의 경우 의역보다는 그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일반적으로 염송되는 진언 '옴마니 반메훔'이 범어표기에서는 '옴마니 파드메 훔', 티베트어로는 '옴 마니뻬메 훔'이라고 발음되는 등 각 나라마다 특색있게 발음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진언을 송(誦)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틀린 것과 진언의 목적인 실지성취(悉地成就)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사업씨(동국대)는 '대승불교원전 번역상의 문제연구'에서 중국 역경사에서의 보여지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완벽한 비관 교정본 만들기 △주석문헌에 바탕한 철저한 번역 △공동작업에 의한 번역 등을 제안했다.

김씨는 "범어원전 사본과 티벳트어 원전, 한역 원전과의 상호 대조는 산실된 범어 원전의 복원과 철저한 번역을 위해 불가결하다"며 "상호대조를 통한 비관 교정본과 주석 문헌에 바탕한 전문적이고 통일성있는 공동번역작업은 앞으로 역경사업에 있어 가장 선행되야 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역 장경의 구역과 신역 용어의 비교'에서 권오민 교수(경상대)는 구역 〈팔건도론(八犍度論)〉과 신역 〈발지론(發智論)〉의 역어를 중심으로 번역상에 나타난 구역과 신역의 용어를 비교했다.

김정은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美활동 중국불교사이트

미국불교회 한문장경 연구 학술기구 운영
국제불광회 대만 성운스님 설립 신행단체

미국불교회(The Buddhist Association)와 국제불광회(Buddha's Light International Association)는 미국에서 중국불교의 교세를 엿볼 수 있는 사이트.

△'미국불교회'(http://dual/iems/nwu.edu/~cwshen/buda-ebs.html)는 중국불교학에 관심을 가졌던 중국계 미국인의 모임인 '리하이 불교클럽(Lehigh Valley Buddhism Club)'에 기원을 두고 1987년에 설립된 펜실베니아 지역의 중국불교계 학술 · 신행 단체.

불교회는 펜실베니아의 장엄사에서 회의, 포럼, 법회 등을 개최하고 뉴스레터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장엄사는 대불전, 관음전, 인광루, 천련재, 태허재, 도서관, 식당 등의 건축물과 칠보호(七寶湖) 등을 갖춘 대규모 사원.

또 불교회 회원들은 중국의 한문장경을 연구하기 위해 불교전뇌자신고공덕회(佛教電腦資訊庫功德會 · The Electronic Buddhadharma Society)라는 학술기구도 설립, 지원하고 있다. 이 공덕회는 대반야경, 불학 사전등의 불교 자료들을 입력하여 CD-ROM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상세한 보고서를 한문(BIG-5)으로 읽을 수 있으며 입력한 자료들을 일부 샘플(영 · 한)로 제공한다.

△'국제불광회'(http://www.clcr.com/hsilai/blia.html)는 대만 불광산의 성운스님이 설립한 국제적인 신행단체.

불광회는 서래사(Hsi Lai Temple)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15에이커에 달하는 서구에서 가장 큰 사찰, 국제불광회는 중국문화와 불교를 전한다는 목적으로 1978년에 준비를 시작, 1988년에 완공하였다. 국제 불교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사찰 양식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태국, 이태리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 관광사찰로도 유명하다.

봉축 학술회 · 세미나 '풍성'

주 최	주 제	일시 · 장소
한국미술사학회	'수륙재 불화' 등	3/28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문화연구원	고하려시대의 불교의 진로	4/23 · 동국대
보조사상연구원	불교와 인터넷	4/25 · 불일문화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양철학과 불교사상의 만남	4/25 · 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고려대장경연구소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5/9 · 미정
한국종교학회	종교문화속에서 의례가 차지하는 의의	5/9 · 서울대
교수불자연합회	국난극복을 위한 불교의 자비실천 방안(창립 10주년 기념)	5/16 · 조계사
염불만일회	정토사상의 현대적 의미	5~8월 · 전국순회
한국불교학회	섭령상승(攝嶺相承)의 대승요체	5월 중순 · 동국대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과 종교	6/11~12 · 프레스센터
한국종교교육학회	근대종교의 개혁사상	6월 예정

IMF 영향으로 불교 학술단체들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봉축관련 학술연구 발표회와 세미나가 유난히 풍성하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조희영)는 5월 16일 봉축세미나로 '국난극복을 위한 불교의 자비실천 방향'을 주제로 잡아 눈길을 끈다. 조희영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응용,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며 "어려운 속에서 맞는 '자비'의 참의미와 불자들의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은 사회 인적구성원의 학력이 점차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불교의 위상을 점검해 본다는 취지로 '고학력 시대의 불교의 진로'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은 '불교와 인터넷'을 주제로,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는 우리나라 4대 종교문화에서 의례가 차지하는 의의를 연구발표하고,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공(空)과 연기(緣起)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5회에 걸친 학술세미나를 계획하는 등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다채로운 학술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美종교학회에 '원효학 패널' 설치

국제원효학회, 11월 정기발표회서 '원효사상' 소개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는 최근 미국종교학회(AAR)로부터 원효학 연구분과 설치요청이 수락됨에 따라 미국종교학회 정기발표회에서 원효스님의 사상에 대한 연구발표를 하게됐다.

미국종교학회 정기발표회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제원효학회 간사 김용표 교수(동국대)는 "미국종교학회 한국종교분과에 요청한 원효학 연구패널 설치가 최근 받아들여졌다"고 밝히며 "원효스님의 사상을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으로써 세계 종교석학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원효학회는 4월초까지 패널발표신청을 접수받고 '원효전서' 영역자를 중심으로 원효스님의 텍스트 발표자 5명과 철학 · 역사적 연구발표자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한국본부 참석자로는 송석구 동국대 총장이 '원효사상의 종교적 의미'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김용표 교수가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의 반야경 해석학' 패널발표를 한다.

이밖에 정기발표회 기간 중인 11월22일에는 '국제 원효의 밤' 행사도 개최, 시인 고은씨의 시낭송과 함께 원효스님의 생애와 사상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

"이종욱스님 친일승 아니다"

조계종 불학硏 조사
"친일 혐의는 오류"

'친일승려'와 '독립유공자'라는 양극단의 평가 속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종욱 스님(1884~1969)에 대해 "이종욱 스님을 친일 혐의자로 보는 것은 당시 불교계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라는 종합 조사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연구 보고서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지난해 8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이종욱 스님과 관련하여 '사후 공적흡결 혐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실시한 조사연구 자료.

불학연구소는 이종욱스님의 1930년도에서 1945년 8월까지의 행적을 중심으로, △항일구국운동 행적 △월정사 주지취임 등 종무활동 △중앙종무 활동 △일제협력 활동으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조사연구를 진행한 심원스님(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은 "이종욱 스님의 친일 행적 오해는 주로 1930년대 이후 종단 중앙활동이 대상되고 있으나, 이것은 조선불교의 전통 수호와 총본산 건설, 즉 종단재건의 대서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직책상 종무 수행 중에 불가피하게 친일 협의를 받고 있으나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친일활동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1930년대 이후의 항일운동에 대해 "문헌적 근거는 없으나 많은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 18일 '독립유공자 지암(智庵) 이종욱스님 조사연구 발표회'를 가졌다.

티벳독립에 中 우호태도 요청

달라이라마, 8일 티벳항쟁 기념행사서

티벳 법왕 달라이 라마는 8일 '티벳항쟁 39주년'을 맞아 인도 다람살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 중국이 티벳독립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1959년 3월8일은 중국의 무력 강점 이래 티벳인들이 자치권을 되찾기 위해 최초로 봉기했던 기념일.

기념행사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벳인들은 부처님의 중도(中道)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며 "히말라야를 기점으로한 티벳인의 자치가 선행되고 결국 독립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정부와의 대화를 제안했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 살고 있는 티벳의 망명인사들이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달라이 라마의 제안을 지지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17일 "달라이 라마는 그동안 중국보다는 서방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티벳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며 "중국은 티벳의 독창적인 문화와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티벳탄압'이란 있을 수 없다"며 달라이 라마의 제안을 거절했다.

150,000字의 名蹟을 集大成한 完璧한 大字典

국내 최고의 서예대가 여초 김응현 선생의 체본을 수록한 서예법첩

주문및문의처:이화문화출판사 출판영업부
T.02)730-6685~6 F.02)735-9366

書道大字典

文字學 · 篆刻 · 史學 · 建築學 · 畵學의 必須 字典

書藝의 敎本



4×6배판/2890쪽/최고급양장/상 · 하권 값 100,000원

正統 書藝의 硏究에!!
格調 높은 글을 쓰는데!
集字를 하는데 필수 字典!

東方書範 (1집) 1~10



구입및문의처
이화문화출판사
출판영업부
T.02)730-6685~6
F.02)735-9366

여초김응현 편저/
국배판/
제1집 전10권/
값250,000원

國內 最高의 書藝大家 如初 金膺顯 선생의 체본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제1집(1권~10권의 내용)

第一卷 正音(國文)(板本體 · 宮體)
第二卷 石刻文 · 泰山刻石 · 琅琊臺刻石
第三卷 禮器碑(예기비)
第四卷 張遷碑 · 乙瑛碑(장천비 · 을영비)
第五卷 張猛龍碑(장맹룡비)
第六卷 右軍集字聖敎書(上)(우군집자성교서(上))
第七卷 右軍集字聖敎書(下)(우군집자성교서(하))
第八卷 鄭季宣 · 興福寺斷碑(난정서 · 흥복사단비)
第九卷 書 譜(上)(서보(상))
第十卷 書 譜(下)(서보(하))

東方書範 (2집) 11~20



특별보너스
上記 책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漢韓大辭典(₩120,000)을 증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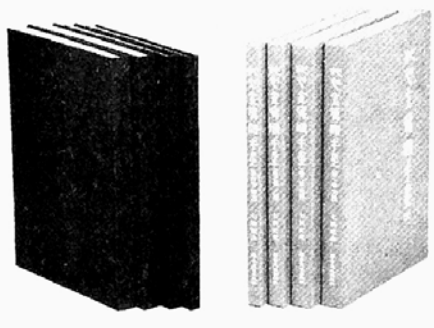
여초김응현 편저/
국배판/
제2집 전10권/
값250,000원

1集에 이은 最高의 書藝 敎本
광개토대왕비를 비롯한 각종 비문 收錄!!

제2집(11권~20권의 내용)

第十一卷 敢氏盤 · 毛公鼎(산씨반 · 모공정)
第十二卷 石門頌 · 孟孫陵碑(산문송 · 맹선묘비)
第十三卷 廣開土大王碑(광개토대왕)
第十四卷 爨寶子碑 · 爨龍顔碑(찬보자비 · 찬용안비)
第十五卷 鄭文公碑(정문공비)
第十六卷 曹全碑 · 石門銘 · 鳥巢銘(조전비 · 석문명 · 오천명)
第十七卷 枯樹賦 · 祭姪文稿 · 祭伯文稿
第十八卷 爭座位稿(쟁좌위고)
第十九卷 急就章(上)(급취장(상))
第二〇卷 急就章(下)(급취장(하))

如初金膺顯手墨



如初金膺顯 著/8절판/150벨벳트지/올칼라/최고급양장케이스/각권300쪽내외/정가 400,000원

詩 · 書에 묻혀 살아오신 如初先生님의 七十餘 星霜이 이 書集에 담겨있다.

완벽한 作品解說! 올컬러로 印刷하여 作品의 생생함을 한층 높였고 大規模 作品만도 數十點에 달해 과히 國內最高의 超大型 作品集이다.

주요내용

1卷 天 篇 61년 국전출품작부터 난대은으로 나일
2卷 地 篇 96년작품까지 모두 나열하였음
3卷 人 篇 도지기, 비문, 탄관, 주련, 인보 등
4卷 釋文篇 모든작품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음.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45

용담의 촛불 ①

*덕산이 용담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마주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다. 용담이 "밤도 깊었는데 이제 가 봐야지" 했다. 덕산이 인사를 하고 주렴을 걷었는데 밖이 칠흑같았다. 고개를 돌려 "깜깜한데요" 하자, 용담이 지촉(紙燭)에 불을 붙여 건넸다. 덕산이 받으려 하자 용담이 훅 불어 불을 꺼버렸다. 이에 덕산이 홀연 깨달았다. 고마움에 깊이 절하자 용담은 "무슨 소식을 얻었더냐"고 물었다. 덕산은 "이후로는 천하 노화상(老和尙)들의 말씀을 의심치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음날 용담이 법상에 올라, "여기 한 사내가 있다. 이빨은 칼을 삐죽 심어놓은 것같고, 입은 피를 가득 물었는데, 웬만한 몽둥이에는 끄떡도 않을 것이다. 그가 이 다음에 우뚝한 산꼭대기에서 나의 도를 세울 것이다." 덕산은 이에 그동안 연구한 경전주석을 법당 앞에 쌓아놓고 불을 붙였다. 그는 불붙은 더미를 하나 들고, "심오한 진리를 모두 논변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태허에 던져진 터럭 하나요, 세상의 이치와 기미에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깊은 골짜기에 던져진 한 방울 물일뿐"이라고 외쳤다.

*나 혜개가 말한다. 집을 떠나기 전 덕산은 분노와 울분에 차 있었다. "내 이제 남방으로 가서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외



그림 · 이준석

外面黑. 潭乃點紙燭度與. 山擬接, 潭便吹滅. 山於此忽然有省, 便作禮. 潭云, 子見箇甚麼道理. 山云, 某甲從今日去, 不疑天下老和尙舌頭也. 至明日, 龍潭陞堂云, 可中有箇漢, 牙如劍樹, 口似血盆, 一棒打不回頭. 他時異日, 向孤峰頂上, 立吾道在. 山遂取疏抄於法堂前, 將一炬火提起云, 窮諸玄辯, 若一毫致於太虛, 竭世樞機, 似一滴投於巨壑. 將疏抄便燒, 於是禮辭.

無門曰, 德山未出關時, 心憤憤口, 得得來南方, 要滅却敎外別傳之旨. 及到澧州路上, 問婆子買點心. 婆云, 大德車子內是甚麼文字. 山云, 金剛經抄抄. 婆云, 只如經中道, 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大德要點那箇心. 德山被者一問, 直得口似掛. 然雖如是, 未肯向婆子句下死却, 遂問婆子, 近處有甚麼宗師. 婆云, 五里外有龍潭和尙. 及到龍潭, 納盡敗闕, 可謂是前言不應後語. 龍潭大似憐兒不覺醜, 見他有些子火種, 郎忙將惡水灌頭一澆澆殺, 冷地看來, 一場好笑.

雪曰, 聞名不如見面, 見面不如聞名. 雖然救得鼻孔, 爭奈瞎却眼睛.

용담숭신(龍潭崇信)은 8세기말 9세기초의 인물이다. 육조혜능의 한 갈래인 청원행사(靑原行思)에서 석두희천(石頭希遷)과 천황도오(天皇道悟)로 이어지는 계보 위에 있다.

진리 통달했어도 太虛의 터럭

"즉각 파지하라 생각에 잠기면 멀어진다"

치는 자들의 망발을 꺾으리라." 예주(澧州)로 가는 길 주막에 들렀다. 점심을 주문하자 노파가 "바랑 속에 든게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덕산은 으쓱하며 말했다. "〈금강경〉의 주석이오." 노파가 물었다. "그 경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지금의 마음도 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점심을 하시렵니까?" 덕산은 이 질문에 말문이 턱 막혔다. 덕산은 그러나 기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노파에게 "근처에 어디 큰 스님이 계십니까?"라고 물으니, "5리 너머에 용담화상이 있지요"라는 대답이었다. 용담에 이르러 덕산은 모든 재산을 털리고 주저앉았다.

용담은 아이를 너무 아낀 나머지 주책을 부린 애비같다. 덕산에게 불씨가 있는 것을 알고 훌쩍 흙탕물을 끼얹어 꺼버렸다. 괜히 벌인 코메디라고나 할까.

*송하여 가로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나, 따론 얼굴보다 목소리만 듣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콧구멍은 얻었을지 모르나, 어쩔꼬, 눈동자는 멀고 말았으니.

久嚮龍潭

龍潭, 因德山請益, 抵夜. 潭云, 夜深子何不下去. 山遂珍重, 揭簾而出, 見外面黑, 却回云, 떡집을 하는 아이였던 그는 매일 천황도오에게 떡을 공양하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떡을 갖다줄 때마다 천황이 그에게 하나를 남겨 도로 주는 것이었다. 기이하게 생각했던 그가 까닭을 물었다. "어허, 이놈, 네가 가져온 것을 네게 돌려주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막연하지만 알지 못할 서늘한 바람줄기가 소년의 마음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출가를 결심한다. 천황이 말했다. "네가 지나온 복선(福善)에다 나를 믿게 되었으니 숭신(崇信)이라 하자." 천황을 모시던 어느날, 용담이 이렇게 물었다. "제가 여기 온 뒤로 아직껏 마음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여기 온 뒤로 나는 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용담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엇을 어떻게요." "잊었느냐. 네가 차를 끓여오면 받아 마셨고, 밥을 갖다 주면 기꺼이 먹었으며, 인사를 할 때마다 나도 고개를 숙였다." 용담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을 굴리자 천황의 호령이 떨어졌다. "즉각 파지해야지 생각에 잠기면 벌써 멀어진다." 이 말에 문득 깨달음이 왔다. "그 비밀을 어떻게 지키리이까." "본래의 성품에 맡겨 노닐고, 인연에 따르되 걸림이 없어야 한다. 일상적 사고습관을 버린 그 자리에 비밀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감정의 파도를 타자"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4

탈정도의 정견은 명상 수행중에 생기는 열망, 분노, 불안, 불신 등의 감정을 바르게 보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 공동체를 찾아온 한 걸인이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열심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곳에 들어왔지만 점차 게으름을 피우고 술과 담배까지도 가까이 했다. 결국 그는 다른 수행자들의 미움을 사게되고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이때 공동체 원장이 그를 다시 공동체에서 살도록 배려했다. 다른 수행자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이유를 묻자 원장은, "그는 제빵과정에서 생기는 곰팡이와 같다. 그는 우리에게 인내와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견 ④

명상중에 열망, 분노, 불안, 불신, 두려움 등의 마음의 모습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몸과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자극을 주는지, 맛은 어떤지를 주의깊게 관해야 한다. 도망치거나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마음으로 챙기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것들의 본성을 보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때까지 보고만 있어야 한다. 그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물론 양떼가 초원을 향하듯이 계속 찾아온다. 초원과 같이 그냥 받아들여라. 숱한 감정들에게 마음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을 버리는 것으로 족하다. 무아(無我)만이 그 감정들에 대한 유일한 저항일 뿐이다.

>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지혜 · 자비와 관계를 맺자"

아인슈타인은 "인간은 시공(時空)으로 한정된 우주의 일부이다. 우리의 경험들은 평온함과는 거리가 먼 어떤 생각과 느낌들로 채워져 있다. 그 생각과 느낌은 의식에만 있는 가시적 환상일 뿐이다. 이 환상은 우리를 가두고 욕망으로 얽어매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우리는 얽매임에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존재하는 까닭과 자체적인 미(美)를 지니고 있는 유 · 무형의 존재물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침묵과 인식이 정제(精製)되고 깊어질 때, 우리는 그것들에게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분별심과 아집을 허물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아잔차스님에게 명상 지도를 처음 받았을 때 일이다. 스님은 "아직까지 탐심을 가지고 있구나"고 말했다. "예" "고통과 분노도 가지고 있느냐?" "예" "여전히 망상도 가졌구나" 그때 나는 무엇인가를 느끼며 "아!"하고 탄성을 토하자, 스님은 "좋아, 계속해"라며 북돋워 주었다.

우리는 명상으로 특별한 마음의 경지를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 마음은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명상은 매순간 변화하는 마음의 한 단면을 깊이 이해하고 명확히 보게 할 뿐이다.

L.A 한 거리의 벽에 붙여져 있던 벽보의 한 문구가 생각난다. 노란색 옷을 입고 긴 턱수염을 기른 구루(guru · 스승)가 한 발을 접은 채로 학처럼 곧게 서있는 삽화가 그려진 벽보에는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파도 타는 것은 배울 수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그 문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의 변화로 가득찬 이 세상에서 정신적인 명상 수행의 중요성을 한 마디로 표현했다.

감각을 돌보고 인식을 닦는 마음챙김의 수행인 명상이 끝없이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를 능숙하게 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다. 이 수행으로 우리는 모든 유 · 무형의 존재물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명상중에 스며드는 숱한 감정들과 당당히 함께 하며 보고 배우는 수행자의 영혼이 바로 전사의 영혼이다. 반면 우리는 대부분 은총이나 저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불평을 트로한다. 우리도 전사의 영혼을 지녀야 한다. 용기로써 응하며 배워야 한다.

배움은 아주 단순한 과정 속에서 얻어진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고, 앉고, 걷고, 수행하고, 관심을 돌리고, 집중하고, 발견하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 또 숨결, 몸, 감정, 마음 등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지혜와 자비, 이해를 가지고 그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생각하면 된다. 때론 어렵게 느끼겠지만 복잡한 것은 아니다.

번역 = 오종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3

불교와 수학

48

미래

김 용 운

불교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출발했다. 세속적인 모든 행복을 누리던 왕자의 몸으로 처음 실존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낀 석가모니의 설화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과정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삶에 스스로의 의지를 개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이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책상 위에는 화장지를 담은 각티슈가 있다. 이 티슈는 하나를 뽑으면 그 다음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상자에서 차례로 나오는 화장지는 마지막까지도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다. 한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는 수많은 조상이 있었고, 그 후에 또한 수많은 후손이 있다. 이들 조상과 자손의 관계는 마치 각티슈처럼 한줄로 엮여져 있다. 그러나 무한히 많은 나의 조상 중 아무도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또 나의 자손 모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를 택하고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하여 인생을 마친다. 인간의 생로병사의 계열과 각티슈의 차이는 각 단계마다에 있는 의지의 유 무에 있다.

지난 호에는 인생을 함수로 비유했었다. 생을 마친 인간은 정해진 시점에 일정한 공간상의 한 점이 대응하는 것이므로 마치 연속적인 곡선처럼 보인다. 인생의 함수가 그리는 그래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의 역정에는 순간마다 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점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순간에서 행한 일은 다음 순간의 점의 범위를 정한다. 일단 정해진 한 순간에 대응하는 자리는 이미 나의 행로에 편입되어 수정할 수가 없다.

유행가의 가사이기는 하지만 '과거를 묻지 마세요'란 말처럼 과거는 현재의 의사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수학에서는 되먹임(feed back)이라고 한다.

역사에는 'if(만일)'라는 말이 없다. '만일 그때 무엇무엇을 했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데…'라는 생각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이미 어느 순간에 정해진 사실이 다음 순간, 또 그 다음, 다음 순간의 선택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조상을 택할 수 없다. 이미 되먹임되어 나의 생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되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미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야기할 수 있다.

복잡성현상 '나비효과'처럼 예측할 수 없어

불 교 인간의 의지가 緣의 흐름 좌우

실제로 수학자는 단순한 3개의 요인, '기압, 풍속, 온도'만으로 정해지는 일기예보에 있어서도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나비효과란 오늘 낮에 서울의 종로거리를 날아다닌 나비의 날개짓이 일으킨 바람으로 인해 며칠 후 뉴욕에 폭풍우가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비가 날고 있다. 그들이 모두가 폭풍우를 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특정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와같이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되먹임되는 일에는 실존의 부조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가령 오늘 해가 7시에 뜨고, 6시에 진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일이기에 결정론적 현상이라고 한다.

한편 나비효과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혼돈, 또는 복잡성의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사에는 일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요인이 있다. 순간순간의 결정이 인생항로에 되먹임 되어가는 인간의 생에는 복잡성으로 가득차 있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틀림없으나 인간 행로는 복잡성에 가득 차 있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 찰나마다 인간 함수상의 한 점이 자리하는 인간에게는 복잡한 연(緣)의 흐름이 있다. 그 흐름 속의 한 점은 온갖 인연의 결과로 정해져 있고, 또 그것에는 순간마다 스스로의 의지가 개입한다. 그렇기에 변화를 거듭하는 무상(無常)에는 본질(我)이 없으나, 그 좁은 틀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무상, 무아의 큰 바다 속에 가냘프기는 하지만 스스로가 택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緣)은 미래를 향한 의지로 정해질 가능성을 지닌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5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서각은 하나의 수행이다. 1각3배의 마음으로 칼끝에 혼을 불어넣는 정성은 구도자의 일념과 같다. 사진은 4월1일부터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서각개인전을 갖는 지상스님 작업 모습.



◇해인사 대적광전 주련. 각자(刻字)형태와 전체적인 조화가 절묘하다.

◇대웅전 현판으로 장결한 서체에 번짐효과를 내 아름다움을 더했다.

나무와 대화하며 書刻 글 새기는 수행

뒤틀림 없는 紅松 주로 선택
거꾸로 세워 수액을 빼낸후
용도따라 재단 書稿 붙인다
나뭇결따라 조심스럽게 刻
글자 끝부분까지 말끔히 한후
마름질하고 색을 입힌다

도장 파듯 기계적 새김이 아닌
혼을 불어넣는 작업
4월5일 불교인서각협회 창립



◇서각에 쓰이는 도구들. 칼과 끌은 서각인들에겐 도구기 아닌 자신의 일부분이다.



◇경판은 글자를 제외한 바탕부분을 파내는 양각의 대표적 형태다.

사찰에 가면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의 현판들이다. 또 관악을 비롯해 일주문 명부전 등의 주련들 역시 서각문화를 대표하는 불교문화로 그 모양과 기법이 아름답고 웅장하다. 서각(書刻)은 글자를 새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혼을 불어넣는 정성과 세심한 안목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서각하는 이들은 이 작업을 '철저한 수행'이라 말한다.

서각은 나무를 고르는데서부터 시작된다. 뒤틀림이 없고 견고한 홍송(紅松)을 주로 선택한다. 작품에 따라서는 돌배나무나 향나무 느티나무 종류가 쓰이기도 한다. 다음엔 나무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나무를 거꾸로 세워 수분을 빼고 비를 맞춰 수액을 빼낸다. 그런다음 괴목을 괴고 나무를 말린다. 이렇게 말린 나무를 용도에 맞게 재단을 하고 그 위에 서고(書稿·각을 하기 위한 글자)를 붙인다. 서고를 붙이는 방법도 글씨와 나무결에 따라 다양하다. 여기까지가 각을 하기 전까지의 준비작업이다.

그러나 이 작업들은 단순한 물리적 형태의 노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무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나무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 서각인들은 나무도 사람과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서로의 마음이 일치할 때까지 수시로 감정을 교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변덕스러워서 뒤틀고 성질을 부린다. 어떤 글을 새길 것인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로의 마음이 일치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각자(刻字)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삼매에 빠져든다. 고도의 정신집중과 인내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자칫 한순간을 놓치면 글자가 날라가 버리기(획이 잘못 파지고 있다는 것을 서각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때문이다.

각을 할 때에는 주로 끌과 칼을 도구로 사용한다. 이때에도 나무와의 대화는 계속된다. 길을 따라가듯 결을 따라 조심스럽게 파내려가면서 칼과 끌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백(글자의 끝부분)처리. 호흡을 고른 후 마지막 혼신을 다해 비백을 다듬는다.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순간. 나무와 글 그리고 조각자가 마침내 하나가 되고 새로운 생명 하나가 태어난다. 심심상인(心心相印), 새생명의 태동과 함께 해탈의 법열이 깃든다. 각자가 끝나면 서고를 떼어내고 마름질을 한 후 색깔을 입힌다. 이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과정이지만 이미 법열을 맛본 구도자에겐 내리막 길을 걷는 듯 홀가분하다.

40여년간 관각에 생애를 쏟아부은 각자장 중요무형문화재 청재 오옥진씨(65)는 서각을 이렇게 얘기한다. "도장을 파듯 기계적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과 글자 하나하나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한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담담하면서도 투명한 마음과, 작업자체를 즐기는 일념으로 혼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각법은 나무의 결과 글자 형태를 고려해 선택하는데 음각(陰刻) 음평각(陰平刻) 음양각(陰陽刻) 양각(陽刻)이 있다. 이중에서도 음각은 모든 각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각법이다.

우리나라 서각의 역사는 대략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다라니경이나 고려때 제작된 팔만대장경판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사찰에서 나온 훌륭한 서각 작품들은 서각이 곧 불교문화임을 말해준다.

불교계에서는 93년 스님들로 구성된 불교서각회가 창립됐으나 그동안의 활동은 미미한 편이었다. 그런데 오는 4월5일 공평아트센터에서 스님과 재가자 30여명이 참여하는 불교인서각협회가 창립, 서각관련 서적발간은 물론 현판 및 주련전을 통해 사찰문화의 변화를 꾀할 전망이다.

글=한명우 사진=고영배 기자

서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

깨달음 얻기 위한 고행의 과정
덕기스님 등 30여명 서각 수행
"한 획 새기기 전 3배하고 작업"



◇덕기스님



◇성밀스님



◇원표스님



◇상묵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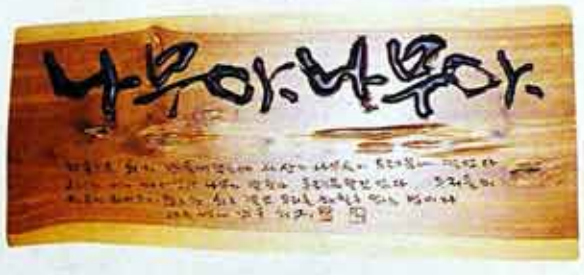
서각과 수행, 그리고 불교. 이들은 개별단어로 표현되지만 실은 하나의 몸체를 갖고 있다. '해탈'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고행'이라는 과정을 사랑한다.

현재 서각을 하는 스님은 대략 3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현판이나 주련을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는 대략 10여명 정도며, 4명의 스님이 서각협회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통서각을 대표하는 한국서각협회에는 협회이사로 있는 성밀스님(성암사 주지)과 불교서각회 덕기스님(경기 사흥 법륭사 주지) 혜현스님(현불사 주지)이, 한국현대서각협회에는 지상스님(법인경관재작연구소장)이 각각 속해있다. 이밖에 원표스님(경남 사천 서봉사)과 상묵스님(부산 봉방사 주지) 등이 지방에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각을 하는 스님들은 '1각3배'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한다고 한다. 옛 스님들은 보통 서예는 물론 주련과 현판을 직접 썼기 때문에 서각에도 능했는데, 한 획을 새기기 전에 3배를 하고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와 같은 정성된 마음으로 서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서각삼매(書刻三昧)'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아침에 작업을 시작해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비로소 자신이 숨쉬고 있음을 느낀다고. 그래서 서각하는 스님들은 정신을 모으는 수행으로 서각을 최고의 방편으로 치기도 한다.

그러나 서각하는 스님들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스님으로는 최초로 지상스님이 4월1일과 13일부터 각 7일간 서울 공평아트센타와 마산 대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서각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전환을 꾀하게 됐다는 것이다.

취재수첩 '경제성 없다' 전문가 감소세…동호인은 늘어



최근 10여년간 서각인구는 상당수 늘어났으며, 1년에 한 번 열리는 회원전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의 서각인은 대략 4백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전업 서각인은 대략 30~40명 정도로, 하나의 예술장르로는 전문가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여기에는 대략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기(技)·공(工)에 대한 천민사상이 꼽힌다. 그런데다 서각을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하지 않고 전통사향문화 정도로 취급하는 풍토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도 전문가 양산을 저해하는 요소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대량생산이 불가능해 생활수단으로 삼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각 동호인이 늘어나는 추세면서도 전문가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물론 일반에게도 아직까지 서각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서각은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공예품으로서의 서각에 미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할 경우 현대 조형예술로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서각 역시 현판 주련 외에 부처님 말씀, 탱화 십육나한 등 소재가 다양하고, 초보자라도 3개월정도 익히면 자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포교의 한 방법으로 개발한다면 발전가능성은 무한할 것으로 보인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지옥품(地獄品) ②

人行爲慢惰 인행위만타
不能除衆勞 불능제중노
梵行有玷缺 범행유점결
終不受大福 종불수대복

사람이 수행을 게을리하면
온갖 괴로움 없앨 수 없다
범행에 흠이나 이지러짐 있으면
끝내는 큰 복 받지 못한다

常行所當行 상행소당행
自持必令强 자지필영강
遠離諸外道 원리제외도
莫習爲塵垢 막습위진구

항시 행해야 할것을 마땅히 행하고
스스로 지켜 더욱 강하게 하며
뭇 외도를 멀리 여의고
때 묻히는 일 익히지 말라

爲所不當爲 위소부당위
然後致懽毒 연후치울독
行善常吉順 행선상길순
所迹無悔恡 소적무회린

如備邊城 여비변성
中外牢固 중외뇌고
自守其心 자수기심
非法不生 비법불생
行缺致憂 행결치우
令墮地獄 영타지옥

변방의 성을 방비하는데
안 팎으로 단단히 지키듯이
스스로 그 마음 굳게 지키면
법답지 않은 일 생기지 않으나
행동이 이지러지면 근심 따르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

可羞不羞 가수불수
非羞反羞 비수반수
生爲邪見 생위사견
死墮地獄 사타지옥

부끄러워 할 일 부끄러워 않고
부끄럽지 않은 일 도리어 부끄러워하면
살아서는 삿된 소견이 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진다

可畏不畏 가외불외
非畏反畏 비외반외
信向邪見 신향사견
死墮地獄 사타지옥

두려워 할 것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일 도리어 두려워하여
삿된 견해 믿고 살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可避不避 가피불피
可就不就 가취불취
馱習邪見 완습사견
死墮地獄 사타지옥

피해야 할 일 피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일 나아가지 않고
삿된 소견 즐겨 익히면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진다

可近則近 가근즉근
可遠則遠 가원즉원
恒守正見 항수정견
死墮善道 사타선도

가까이할 것 가까이 하고
멀리할 것 멀리하면서
항상 바른견해 지켜가면
죽어서 좋은 세상에 나게된다

"해서는 안되는 일 행하면 저지른뒤 가슴 답답하고 괴롭다"

해서는 안되는 일 행하면
저지른뒤 가슴 답답하고 괴롭다
바른일 행하면 항상 좋고 순하여
가는 곳 마다 뉘우침 없으리라

其於衆惡行 기어중악행
欲作若已作 욕작약이작
是苦不可解 시고불가해
罪近難得避 죄근난득피

그 여러가지 나쁜 행에서
하고픈대로 저질렀다면
그 괴로움 풀수가 없고
죄가 다가와도 피하기 어렵다

妄證求敗 망증구패
行已不正 행이부정
怨讐良人 원참양인
以枉治士 이왕치사
罪縛斯人 죄박사인
自投于坑 자투우갱

거짓 증거로 남을 깨뜨리면
그 행은 이미 바르지 못한데다
선량한 이 원망하고 모함하여
억울한 죄로 다스리는 것
그 죄는 그 사람을 묶어서
스스로를 지옥구덩이에 던지는 것이다

非畏反畏 비외반외
信向邪見 신향사견
死墮地獄 사타지옥

두려워 할 것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일 도리어 두려워하여
삿된 견해 믿고 살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可避不避 가피불피
可就不就 가취불취
馱習邪見 완습사견
死墮地獄 사타지옥

피해야 할 일 피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일 나아가지 않고
삿된 소견 즐겨 익히면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진다

可近則近 가근즉근
可遠則遠 가원즉원
恒守正見 항수정견
死墮善道 사타선도

가까이할 것 가까이 하고
멀리할 것 멀리하면서
항상 바른견해 지켜가면
죽어서 좋은 세상에 나게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교만 버리고 하심하면

설산스님 〈정토사 주지〉



약력
- 1919년 경북 문경 生
- 1934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스님을 은사로, 계허스님을 계사로 득도
- 1941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선사를 모시고 10안거 성만
- 1943년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 졸업
- 조계종 제8대 종회의원 역임, 도선사 실달승가학원 초대원장 역임
- 現 배달문화선양회 총재, 설산장학회 회장, 삼각산 정토사에 주석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기준을 놓고 돌이켜보면 누구에게나 행복했다는 이야기보다 불행했다는 이야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 자체가 고(苦)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복은 불행한 가운데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과 불행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현상계의 모든 것을 다 무상(無常)하다고 말하지요. 이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허무하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현상계가 무상함을 바로 직시하고, 있고 없는 현상을 초월하면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60년도 훨씬 전에 출가해 나름대로 정진해 왔지만 희수(喜壽)가 지난 지금에야 그 뜻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15살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출가하게 된 것은 의병이셨던 할아버지와 독립운동을 하시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고향은 원래 경북 문경이지만 할아버지가 강원도 고성에서 일본수비대와의 전투 끝에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건봉사에 은신하시던 중에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나를 건봉사 사하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때가 9살이였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건봉사에서 세운 봉명(鳳鳴)학교로 공부를 하러 다녔지요. 아버지께서는 만주에서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내가 13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대신 나를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준 분이 이교재 선생이십니다. 건봉사에 봉명학교를 세우신 분으로 대단한 혁명가였어요. 아버님과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만나 형제의 의를 맺고, 건봉사에 오시게 된 것도 나를 부탁한다는 아버님의 권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이교재 선생은 건봉사로 오셔서 곧 스님이 되셨는데 법명이 '금암(錦巖)'입니다. 금암스님은 나의 은사이신 의산(毅山)스님의 수계스님이 되기도 하니,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분의 손상조가 된 것이지요.

만해스님이 백담사에서 출가를 하시고 말사인 건봉사로 와 계셨는데 금암스님과는 혁명가로서 매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두 분 곁에서 심부름을 하다보면 나누시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데, 언제나 '독립을 위해서는 후학들을 길러야 한다,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였지요. 두 분 모두 내게 직접적으로 '공부해라'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무언의 화두를 던져 주신 거지요. 만해스님은 왜소한 체구였지만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건봉사에서 만해스님의 강연회가 열렸는데 만해스님의 사자후는 천지를 뒤흔들 듯 힘이 실려 있었지요.

"대해탈은 꽁꽁 묶인 속박에서 얻는 것입니다. 잃은 것은 잃은 데서 찾을 수 있기에 잃어버렸다고 믿으면 꼭 찾아집니다. 속박과 해탈은 둘이 아닌 '박탈무이(縛脫無二)'지요. 묶는 것은 풀기 위해 묶는 것입니다. 해탈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해탈을 하기 위해 속박되었습니다. 백팔번뇌는 속박을 가져오지만 반대로 속박없이는 대해탈도 얻지 못합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했던 시절이었는데, 불교사상에 비유하여 독립의 희망을 설하시는 만해스님의 모습이 어찌나 존경스럽던지 스님의 말씀을 놓칠세라 내용을 적어가며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8살까지 건봉사에 머물다가 19살되던 해 봄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에 개설된 강원도 삼본산(三本山) 승려수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당시 조실스님인 방한암(方漢岩)선사는 대선지식으로 명성을 날리시던 분이였지요. 상원사의 대중은 수련생 15명을 합쳐 80명이 운집해 있는 선방이었는데 결성오도하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원력이 아니고는 참방할 수 없는 곳이였어요. 아침공양을 마치고 나면 〈금강경〉 강론시간이 되는데 조실스님의 지시에 따라 경의 한 대목을 읽고, 곧이어 조실스님이 해석을 하시고 구절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당일 배운 것을 정신차리고 듣지않고 한눈팔다가 외우지 못하면 수련생들은 꼼짝없이 입승을 보시는 탄옹(炭翁)스님께 종아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조실스님이나 탄옹스님은 밤에 방선 후 새벽 세시까지 장좌불와를 하시는데, 탄옹스님은 앉은 자세로 10분간 누웠다가 그대로 다시 일어나 앉아 계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흉내라도 내보자고 결심을 하고 탄옹스님 뒤에 앉아 3주동안 참선을 했는데 그러다 그만 몸에 열이 오르고 말았지요. 정(靜)에 들 때에는 마음보다는 육신의 항복을 받아야 하는데 화두를 들고 정에 들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항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예요. 내가 열이 오른 것도 그런 까닭이지요.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 채 억지로 졸음을 참고 그랬으니 그럴수 밖에요. 수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방법을 조실스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데 '내가 못하겠는가' 하는 자만으로 그저 흉내만 냈으니 말입니다. 열이 오르고 사흘동안 먹지도 못한 채 혼잣말을 하고, 산으로 개울가로 돌아다니다가 수좌에게 붙들려 한암스님 앞에 끼게 됐습니다.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니 스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주장자로 제 어깨를 내려치시면서 "아프거든 소리를 지르고 안 아프거든 가만 있거라"하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때리는데 안 아플 리가 있습니까. "아야!"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아프냐?" "아픕니다" "이놈아, 그걸 맞고 안 아프다고 할 줄도 모르는 놈이 참선은 무슨 참선을 하겠다고 흉내를 내느냐!"

"속박과 해탈은 둘이 아닙니다 묶는 것은 풀기위해서입니다" 만해스님의 강연 아직도 생생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게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게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큰스님 수행한담

걸림없는 자비심 생겨”

“마음 찾는 것도 어렵지만 깨달은 뒤 保任 더 어려우니 정진 게을리 말라고 일러주신 한암스님의 ‘점수돈오’ 이제 알겠어요”



◇1974년 7월 도선사 실달승가학원 개원식 사진. 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설산스님.

그 순간 정신이 들면서 자성(自性)으로 돌아왔지요. 한암스님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밥을 할 때 오래오래 불을 때고 뜸을 들여야 밥이 되지, 불도 때지 않고 밥을 먹으려 들면 그게 생쌀이지 밥이겠느냐”고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곧 점수돈오(漸修頓悟), 먼저 닦은 후에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때부터 한암스님 말씀을 따르며 주로 〈금강경〉을 공부했습니다.

〈금강경〉 법신비상분(法身非常分)에 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사구게송으로 말씀하시기를 ‘만약 모습으로써 여래(我)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써 여래를 구하면, 이런 사람은 삿된길을 행하는 것이므로 여래를 볼 수 없다(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래는 진리이므로 진리를 눈으로 보거나 귀로써 들으려고 하면 진리를 터득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지닌 이 육신(肉身)의 눈과 귀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속의 여래를 보고 마음속 여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순간 마음은 보는 대상에 가 있고, 귀로 들으려고 하는 순간 마음은 듣는 대상에 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찾고 마음속 여래를 보겠습니까. 한암스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망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마음을 찾기는 쉽다. 그러나 갈고 닦는 것이 으뜸이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는 ‘마음 찾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지금은 갈고 닦는 것(保任)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마음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깨달은 뒤의 보림이 더 어려우니 정진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지금도 혜(慧)를 얻기 위해 참선 수행하는 사람은 많은데 보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혜를 갈고 닦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알 듯합니다.

일의일발(一衣一鉢), 두타수행은 수행자의 본분이라고 가르치신 한암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두타수행을 나섰을 때입니다. 상원사를 출발, 90리 길을 걷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시장기가 느껴졌습니다. 인가가 보여 밥을 얻기 위해 달려갔으나 물동이를 이고 사립문을 나오는 아낙네를 보자 “밥 좀 주시오” 소리가 나오려다 말더군요. 한참을 더 가다가 외딴집의 토방을 얻어 잠을 청하고, 허기에 굶주리면서도 승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개울물을 몇 모금 마시고 양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속초 입구 초가집에서 밥을 빌어볼까 생각했으나 또 거절당할 것 같아 냉수 한그릇만 얻어 마셨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걷다보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걷지도 앉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제서야 체면도 위엄도 버릴 수 있겠더군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 염치불구하고는 “밥 좀 주시오”하고, 비로소 밥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아니고, 스님인데… 어서 들어오시오” 하는데,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교만을 버리고 하심(下心)을 하니 아무런 걸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자비스러워지니 상대방도 자비심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4년간 한암스님을 모시고 해제 때는 월정사(月精寺) 강원에서 경전공부를 하며 10하안거를 성만했습니다. 해제 전날, 한암스님께서 해오(解悟)한 바를 알아보자고 하시며 운자로 신 혜(蹊), 갈 거(去)자를 내놓으셨습니다. 수좌들이 지은 글을 한암스님이 보고, 입승 탄옹스님께로 넘기는데, 한암스님이 넘겨준 글을 보신 탄옹스님께서는 간혹 “그렇다, 선재야”라고만 말씀을 하셨지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空幻本無處 靑踏不蹊

超脫生死苦 洞徹三際去

공(空)과 환(幻)이 본래 없음이여

푸른 뭣뿌리를 지나매 신발이 쓸모없네

삶과 죽음을 훨훨 털어버리니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한갖 거추장스러워

한암스님께서 몇 번을 소리내어 읽으시더니, “그래, 좋다. 용수좌는 통철삼제 거 했구나.” 이어 시를 보신 탄옹스님께서는 “대답은 해서 두엇하느냐? 물러가라”하시더군요. 청량산 선원에서의 4년 수행이 끝나는 찰나였습니다.

그후 해방과 6·25전쟁, 4·19의거, 5·16 군사쿠데타까지 역사의 격동기를 고스란히 살아오면서 가슴에 품고 간직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님의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으라는 가르치심과 아버지와 이교재 선생의 구국항쟁 정신, 그리고 만해스님과 한암스님의 정신을 따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룩해야 할 것이 많은 우리 현실을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초지일관 기개가 혁혁하셨던 그분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지요.

한암스님의 절약정신을 일러드리지요. 내가 반찬을 책임지는 소임인 별좌를 맡고 있을 때입니다. 스님은 방에서 직접 들기름을 짜 일주일 쓸 양으로 조그마한 병에다 3분의 2씩을 내게 주셨는데, 80여 명의 대중공양과 거의 매일있는 제사·기도 음식을 마련하다보면 늘 모자랐지요. 빈병을 들고 스님께 가서 모자란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들기름을 더 주십니다. “왜 아껴쓰지 않고 더 받으러 오냐”고 꾸중이라도 하실 것 같은데 그저 묵묵히 빈병에 기름을 채워 주셨지요. 거기에 스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자꾸 거듭될수록 정해진 양의 기름만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군요.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절약해, 주신 양만 쓰게 됐으니, 한암스님께서는 말없는 가운데 절약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즘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풍족하고 여유가 넘치는 생활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속에서 충분히 넉넉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괴로울수록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세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슬픔도 기쁨도, 그리고 달고 쓴 모든 것이 글자그대로 다 비어(空)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부처님께 의지하고 마음을 찾아 닦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항상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부르면 부처님은 언제나 곁에 계십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대로 복을 짓는 겁니다. 그 복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극락 정토세계가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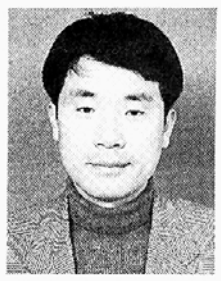
정리=김정은 기자

“귀와 눈 아닌 마음으로 여래 듣고 보아야”

“집착하면 불행하고 허무 바로 보면 행복”

나와 경전 46

점찰선악업보경



조 용 헌
원광대 강사

이 경전은 전생의 업보를 알아보는 경이다. 전생에 악업을 많이 행했는가, 아니면 선업을 많이 행했는가를 살피는 경전이다. 쉽게 말하면 전생성적표를 열람하는 경이다. 금생은 전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중학교때 반에서 꼴찌를 했다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역시 성적이 좋기는 어렵다. 전생에 다른 사람 가슴아픈 일을 많이 저질러 놓고 금생에 좋은 꼴을 보면서 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망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인생살이가 어찌 욕심대로 되겠는가. 그러나 중학교때 꼴등 했다고 해서 고등학교때도 역시 꼴등한다는 법은 없다. 밤잠 안자고 죽어라고 공부하면 60등인 사람이 40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문제는 죽어라고 공부해야 한다는데 있다. 죽어라고 노력하지 않으면 역시 전생 습관대로 살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꼴등하기 쉽다. 전생성적표를 바꾸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점찰선악업보경〉에서는 참회하라고 가르친다. 참회야 말로 전생 성적표를 바꿀수 있는 지름길임을 중생들에게 제시한다. 참회는 가슴으로 아는 길이다. 머리로만 알면 바뀌지지 않는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지 진정한 앎의 차원은 아니다. 지식만으로는 인간을 변화시키기 힘들다. 머리에 들어온 지식을 충전하여 다시 한번 로켓을 아래로 발사하여 가슴에 꽂혔을 때 눈물이 나온다. 눈물을 흘려야만 참다운 앎이다. 눈물을 동반하는 참다운 앎이야말로 전생성적표에서 인간을 해방시킨다. 이는 참회에서 나온다. 참회없이 백날 선방에 앉아 보아야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다.

내가 직접 해보니 그렇다. 머리보다는 가슴을 때려야 한다. 가슴을 치는 수행법이 참회법이고, 이 참회법에 바탕한 불교신앙이 미륵신앙이다. 진표율사 이래로 한국의 미륵신앙에서는 참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때 참회와 함께 단골로 등장하는 경전이 바로 〈점찰선악업보경〉이다. 기록에 의하면 진표율사는 〈점찰선악업보경〉에 의거하여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였다고 한다.

이 경전의 특징은 전생의 업보를 알려 준다는 데에 있다. 불교신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전생이 무엇이었을까 한번쯤 궁금해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승들의 답변은 ‘금생에 하는 행동거지를 보면 너의 전생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치로야 백번 닦는 말이다. 그렇지만 하근기 중생들의 처지에서 보면 너무나 추상적인 대답이 아닐수 없다. 하근기 중생은 좀더 직설적이고 화끈한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야 신심이 생긴다. ‘너는 전생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가난한 사람의 돈을 많이 횡령하였다. 그러니 매일 불전에서 천배씩 백일동안을 참회하고, 양로원에 가서 의지할 데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옷을 일년간 빨래하라’ 등의 직접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인간은 자신의 전생 업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때, 구체적으로 참회할 마음을 내는 것 같다. 추상적으로 파악하면 아무래도 그 후속타는 추상적이기 쉽다. 구체적이어야 참회한다. 이러한 구체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점찰선악업보경〉이 지닌 장점이라 하겠다.

경전의 앞머리에 점찰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전생업보를 아는 수단은 목륜(木輪)을 던져 점을 치는 방법이다. 〈점찰선악업보경〉에서 말하는 목륜의 모습은 이렇다. 나무를 깎아서 같은 둥굴고 속의 구멍은 네모나게 뚫은 것이다. 엽전의 형태를 연상하면 쉽다. 목륜에는 10륜, 3륜, 6륜의 3종류가 있다. 과거세에 지은 선악업 종류의 차별을 점치는 데에는 10륜을 사용하고, 과거세 업의 강약대소를 점치는 데에는 신, 구, 의 삼업을 각각 씨넣은 3륜을 사용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받는 과보의 차별을 점치는 데에는 6륜을 사용하여 여기에 1에서 18까지 수를 써서 각각 이것을 던지게 하여 선악고락을 판단하였다.

참회야말로 전생업보 바꾸는 첩경

하근기중생에 구체적 참회법 제시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녹수청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청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

"불교 초전지 가꾸어라" 유훈 듣는듯

불교문화 체험기행 3월

용성스님 발자취를 찾아서

백용성스님 누구인가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선각자이며 최초의 서양식 찬불가를 작곡해 보급시킨 작곡가, 불경번역과 30여권의 불교서적을 저술한 불교 이론가이기도 했던 백용성선사(1864~1940).

7세부터 한학을 익히기 시작한 스님은 꿈에 부처님을 뵌 것이 인연이 돼 16세 때인 1879년, 경남 합천 해인사 극락암으로 출가해 화월화상을 은사로 불법수도의 길에 들어섰다. 화두(話頭) 참구에 정진한 스님은 23세에 깨달음을 얻고 전국에서 재방 납자들과 더불어 안거(安居)와 운수(雲水) 생활을 했다.

1911년, 스님이 47세 되던 해엔 종로 봉익동에 대각사(大覺寺)를 창건해 도심에서 선불교를 선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만

3·1운동 민족대표
찬불가·경전번역 앞장
선농불교·대중불교 제창

해스님을 비롯한 우국지사들과 조국의 새 날을 도모하던 스님은 1919년, 만해스님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해 3·1 독립운동에 동참했다. 이 일로 인해 3년간의 옥고를 치른 용성스님은 출옥후에 경전 번역의 실무 조직체인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조직하고 역경 작업에 힘을 쏟았다. 한편 전통 선 부흥을 위해 망월사에서 시작한 만일참선 결사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그의 사상의 요체인 대각(大覺) 운동 즉 깨달음에 대한 지향이 그 중심을 이뤘다.

1926년, 당시 불교가 승려들의 파계로 인해 사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한 스님은 승려 계율 파괴의 요체인 대처식육(帶妻食肉) 금지를 요청하는 건백서(建白書)를 2회에 걸쳐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대각교를 더욱 확대시켜 '대각교중앙본부'라는 명칭으로 불경번역사업, 일요학교 개설, 불교혁신을 위한 방법 모색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세인의 관심을 끈 것은 선농(禪農)불교의 제창과 실천이었다. 정부는 스님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기려 1962년 건국공로훈장(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용성스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떠난 3월의 불교문화체험기행. 15일 아침 7시, 일기예보는 영하의 날씨와 찬바람을 예고했지만, 순례자들에겐 오히려 신선한 공기였다.

1940년 음력 2월 스무나흗날 아침. 공양상을 물리친 용성스님이 제자 동헌스님(東軒完圭)을 불렀다.

"나 떠난 후에 조선은 반드시 독립할 것인즉 그때 세상사람들에게 이 용성이 당부하는 세간5계를 반드시 지켜주도록 부탁하노라. 첫째, 목숨을 바쳐 나라에 충성하시오. 둘째, 목숨을 바쳐 부모에 효도하시오. 셋째, 목숨을 바쳐 스승을 공경하시오. 넷째, 목숨을 바쳐 친구를 믿고 사귀시오. 다섯째, 목숨을 바쳐 전쟁에는 지혜롭게 이기시오."

용성스님의 유훈을 화두처럼 가슴에 품고 조계사 앞을 출발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조계사에는 용성스님이 스리랑카 다르마파라스님에게서 받은 부처님진신사리 1과를 봉안한 7층석탑이 있다. 다르마파라스님은 스리랑카의 마하보디소사이어티(대각회)를 이끌었던 불교개혁운동가로, 용성스님도 이 스님의 영향을 받았다.

불교문화체험기행의 첫 목적지는 독립기념관이다. 충남 천안시 목천면 흑성산 남쪽 기슭 12만여평의 대지에 자리잡은 독립기념관. 3월의 독립운동가로 지정된 용성스님 특별전이 열리는 곳은 제2전시관인 근대민족운동관. 80여점의 사진과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용성스님의 손때가 묻은 주장자와 요령 금강저 발우 염주가 눈길을 끌었다.

〈대방광불화엄경〉을 한글로 번역한 육필원고, 원고지 칸마다 또박또박 써내려간 글씨는 올곧은 수행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팔양경〉 번역원고의 표지에는 '총무국 도서과 출판허가'란 붉은 색 도장이 찍혀 있다. 투옥과 식민지 백성의 치욕같은 검열을 겪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한글경전



◇용성스님이 스리랑카의 다르마파라스님에게서 받은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봉안한 조계사 7층석탑.



◇아도화상이 창건한 신라 최초의 사찰 도리사. 경내의 부처님 진신사리탑과 적멸보궁.

보급의 염원에 옷깃을 여민다.

사리함과 사리에 이르러서는 법신으로 나투셔 사자후를 하고 계신 용성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목숨을 바쳐 나라에 충성하라고 이른 유훈을 다시 듣는다. '목숨을 바쳐 통일을 이루시오.'

모례원은 아도화상(阿道和尙 또는 我道)이 처음 신라에 불교를 전한 성지이다. 용성스님이 성지로 가꿔 보존하라고 당부한 우리나라 불교 초전지 가운데 한 곳이며, 용성스님이 23세에 초견성하고 오도송을 읊은 곳이다.

"금오산엔 천년의 달이 떠 있고
낙동강엔 파도가 만리나 출렁이는구나
저 고기잡이 배는 어디로 가는가
옛남과 마찬기지로 갈대밭에서 쉬는구나"
金烏千秋月 洛東萬里波
漁舟何處去 依舊宿蘆花

대각사 모례원등 곳곳 기상 서려
유품마다 올곧은 수행자의 표상

경상남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2리 일대. 고구려에서 온 아도화상이 큰 부자이던 모례의 집에 숨어들어 포교활동을 하던 신라불교 초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키 큰 감나무가 유난히 많은 전형적인 농가의 모습이다. 야트막한 야산과 논밭이 펼쳐진 사이에 살림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마을 입구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이끼 낀 돌 하나가 범상치 않은 곳임을 암시해준다.

신라 눌지왕(417~458년) 때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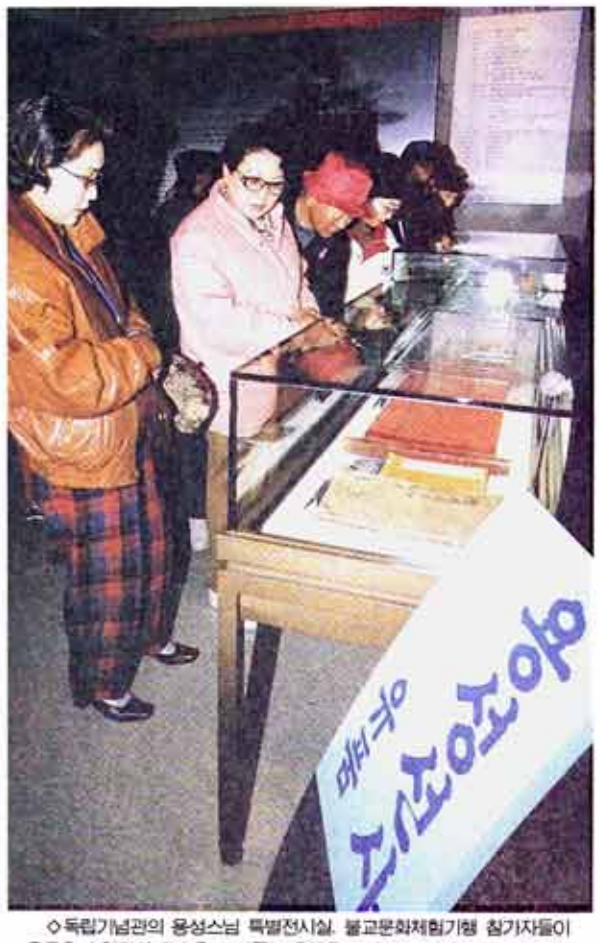
아도화상은 본래 고구려 사람이었는데 7세 때 이곳 모례장자네 집에 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양 천마리와 소 천마리를 길러 모례를 놀라게 하였다. 지금도 이 마을엔 양천골 우천골(우실)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다.

아도는 모례의 시주를 받아 도리사를 이룩하였다. 이 마을에는 당시 모례의 집에 있었던 샘과 마을 어귀의 입석이 현존한다. 모례장자의 샘은 거칠게 다듬은 직사각형의 석재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짜맞춘 특이한 모양이다. 지금도 마을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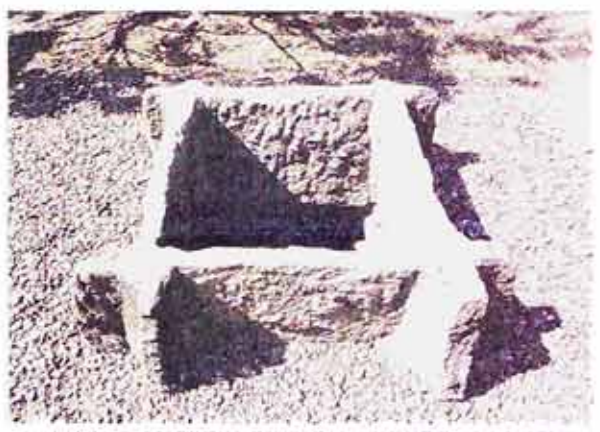
이곳에서 차권으로 15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태조산 도리사는 신라최초의 사찰이다. 도리사에는 아도화상의 자취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아도화상이 참선을 했던 좌선대와 아도화상 사적비가 소나무숲 사이에 그 기상을 그대로 내뿜으며 순례자를 오래도록 붙잡는다. 극락전 세존사리탑 화엄석탑은 도리사에 들러서 꼭 봐야 할 성보문화재이다. 특히 세존사리탑에서는 1977년 금동육각 사리함과 원추형 사리가 발견됐으며, 사리는 적멸보궁에 새로 사리탑을 조성해 봉안하고 있다.

서울 봉익동 대각사는 용성스님이 대각교 사상을 펼친 터전이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아 용성스님의 불교대중화의 뜻을 살필 수 있다. 용성스님의 뜻은 오늘에도 이어져 도문스님을 중심으로 연꽃처럼 피어나고 있다.

글=정성운 사진=고영배 기자



◇독립기념관의 용성스님 특별전시실. 불교문화체험기행 참가자들이 올곧은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품을 관람하고 있다.



◇신라불교 초전유적지인 모례댐. 용성스님이 이곳을 지나다 초견성하고 오도송을 읊었다.

모례원 성역화 어떻게



◇신라불교 초전법륜지 모례원. 담장을 벽화로 장엄했다.

도문스님·유훈실현회 중심 추진
2007년까지 사찰·박물관 등 건립

신라불교 초전지 모례원의 성역화는 용성스님의 "신라불교 초전법륜성지를 잘 가꾸라"는 유훈에 따라 용성스님의 손상좌인 도문스님과 유훈실현후원회(회장 한수승행)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97년 구미시에서 한국교원대학 정영호 박사팀에 의뢰해 '신라불교 초전지역 학술조사'를 실시, 모례정과 모례장자 집터, 입석 등을 발견해 위치를 확인했다.

도문스님은 모례원에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고 주변 일대를 정비·정화하여 역사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도개면 일대 3천7백여평의 대지를 매입해 '신라불교 초전법륜지 도개부곡 아도모례원'을 세우고 불사에 들어갔다. 이미 모례원 담장 벽면을 영산회상도와 아도화상·모례장자도 등 21점의 벽화로 장엄해 이곳이 신라불교 초전성지임을 알리고 있다.

또한 폐교 예정인 이 마을의 송도초등학교와 인근 부지 매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후 2007년까지 성지의 위엄과 신성성을 갖춘 사찰과 전시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세워 교육문화의 도량으로 성역화하며, 각종 시설물은 1천4백여년 전의 신라건물의 원형을 찾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43억원이 들어가는 대작불사이다.

한편 구미시도 모례장자 집터 일대를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봉축 현수막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에 아기 부처님을 칼라로 넣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 공정이 복잡하여 미리 주문을 받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가 격:
6m×90cm=₩35,000
(그외의 현수막은 상담후 결정)

불기 2542년
奉 부처님 오신날 祝
대한불교 ○○종 ○○사
※ 현수막 1장 주문하시면 등꼬리표 100장을 드립니다.

한울기획
◆ 전화:(02)474-2040~1
◆ FAX:(02)477-2316
조흥은행 임 미 순
435-06-085707

자연을 연출하는 —— 우리옷
연/지/곤/지
개량한복을 50% 할인가격(₩80,000)으로 판매합니다.
사업하실 분에게는 위 가격에서 충분한 마진을 드립니다.
★ 단체복(승복,원아복, 사원복, 도복)을 최저가로 주문받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
본점 02)3461-8552~3 과천점 507-7852
평촌점 (0343)88-7852 분당점 (0342)702-7373



IMF를 이기는 불자님의 지혜
- 우리옷을 입읍시다.
(능인선원 간너편)
• 연지곤지는 최고의 품질을 최하가로 보급합니다. •

계·정·혜, 청소년 교화의 기본철학

김증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2〉

청소년의 도덕성 회복과 삼학(三學)

오늘날 청소년의 도덕문제는 심각하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다. 정치·경제·사회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청소년 문제는 더욱 심각성을 띠고 있다.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세계의 앞날이 결코 밝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각국은 청소년 문제 해결에 부심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의 도덕성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

첫째, 음주, 흡연, 환각제 복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비행은 그 자체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디딤돌의 구실을 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여 18세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술, 담배,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 등의 판매를 강력히 금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둘째, 비행과 범죄의 질이 포악화, 잔인화, 집단화, 연소화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지존파', '막가파'의 범죄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성이 있었으며 그것도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초등학교까지 연소화되고 있다.



그림 · 이준석

청소년문제 어디서 오나

① 감각적 문화 발달
② 도시화 · 이기주의
③ 서구문화 무비판 수용
④ 계층간의 위화감

셋째,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는 심각하다.

과거에는 청소년 폭력이라고 하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학교는 청소년들의 보호소이며 안식처였었는데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것도 신체적 장애자, 힘없는 자를 대상으로 집단 폭행한다는 것이다. 97년 7월 2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담뱃갑 번호와 일치하는 번호를 가진 급우를 골라 집단 폭행하는 '물렛게임식' 폭행이 중학교에서 유행하며 그것도 순전히 재미로 폭행을 즐긴다는 것이다. 해괴한 일들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성의식의 변화, 성 개방화,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늘어가고 있다.

여중생이나 여고생 및 10대 여성의 출산이 늘고 있다. 미혼 청소년 중 성경험이 있는 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동성연애자들이 조직체를 만든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였던 일이다. 이와 같은 성 문란에 반발하여 순결서약식이라는 행사도 나타나고 있다. 모대학의 경우 순결서약식 참여자가 총학생의 23.7%에 이르고 있다는 흥미있는 말을 들은 바 있다.

다섯째, 효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님 말씀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모와 갈등이 있는 경우 누가 옳은지에 대하여 잘 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 효는 만행(萬行)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있으며 부모는 점차로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불교에서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서 부모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사회의식이 이기적 경향, 관능적 향락의 경향으로 쏠리고 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한다,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남의 어려움을 돕겠다는 생각보다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나를 위해 살겠다, 정직하면 손해 본다 등과 같은 사회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도덕성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도덕성이 문제된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고도산업화에 따라 물질위주, 황금만능의 사회가 됨으로 인하여 감각적 문화가 형성 되었다. 눈, 귀, 코, 혀, 몸 등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감각적 문화의 발달은 도덕율과 같은 정신세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도시화 경향이 급진전됨에 따라 편협한 이기주의에 사로 잡히게 되고 표피적(表皮的) 접촉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셋째, 서구적 가치의 무비관적, 무분별한 수용이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서구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적 전통에 의하여 서구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동양에는 동양문화가 있는데 서구의 가치관의 무비관적 수용은 동양 문화도 아니고 서양 문화도 아닌 중심성 없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저 편리한 대로 행동하는 '제멋대로'의 가치관의 기형아가 탄생하였다.

넷째, 권력과 재력을 가진 계층의 과욕, 사치, 낭비, 거만 등은 그렇지 못한 계층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청소년 도덕성 회복의 기본철학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청소년 지도의 기본철학 수립이 시급하다. 이 기본철학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는 청소년문제 해결의 기본철학을 삼학(三學)에서 찾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삼학은 불자는 누구나가 지켜야 할 생활의 기본원리이며 계학(戒學), 정학(定學), 혜학(慧學)을 말한다.

계학은 악을 방지하고 선을 닦음을 말하며 정학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정신을 통일하며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함을 말하며 혜학은 고요하게 된 마음에서 나타나는 지혜로써 진리를 찾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삼학(三學)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호관계에 있다. 계를 지켜야만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나타난다. 또한 지혜로워지면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은 항상 불안과 경계와 공포에 사로잡혀 마음이 고요할 수 없다.

삼학 중에서 계학과 정학이 이루어지면 혜학은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계학과 정학은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에도 나타나 있다. 칠불통계게는 과거 일곱 부처님이 모두 말씀하셨다는 게(偈)로써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선한 일은 받들어서 행하여라.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이 가르침의 전반부는 계학에 해당되며 후반부는 정학에 해당된다.

삼학은 육바라밀(六波羅蜜)에도 나타나 있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은 선악(善惡) 즉 계학에 관련되며 선정(禪定)은 정학, 지혜(智慧)는 혜학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불도의 초보 즉 사람 됨됨이 형성의 첫 걸음은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는 도덕성 함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계율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그 계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변의 가치를 지닌 계율이어야 한다. 그 계율은 절대적인 계율이어야 하며 부처님 당시도 지켜야 했고 오늘도 지켜야 하며 내일도 지켜야 할 도덕율이어야 한다.

6바라밀·오계 지킴은 '삼학'의 시발점
"선 닦아 마음 고요히 하면 지혜 생긴다"

그 도덕율이 바로 오계(五戒)이다.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하지 말 것, 훔치지 말 것, 남녀가 불의의 관계를 맺지 말 것, 헛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오늘날 청소년의 도덕성회복강령(道德性回復綱領)은 바로 계(戒), 정(定), 혜(慧)의 삼학(三學)이 되어야 하며 삼학의 실천은 오계를 지킴을 시발점으로 해야 할 것이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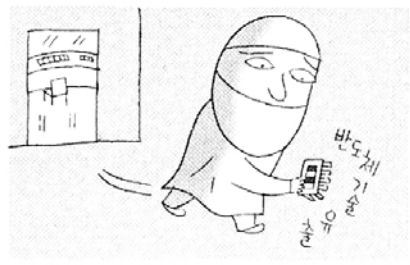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가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것은 가책받을 일이다" 등으로 쓰는 가책(呵責)과 '몹시 꾸짖음'의 뜻인 가책(苛責)이다. 앞의 가책(呵責)은 불교에서 나온 단어로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 대중스님 앞에서 죄를 낱낱이 고하고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이다.

불교의 계율을 집대성한 율장 중에 〈사분율(四分律)〉이 있다. 불교의 계율이 제정되는 데에는 수범수제(隨犯隨制)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율을 정한 것이다. 〈사분율〉은 누가 무엇을 저지름으로써 어떤 계율이 제정되었다는 상황을 수록하고 있어 부처님 당시 제자들의 행적과 사회 형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가책(呵責)

잘못 고하고 응분의 벌 받음
다시 그런 일 없도록 계율제정

〈사분율〉 44권에 '가책건도(呵責揵度)'가 있어서 가책받을 일에 대한 초기 불교의 기준이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라는 비구와 노혜나라는 두 비구가 있었다. 이들은 싸우기를 몹시 좋아했다.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는 곳에 그들이 가기만 하면 이내 싸움판이 벌어진다. 이런 그들의 비행에 분개한 청정비구들이 참다 못해 부처님께 그 사실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에 부처님은 비구대중을 비상소집하고 두 비구를 가책하는 법과 가책받은 비구의 권리 박탈 범위를 조목조목 제시해 주었다.

한 사람의 잘못을 가책하기 위해서 먼저 대중을 소집한다. 이어 잘못한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 알리고 드러난 비행은 본인과 대중들이 기억하도록 한다. 기억이 되었다고 확인되면 죄에 따른 벌을 준다.

요즈음에는 다만 양심의 가책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책은 스스로의 양심에 말기어 해결될 것이 아니다. 직장인의 경우 동료와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응분의 징계조처를 한다. 예나 지금이나 가책의 기본정신은 유지되고 있다.

※ 참고 안길모풍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야간■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유아포교과)	2년	■주간■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통신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본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위탁교육 수료후)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3월25일까지 (일요일도 접수가능)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 1998년 3월 7일 입학식 (동국대문화관)후 정상수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511-2026~8)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강의시간
출강 / 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3月末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한방암정보
02)
700-6366

승가 전통의 손맛…
온돌방 전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 재래콩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 담근 죽염 된장 간장은 영양가와 약성이 풍부한 우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마을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온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斗) 5개 값 39,000원
· 음식조리용 죽염 특별포장 5Kg(1) 값 35,000원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선착순 20명 모집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대보생식
02)
427-9162~3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3-16
011-337-0353
02-809-1831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강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불교의식 학인 모집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함 (초급반 · 중급반 · 고급반)
- 모집대상 : 스님, 법사, 포교사, 일반불자
- 각2개월씩, 매주 토요일 1시
- 각종단 관계없이 많이 참석바랍니다.

대구보광포교원 손 보 광 합장
053)557-1149

氣明緩屮 ↔ 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밝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 잃으신 분들 매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기를 찾아 드립니다
016)340-4459 ●
02)897-7731 ●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릉지사
0391)43-5599

명리학 배우실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진 로 선 택 · 작명 · 기타
기초부터 종강후 자신있는 간명에 이르도록 책임지도합니다.
■ 강의기간 : 3월 3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금요일(주2회)
오후 1 30~4 30(3시간씩)
■ 수강료 : 교재제 포함(월 10만원)
마포구 대흥동 801-57
T. (02)713-4852~3
한국명리연구원

전 워커힐 신라 피아니스트
PIANO 전문 LESSON
⊙ 찬불가
(찬불가곡 · 찬불가요 · 찬불동요)
⊙ Jazz Piano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
초보자 3개월 완성(가요 · 팝송 · 가곡)
강남피아노 교습소
02)554-1512

• 구인구직 •

동양철학 확인모집중
- 현재 수업진행중
-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 3개월 졸업
-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강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개인 운세도 직접 감정중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강동구 길동 458번지 강동시장통
혜능불교대학 內 ☎ 02)482-4550, 488-1569

대리점 모집 및 대출상담
◆ 무자본
◆ 대상 : 만 20세이상 (주부, 정년퇴임, 명예퇴직자 대환영)
◆ 특전 : 교육비 40만원, 초기 1년 활동비 지원, 육아수당
※ 성과급 (30~90만원보장)
◆ 대출상담 환영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삼성생명보험(주)
전화 02)959-8966~7
호출: 015)908-6427 PCS:019)321-5880

英 번역사 급구
英 · 日 서적 번역및 작문에 능통하고, 사회복지와 국제단체 활동에 관심있는 30~40대 독신여성
A)자기소개서(번역경력 · 희망년봉 · 연락전화 · 주소 명기)를 FAX 또는 하기 주소로 우송하면, 면접일시는 개별통지함.
B) 주소 · TO : Dr. CHOI
KPO BOX 1000, SEOUL 110-610
■ FAX : (02)918-0003 ■ TEL : 02)918-0123
〈 전화상담사절〉

종무원 모집
■ 대상 : 남자 ■ 직책 : 사무장
희망하시는 분은 당사에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 의논바람.
대한불교조계종 반야비리일결사 **보현도량**
도솔산 도 안 사
T. 0334)676-8700
F. 0334)676-8704

평생을 모십니다.
절 신축불사(지장 · 명부시왕단)에 동참하실 재정능력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동참하실 분은 평생 절에 모시며 사후의 장의일체 49재 및 제사를 봉행해 드립니다.
02)888-1642
011)686-9925

대 모 집
■ 대 상 : 만 25세 이상 남녀
■ 기 간 : 1998. 2. 27~ 3. 5
■ 대 우 :
15일 교육후 30만원 교육비 지급
6개월까지 30~50만원 보장
일속에서 참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 명퇴자 적극환영 ※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051)818-7601~2

스님 모십니다.
경산 남천면
관 음 정 사
※운전기사로 일하실분 모십니다.
053)252-1772
053)357-7986
011)791-1133

부전 겸 사찰관리를 맡기실 도량은 연락바람.
송 암 스님
032)439-3233
011)764-5046

구인단체명 : **혜명보육원**
■ 설 립 일 : 1946. 1. 26.
■ 직원총수 : 14명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사회복지사(총무)	남1명	사회복지사 1,2,3급중 자격증소지자 운전면허 1,2종 소지자(무교 및 불교)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224-1
■ 전화번호 : 02)802-0358 ,802-5038

• 법회안내 •

● **무료담선법회**
:월~금 오전10~12시까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 금강경
● **심신건강상담소**
-개인상담: 월~금 오후 1~6시
-직장인 · 대학생: 월 · 수 · 금오후 7시~9시
-방문상담 토 · 일요일
강남구 역삼동 제일생명 4거리 부근
02)539-1478
015)8312-5478

불교 조각원
02)
732-7326

• 불교용품 •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영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불교미술 •

탁자,단집,법상,문짝,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응각 목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탄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단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 貴 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 기 타 •

행운결혼상담소
모범허가업소로 **초혼 · 재혼**
만남에서 결혼까지 성혼을
책임지고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02)960-4564~5
02)967-5133
※ 1시까지 Memory(음성녹음)

불자님을 위한 전문 광고회사
광고다운 광고!
"광고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세요"
· 기업홍보 브로셔 제품 카다로그, 리플렛, 상품전단
· C I B I 에너일, 심볼 로고타입 특수인쇄
· 신문광고, 잡지광고, 포스터, 카렌다, P.O.P
광 고 문 의 생생한 광고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컨 설 팅 해결해 드리고, 경쟁사보다 우위에 선 수 있는
가 참 큰 광고회사는 아니지만 근본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광고회사 애드·윌 입니다.
WILL
광고문의 :(02) 512-8868 · 8869 元晴 합장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 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전국무료전화직통 :
080)723-4082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부 지 : 60평
◇ 건 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 4칸, 부엌 · 목욕탕
◇ 가 격 : 1억 3천만원 (절충가능)
02)936-7032
011)419-7032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 4층건물 2층 30평
◇ 방 2, 주방 1, 법당1
◇ 가 격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700만원, 월50만원
※ 가격절충가능
02)438-2973
017)263-6908

사찰겸 농장 운영하실 분
◆위 치 : 김천시 중심지
◆부 지 : 3,000평 이상(등기평수)
◆법 당 : 30평 / 요 사 : 50평
◆농 장 : 감나무 270주 외 대추,은행, 단풍나무 500주 植樹 및 환상적인 주변 조경수
◆가 액 : 2억 7천만원
◆시 설 : 시설일체 무상기증
◆특 징 : 김천역에서 10분 거리에 소재한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수려한 산세와 주위경관으로 유료양로원 허가를 득하였고 기타 종교시설 및 불자 하 · 동안기 체험 휴양소로 적합하고 입주즉시 법회 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는 즉시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물,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소님 외 일반인무속인포설및 대리설립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국불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 : 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상담전화 : 02)512-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 부산시 구서동 성경1차
포교당 45평
◇ 전세 1,500만 · 월세 80만
051)517-2080
박 혜 정

◇ 대구시 서구 내당1동 61-25
◇ 사찰명 : 연화사
◇ 평 수 : 30평
◇ 가 격 : 보증금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53)557-6917
011)578-6678

◆ 명당 사찰 부지
◇ 영월군 주천면 관운리 (대 · 전 6,000평, 준농림)
◇ 동남향으로 땅가운데로 맑은 물 흐르고 주변 모두 국유림으로 완전 무공해 청정지역
◇ 사찰, 농 · 목장, 연수원, 동호인주택 외, 다목적 용도 가능
◆ 주변시세의 1/3價, 평당 1만 5천원
0373)374-0029
판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찰 및 부지
◇ 위 치 : 경남 진주시
◇ 부 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 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법 당 : 평토작업 완료
◇ 기 타 : 약 1,000평 작설차 나무 식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 가 격 : 2칙 5천(절충가능)
◇ 특 징 : 공원에서 제외된 산속요지의 옛사찰터(건축등 허가 됨)
016)589-0560
0591)758-3445

◇ 위 치 : 경남 합천
◇ 대 지 : 300평
◇ 법 당 : 23평
◇ 요사 2동, 방4칸, 지하수, 차고, 시장 주차장 5분거리
◇ 가 격 : 8천만원
0599)34-0076
011)847-0076

◇ 위 치 : 서울 강서구 화곡 8동
◇ 대 지 : 93평
◇ 건 물 : 건물 50평 (구옥)
◇ 가 격 : 평당 240만원
◇ 급매 (교환가능, 분할가능)
0454)43-7681

◇ 위치 : 마산시
◇ 평수 : - 대지 200평
- 전답 430평 - 합 63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 : 20평(방 3칸)
◇ 삼성각 : 5평(완전목조 단층)
◇ 지하수 200M(전기시설 농사용 전기사용)
◆ 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양도금액 : 2억 2천(가격 절충가능)
011)563-0108(주지 직접)
0551)21-5737

◆ **포교당** (위 치 : 능 곡)
◇ 건 평 : 50평(4층 건물중 2층)
◇ 방 2개, 사무실
◇ 보증금 : 3천만원
◇ 월 세 : 50만원(관리비 없음)
◇ 시설비 : 8백만원
※ 특징 1) 법당 원목 사용하여 여법하게 잘 조성되어 있음
2) 대로변과 아파트 밀집역이므로 포교 최적지임
사찰전문용역 **금 강 기 획**
전 화 : 02)736-3578~9
02)359-9492
핸드폰 : 011)789-2255

◇ 위 치 : 서울시내 북한산 국립공원 안
◇ 국유지 : 약 3 천평
◇ 전통 목조 법당등 건물 6동
◇ 계곡, 기암괴석, 울창한 숲속
◇ 서울 강남까지 조망가능
◇ 가 격 : 협 의
02)512-3092

◇ 위 치 : 구로구 6차선 대로변
◇ 건 물 : 4층 약30평
◇ 법 당 : 방2, 주방, 욕실겸 화장실
◇ 가 격 : 보증금 1,500만(시설비 포함) 월 35만원
◆ 특 징 : 입주즉시 포교활동 가능
02)867-3803
015)8457-3803

◆ 도심포교당 하실 분
◇ 위치 :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부근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에 4층, 법당40평 (옥상 사용가)
◇ 가격 : 보증금 2천만.월세 60만원 (시설비 별도)
◆ 사정상 급매합니다.
011)833-1712, 011)301-1711
0525)33-0705

◆ 개인주택 · 포교원 명당자리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111번지 157평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111-16 220평
◇ 가격 : 350만원
◆ 북악파크호텔 정문에서 150m (도보로 1~2분 소요)
02)379-8404
02)379-8425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 3동
◇ 대지 : 시유지 1,200평
법당 13평, 방4칸, 입실부엌, 목욕탕, 거실, 창고2, 화장실1, 대형 주차장 · 우물샘 있음.
◇ 가격 : 8천만원
032)422-5739

사찰 및 불교대학 · 고아원 · 양로원 · 최적지
◇ 위치 : 광명시 고속도로 옆
◇ 부지 : 6,100평(지하1층, 지하 2층)
◇ 내용 : 이 부지는 경인 2고속도로와 안산방향 6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요지의 명당터임
02)502-0338
02)507-0408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과거 집착하면 '業', 뛰어넘으면 '道'



그림 · 최주현

한 발자국 떼면 뒷 발자국 없어지듯 일체만법이 공해서 돌아갑니다 잘못도 붙들지 마시고 놓으세요

"空法에서는 '잘한다' '못한다' 양면 다 떠나야" "진실하면 미생물까지도 한마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마음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장경(藏經)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도 그 장경이 여러분을 깨우쳐주는 건 아닙니다. 그 장경은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밖에는 안되죠. 이미 잘 아시겠지만 누가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거니와 대신 죽어주고 대신 아파주고, 대신 먹어주고 똥눠주고 잠자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우쳐 줄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자신의 주인공뿐이죠. 그걸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에는 다 불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음으로써 육체를 움죽거릴 수 있고, 옳다 그르다 하는 관단을 하고 질서를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계의 나와 물질계의 내가 항상 동등하게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법(法)도 없고 공(空)도 없고 다 없다' 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를 생각하고선 여지없이 그 과거에 집착하고 걱정하고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또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는데 집착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일체만법이 다 그러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여 집착하면 업(業)이 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뛰어넘으면 도(道)가 됩니다. 과거에 살던 집착, 관습, 욕심 등 모든 걸 놓으세요. 과거를 붙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떼놓으면 뒷 발자국이 자꾸 없어진다는 것만 경심하세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만나는 것, 가고 오는 것, 모두가 함이 없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집착을 두지 말고 고난을 고(苦)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지나간 거니까요. 모두가 공해서 돌아가는데 과거의 일을 두고 '어저께는 참 많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붙들지 마시라구요. 잘못한 것도 그 자리에서 한 것이고 잘한 것도 그 자리에서 한 거니까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면 컴퓨터에서 지워지면서 그 마음이 바로 새롭게 입력이 돼요. 그러니 걱정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고등동물이기 때문이죠.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왜냐?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심부름꾼이 뭘 그렇게 생각할 게 있습니까? 한 발짝 떼어놓고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놓고 없어진다는 것만 잘 아신다면 나쁜 것도 법이고 좋은 것도 법이고, 잘못하는 것도 법이고 잘하는 것도 법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면을 다 놓을 수 있다면 바로 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양면을 다 놓을려면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자기가 놔야지 붙들고 있으면 안되죠. 본래 진리라는 것은 놓고 가게 돼 있습니다. 놓고 가는 걸 붙들고 괜히 애를 써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바로 나로 인해서, 각자 나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것은 하고 못되는 거는 하지 말라 이런다면 그건 그냥 법(法)이지마는 공법(空法)에서는 잘한다 못한다는 양면을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일체 만물만생은 모두가 공생이고 또 공심이며 공체며 공용이며 공식이라고 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생명이 사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드려야 그걸 뛰어넘을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발자국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것처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냄새 맡는 것 등 모두가 찰나에 말을 하게 되고 찰나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정된 게 하나나 있습니까? 고정된 게 없으니까 함이 없이 한 거란 말입니다.

산중으로 다닐 때 한번은 목에서 울컥 피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죽는가 보다'고 생각했죠. 사실이지 그때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꼼짝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죽어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뱀 한 마리가 풀섶에서 기어나오더니만 내가 앉아있는 바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무슨 풀잎을 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걸 바위에다 갖다 놓으면서 그 뱀이 전하는 뜻인즉 '당신이 나를 구해준 일이 하도 고마워서 이것을 드리니 짓이겨서 먹고 나으라'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언젠가 뱀이 두둥강 나서 펄떡거리는 걸 보고서 너무나 불쌍해서 땅에다 묻어준 일이 있었어요. 뱀의 그 마음을 알고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를 살리려는 뱀의 뜻이 고마워서라기보다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가진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하디 진한 사랑과 자비, 서로를 살리고 위로하려는 그 지극한 마음, 처절한 마음이 나의 온 몸, 온 마음을 너무나 강력하게 사로 잡았기에 그만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 풀잎을 바위에 짓이겨서 먹고는 각혈이 멎고 다 나았는데 나중에 그 풀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나는 나의 마음과 뱀의 마음이 진정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답니다. 그토록 진한 감동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의 인연이라는 것은요, 말로 인연을 짓는 것과 모습으로 인연을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내 아픔같이 생각한 그 도리가 거기에까지 미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생명이라도 내 생명과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못되고,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둘이 아니다' 하는 뜻도 살아가는 게 고정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다 놓고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믿음이 그대로 도의 공심입니다. 나쁜 것, 좋은 것이 다 한군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군데다가 양면을 다 놓고 가세요. 본래 자기 자신이 바로 자불인데, 자불이 자기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고등동물로서의 쓰고 단 것을 알게끔 격게 만든단 말입니다. 지금 진리는 나쁜 것 좋은 것이 반반 섞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뜨듯이,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듯,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잘 되고 잘못 되고, 길고 짧고, 넓고 좁고, 이런 게 모두가 그냥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에도 겁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한테 물으시고 거기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해나가는 것이 정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나가는 자체가 모두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붙잡으십니까. 흔히 말하기를 '태어나면 고(苦)다'라고 하는데 태어나도 태어난 사이가 없으면 고가 아니죠. 내 주인공은 정신계의 주인공으로서 심부름 하게끔 자기 몸을 자기가 형성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체(空體)란 말입니다. 공체! 내 몸속에도 많은 생명들이 들어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인연을 이어서 현재로 이어진 거예요.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현재로 이어진 거구요. 또 현재에도 모두가 공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고 거기다 놓고 부지런히 심부름만 하면 돼요. 한계가 있는 몸뚱이는 언제든지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기의 자신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보배죠. 본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듯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바람처럼 지나가버리니까요. 나쁘든 좋든 그냥 싹싹 쓸어버려야죠. 본래 진리라는 게 싹싹 쓸고 가는 거예요. 거기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한 자체가 없는 겁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어폐가 있다고 하겠지만 최상승에 이르려면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잘못하고 잘하는 양면을 다 놔라, 본래 이 진리가 양면을 놓고 가는 거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래 양면을 놓고 가고 본래에 고정된 게 없이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니 잠깐잠깐 보는 것도 나툼이요, 듣는 것도 나툼입니다. 좀 마음을 넓혀서 크게 생각하세요. 나도 예전에 산으로 다닐 때는 나무 위에서도 자고 묘지 옆에서도 자고 했지만 겁이 없었어요. 천야만야한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이 몸이 죽고 사는데 연연해서는 공부 못하겠다 싶어 죽고 사는 문제를 아예 다 내팽개쳤죠. 그랬더니 살아집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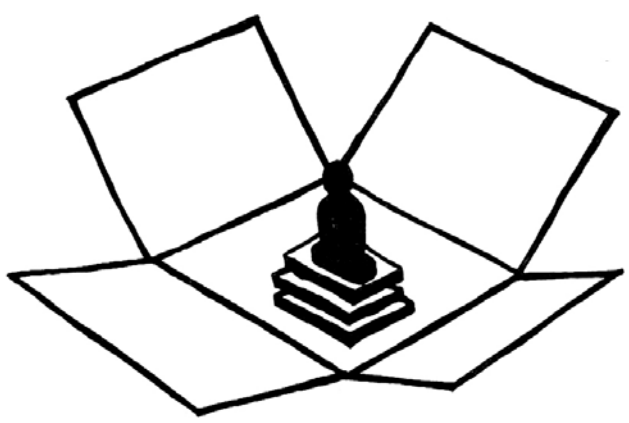
여러분 하나하나도 공생으로 살고 있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62)

훤히 뚫린 제 앞 길을 스스로 가로막으면서



"세상에 그 어떤 감옥보다도 더 무서운 감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의 감옥이다.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사념의 벽이다.

수행이란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그러한 생각의 벽, 사념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본래 벽은 없다. 사방이 탁 터져 있어서 뚫어야 할 벽도, 넘어야 할 벽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제 앞 길을 가로막는 벽이 있다고 믿는다.

스스로 쌓아 올린 벽인줄 모르고 벽이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식은 좋은 방편이 된다.

그리고 많을수록 좋다.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는 것도 그때문이다.

그러나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볼줄 아는 눈이 없다면 그 많은 지식은 오히려 자기를 묶는 족쇄가 된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여덟가지 길중에서 가장 앞서는 것은 '바로 봄(正見)'이다. 바로 볼줄 안다면 지식은 지혜가 된다. 반면 바로 볼줄 모른다면 지식은 사념(邪念)이 된다. 이른바 '아는 게 병'인 것이다.

바깥 경계와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 주워 담는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로 관별해서 주워담고 멀다 가깝다 크다 작다로 분석해서 주워담는다. 그래서 우리들의 머리 속은 언제나 그런 분별로 가득 차 있다. 시쳇말로 머리가 좋다는 사람일수록 분별은 홀러 넘친다.

그것도 모자라서 평생을 기울여 지식을 쌓기도 한다. 수레가 넘치도록, 혹은 쌓아놓은 책이 보꾹에 닿을 만큼 읽고 또 읽어 지식을 쟁여 놓는다.

그리고는 그걸 잣대로 삼아 내 일, 네 일 마다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려 한다.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이건 바람직하다, 저건 좋지 않다 하면서 살아간다.

생각의 잣대는 족쇄다. 갑옷이다. 장벽이다. 그 생각의 잣대가 나의 언행을 지배한다. 따라서 그것은 나를 묶는 족쇄이다.

그 생각의 잣대를 무기삼아 사물을 상대한다. 따라서 그것은 나의 갑옷인 셈이다. 그 생각의 잣대가 나를 가둬 놓는다. 따라서 그것은 나의 성곽이 된다. 누구라도 그것을 애지중지하지만 실은 그것이야말로 내 앞 길을 가로막는 만리장성이요 은산철벽이다.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목줄이요 내 삶의 유연성을 앗아가는 번뇌의 씨앗인 것이다.

생각의 잣대는 내 눈을 멀게 한다.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방해한다. 짙은 안개와 같다. 먹물과 같다.

스스로 만들어서 간직해 온 것이지만 나의 시계(視界)를 가로 막아 앞을 보지 못하게 한다. 순탄하게, 훤히 열리기를 바라는 자신의 인생행로에 안개를 피우고 장막을 치는 것이다. 탐욕, 분노, 편견, 원한, 질투, 자만, 애착 따위의 걸림돌을 놓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스스로 벽을 쌓고 스스로 시계를 흐리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장벽을 보수하고 더욱 더 짙은 안개를 피워대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인가.

본래 벽은 없다. 족쇄도 없고 잣대도 없다. 인간의 근본 성품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대자유의 생명에너지이다. 그런데도 그 자유로운 성품은 벽에 갇혀 산다. 바로 자기방어라는 그릇된 편견 때문이다.

그 편견은 무지요 무명이다. 그것은 번민을 만들어내고 갈등과 투쟁을 불러온다. 자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고통에 빠뜨린다. 온갖 알음알이와 생각이라는 무기까지 동원해서 헤친다.

자유롭고자 하면서 자유 그것인 본성을 자기 방어라는 편견으로 묶어두려고 하니까 번뇌와 갈등이 따르고 삶의 과정은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지게 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한다면서 자기를 죽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백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온갖 지식과 사념은 백지를 볼 줄 알때에 비로소 올바로 쓰이게 된다. 지혜로운 방편이 된다. 그러나 백지를 볼 줄 모르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민과 고통도 늘어나게 된다.

백지를 보려거든 자기방어의 논리부터 버려야 한다.

버리면 얻는다. 크게 버리면 더 크게 얻는다.

협 찬 : 한 순 례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욕심때문에 '자유자재권' 제대로 못써"

☞ 17면에서 계속

습니다. 여러분 한 몸뚱이속에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뚱이에 더불어 같이 사는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부터 공생인 줄을 알아야 이 세상에 모든 상대성원리가 다 둘이 아닌 줄을 알수 있습니다. 내 몸뚱이 하나를 생각해도 더불어 살고 있으니 어떤 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며,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눈의 시력이 없어지면 누가 시력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안에서 작용을 못해주게 되니까 눈에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일거수 일투족 다 사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둘로 보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입니다.

나부터 공한 줄 알아야 바깥의 세상도 다 공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다 둘이 아닌 줄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저절로 갖다주고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저절로 갖다주게 되지, 동심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뿔뿔이 흩어진 나의 한 개체를 살리겠습니까?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동심(同心)이며 내 등생(同生)이며 동체(同體)입니다. 물 한방울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림살이, 즉 내 몸의 살림살이와 바깥의 상대성원리의 살림살이를 다 알아야 그때는 상대의 살림살이와 우주의 살림살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 자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내가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 ci 안의 생명체들이 동참을 해주겠습니까. 항상 자기만 고집하는데 누가 돕겠습니까. 그래서 익은 벼이삭처럼 고개를 숙여라 하는 뜻에서 우리가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배를 올리는 뜻도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합쳐서 삼배를 올려라, 자기가 자기한테 삼배를 올리는 거다, 어떠한 체를 놓고 상대에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법당도 짓고 부처님도 모셔놓고 그러는 거죠.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중 누구라도 부처님 아님이 없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로 화해서 응신이 돼서 응해주시는 그 마음들도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없는 이름이 바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과 같고, 여러분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고 여러분 뜻이 부처님의 뜻과 같습니다. 따로따로 보지 마세요.

부처님 당시에 어느 공부하던 거사가 부처님 한번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병문안을 가셨는데 몸이 아픈 환자가 일어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이 알면 육체는 안 일어나도 되느니라. 네 마음이 네 마음을 안다면 내 마음도 알 수 있느니라" 하셨답니다.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들어서 가섭이 웃은 것과 같이 둘이 아닌 얘기죠. 부처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살아나가는 진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지구 안에서 나를 알지 못하면 지구 바깥의 모든 외성에 대해서도 하나같이 캄캄할 겁니다.

상원사에 있을 때 얘깁니다. 아마 한 삼십년 전쯤 되는군요. 어떤 노인네가 막내 아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 산을 올라왔어요. 백발노인이 힘들게 올라오니까 산을 내려가던 신도가 사정을 물어봤나 봅니다. 다 듣고서는 "스님이 벌써 아시고 나를 보냈는데 집에 가보면 나을거라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실로 그 노인을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혹시 험한 길에 뒹굴거나 해서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는데 집에 가보니 아들이 일어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보살로서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수만 개라 할지라도 보살은 하나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마음'이라 하겠습니까. 일체 한마음으로, 한마음 속에서 빨간 것도 나오고 흰 것도 나오고 주홍색도 나오고 자색도 나오고 다 나오듯이, 지장도 나오고 관세음도 나오고 칠성도 나오고 해신도 나오고 산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 보살입니다. 보살행을 하시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하고 조그만 일이라도 생기면 죽는 시늉을 하고 마음을 좁게 쓰니까 보살이 할 일을 못하죠. 쉽게 예를 들어 마음 속에서 입자가 나가는데 보살, 응신이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응신이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둘이 아니게 또 들어와야 될 텐데, 마음을 옹졸하게 쓰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궁리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살 양으로 애쓰지도 말고 죽을려고도 애쓰지 말고요, 허허허. 나는 '그래야 삽니다' 이런 소리 안합니다.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알아질 테니까요.

저는 여러 생을 두고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마는 하여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이 없이, 잘못한 것도 함이 없이 했고 잘한 것도 함이 없이 했는데, 내가 해를 좀 봤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없애면 그쪽에도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십억원을 잃어버렸다면 그 집에게 십억원이 다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자쳐서 들어오게 돼있다구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지'하는 그 구닥다리 같은 집착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쓰나 하고 테스트 하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감히 어디 딴 데서 옵니까! 다 둘이 아닌데! 번연히 아는데! 하다못해 날아가는 새들도 번연히 아는 것을 말입니다.

무서운 개나 호랑이같은 것들도요. 번연히 서로 둘이 아닌 마음을 아니까 지켜주고 또 나쁜 사람이 오면 막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몸을 사리고 그렇게 내던지지 않았다면 아마 짐승들이 지켜주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한번 나와서 한번 갈 것을, 그렇게 살면 뭘 하고 저렇게 살면 뭘 합니까. 여러분도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것을 서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광개친다면 세세생생을 얻습니다.

남에게서 받는 것보다 내가 남에게 주고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공부를 하시니까 무주상보시의 공덕에 대해선 잘 다실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면,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서 무주상보시를 한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보시중에 제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주상보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상 없이 함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물질보시는 중요하지 않고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주상·유주상 보시가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공부하러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부잣집 아들이 다 죽게 생겨 무당 일곱이 와서 굿판을 벌였는데 아주 대단했어요. 부잣집이니까 먹을 것도 많이 차리고 돈도 많이 놓았으니 무당도 아주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고 그럽디다. 나는 그때 산을 지나가다가 우두커니 앉아서 내려다보니까 그것은 굿을 해서 나을 병이 아니예요. 그리고 그 동네는 아주 가난했죠. 어떻게 하면 동네사람 전부가 밥이라도 한끼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동네로 슬슬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동네 개를 불러서 굿판을 전부 엎어버리게 했더니 무당들이 놀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어쩔 줄 모르는 부잣집 주인한테 내가 그랬어요. '당신 아들을 고쳐줄테니 동네 사람들한테 쌀 한가마씩 줄 수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아, 줄 수 있고 말고요' 하는 겁니다.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외아들을 살려놨다고 하면서 오히려 쌀을 한가마씩 받은 동네 사람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맙다고 하더랍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도 버릇만 가르치지 남을 망하거나 해하게는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마음으로 무주상보시를 한다면 유주상보시를 한 것보다 몇백 배 더 크거든요. 마음은 체가 없으니 주는 것도 아깝지 않게 그냥 막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천이 된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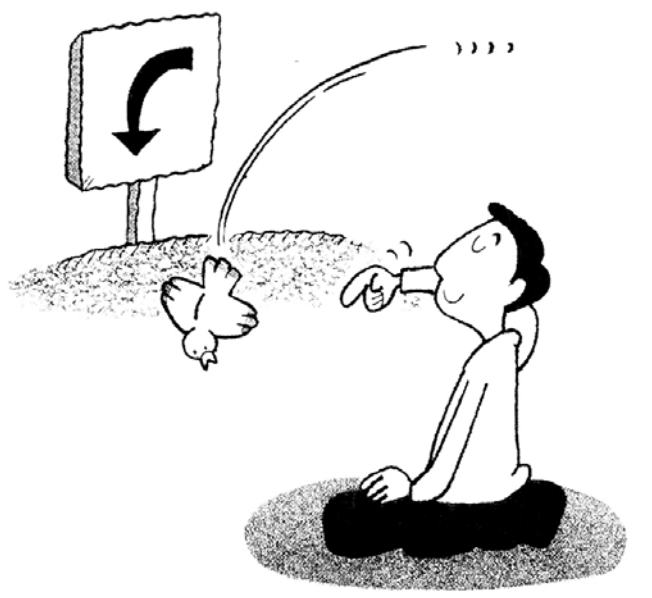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어느 가난한 집에 들러 시주를 받아 공양을 하게 되었는데, 제자는 하도 고마워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다 주었답니다. 그걸 본 스승이 제자에게 막대기로 내려치면서 '이놈아, 그까짓 한번 불때고 말면 없어질 것을 공부한다는 놈이 기껏 그런 것으로 갚으려 하느냐. 무주상보시가 있지 않느냐' 했더랍니다.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야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극하게 마음을 내 준 이후로 가난하던 그 집이 잘 살게 되었답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고, 또는 인연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불쌍하다고 그러지만 그래봤자 그것은 한치도 무주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요다음도 봐야죠. 그래서 예전에 도인들은 냉철하다고 했습니다. 내일을 생각해서 무주상으로 하시기 때문이죠.

도인이라는 게 별겁니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잘했든 못했든 지나간 것은 버리고 살죠. 그리고 새 걸로 입력을 한다면 앞의 것은 싹 지워져 버리고 새로 입력된 것만 들어가요. 놓는 입력만 들어가서 나올 때는 입력된 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순조롭게 살 수 있죠. 일체제불이 다 알고 있고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알고 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서산대사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했지만 죽일려고 떨어뜨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옳지! 날아가는 새의 마음을 둘 아니게 보고 내려오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내려오는 거지 별 수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건 비행기가 가는데도 사람 마음에 달려있어서 사람 하나의 마음을 동요시키면 비행기가 그냥 떨어져요.

누구나 그런 능력은 있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손오공처럼 톡톡 치는 그런 사람에게는 열쇠를 주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막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철이면서도 세세생생이고, 세세생생이면서 끊어지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으면서도 둥글고, 등글지 않았으면서도 여여하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게 되시면 증득(證得)한 겁니다. 통달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어린애를 못 낳아서 남의 애를 얻어다 기르는 경우에도 남의 종자를 데려오면 그 종자를 둘 아니게 이어놓구선 데려와야 되는데 그걸 압니까, 어디? 각각이니 기르면 기르는 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에휴, 자식이 없으면 그대로 살 걸 괜히 그랬다'는 말들을 하죠. 이 소린 또 왜 나왔느냐 하면요, 요새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라는 거 있죠? 그럴 때도 왜 그렇게 해서 낳았다 하면 자기의 종자, 종손을 거기다가 이어줍니다. 영령을 둘 아니게 해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집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착한 아이로 자라죠. 또 부인이 두 사람이었을 경우 두개로 각각 하면 안되고 반드시 동일 영가로 해서 재를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본다면 자유자재권은 이미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살아오던 습과 관습과 욕심 때문에 제대로 쓰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찰나찰나 버리고 가는 것인만큼 죄가 있다 없다, 잘했다 못했다는 이유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구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이렇게 해선 안되지!' 하는 생각없이 그런 건 안합니다. 또 남을 이익하게만 하지, 자기와 더불어 같이 이익한 것만 하지. 거짓말도 남에게 이익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비지.

그러니 살아나가는 데 요만한 애로가 있고 이만한 애로가 있고 그런 것도 이 시간부터는 다 버리세요. 버릴 것도 없는 것을 지금 버리라고 합니다. 허허허, 그냥 없어지니깐 버릴 것도 없죠. 본래 버릴 것이 없어서 마음이 편안한 것과 버릴 것이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버릴려고 애쓰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사람은 차원에 따라서 주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몰라요.

제 공부가 너무 미진합니다

문 저는 진주지원에 다니는 신도입니다. 스님과 인연된 지도 오래되었고 매일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합니다만 제 공부가 너무 미진합니다.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공부가 잘 될는지 스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답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공부가 잘 되는 거는요,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은 찰나찰나 없어지고 잡을 게 없거든요. 그냥 자기 한발로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손없는 손과 발없는 발이 그대로 여여하게 함이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상도 자기 모습이니 둘로 보지 마시고 자기 주인공 자리에 진실하게 관하세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부처님을 몇 번이나 부순 줄 아십니까? 자기 모습인 줄 모르고 부처님 상에다가 기도하고 야단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야 공부를 하겠으니까 부순거란 말입니다. 법당에 들어가면 세 번을 절하고 예배를 올리고, 둘로 보지 말고 다 거기다 맡겨놓고, 전부 둥글게 자기 주인공에다 한데 합쳐서 나가시고 그러세요. 모든 건 자기 주인공한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다 안된다 하고 따진다면 도는 이루지 못하죠. 이거 한 가지만 알면 거기서 의학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전체가 다 나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부지런히 일을 하되 그것이 공덕을 짓는 인연이 되며, 인연을 짓되 함이 없이 하는 걸 알아야 그게 큰 공덕으로 갑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구선 거기다 하는 거지 아, 되기만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안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알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밤낮이 생기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 이것이 그대로 진리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진리 속에서 살고 있다구요. 그러니 아주 담담하게, 물러서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오직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 맡기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벌써 한발짝 떼어놨는데 이미 지나간 한발짝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두고도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절 불사에 어려움이 많아요

문 지금 진주지원은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 10월쯤 준공법회를 열었으면 하오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스님께서 마음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계시다면 할 것이고 안 계시다면 못하는 거지 그걸 왜 걱정을 붙들고 합니까. '그게 빨리 돼야지, 더디면 어쩌나?'이라고 애타는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십년이 가든지 백년이 가든지, 또 금방 되든지 그건 부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나한테 그거 하라고 꼬리표해서 붙여봤나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심부름을 하되 진심으로 묵묵히 그냥 하는 것이 진짜 공덕입니다. 열흘이 되든 스무날이 되든 내가 할 도리만 열심히 하고, 되고 안되고의 양면은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바로 부처님하고 직방 통하는 길이에요.

협찬 이여근

"어려운 사람 물질로 못도와도 '도와주면 좋겠다' 마음내면 무주상·유주상보시 함께 돌아가요"

"받기보다 남에게 주는 삶처럼 좋은 것 없어" 내 할 도리 다 하고 '되고 안됨'은 놓아야 공덕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5신 410쪽
여시아문 펴냄
값 5,000원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80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정박한 경제난 타개의 한 방편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제거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한 것도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여시아문의 의지를 실천한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가정법회 생활불교 이끈다

◇강서구 화곡동 배득연보살의 집을 가득 메운 무루회 1백여 회원들이 무애원 설봉스님의 법문에 귀기울이고 있다.



무루회 · 여여회등 새 신행형태 '뿌리'
이웃 친지 사찰법우 모여 신행활동
애경사 돕고 경전공부 · 봉사활동도

사찰이나 포교당이 아닌 가정에서 이웃 친지끼리, 지역 사찰의 법우들끼리 모여서 법회도 열고, 자원봉사도 실천하는 가정법회 모임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무루회, 여여회 등은 가정주부불자들이 모여 신행 도반으로써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가정법회 모임.

지난 12일 오전 10시 강서구 화곡1동 배득연보살의 2층 양옥집. 3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주부불자들이 반갑게 합장하며 찾아 들었다. 매월 둘째 목요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열리는 '무루회(無漏會)'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오늘은 무애원 설봉스님의 법문이 있는 날. "육바라밀 실천하며 세세생생 도반되어 성불할때까지 용맹정진하자"는 무루회 발원문을 따라 회장인 배득연보살과 7명의 회원들이 모인 것이 올해로 10년째. 현재 법회 참석인원만 1백여명에 달한다.

"회원 각자가 강서 양천지역의 사찰에 다니면서 신행생활을 하는 한편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여럿이 함께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모였다"고 회장 배득연보살은 설명한다. 법회뿐만 아니라 매년 11월 둘째주 목요일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힘을 모아 소쩍새마을, 강화도 군법당, 연꽃마을 등 교계 복지시설을 두루 찾아다니며 자원봉사 활동도 해 왔다. 또 도반들의 가정에 길흉사가 생기면 함께 참석해 경전도 읽으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매월 둘째 목요일 오전 11시 모임을 갖는 '여여회(如如會)'(회장 이란)도 5년째 한 번도 빠짐없이 법회를 꾸려왔다. 보살행을 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자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다. 주부불자로 구성된 30여명의 회원들이 〈부처님 일대기〉에서부터 〈묘법연화경〉등 경전공부를 비롯, 자원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현재는 해인사 율원장 종진스님의 지도아래 〈옥야경〉〈육방예경〉 등을 공부중이다.

아직 모임 명칭은 정하지 않았지만 8개월 전부터 강남구 우면동에 사는 일법승보살의 집에서도 불자 5~6명이 매일 〈법화경〉 공부와 참선 정진 등을 해오고 있다. 매주 1회 정도는 인근 지역 사찰의 스님을 초청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점검하기도 한다.

각 지역에서 사찰의 주도가 아닌 불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가정법회는 사찰에서만 이뤄지는 신행생활을 바로 자신들의 생활터인 가정으로 이끌어내 불심증진은 물론이요, 불자들의 건전한 친목봉사모임으로써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새로운 신행형태로써 정착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건강 365일 〈16〉 황백(黃栢)



이 만 성 〈영재한의원 원장〉

동의보감에 보면 황백이 구창(口瘡, 입안이 허는 것), 골증열, 피부병, 방광열을 다스리고 여자의 자궁출혈을 멎게 하고 악성대하증을 치료한다고 나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춘하추동이란 사계절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에도 춘하추동처럼 변화하는 기류현상이 있다. 이 춘하추동이란 변화가 우리 몸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하는 생리현상의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 생긴다.

봄은 따뜻해야 싹을 틔우고, 여름은 더워야 꽃을 피우고, 가을은 서늘해야 열매를 맺고, 겨울은 추워야 열매를 저장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몸도 기류(氣流)의 변화현상이 일어나야 건강이 유지된다. 찬 기운이 올라가고 더운 기운이 다시 내려오는 기류현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한방에서는 수승화강(水昇火降)이라 한다.

입안이 자주 허는 것은 췌장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지 못하고 더운 기운만 입안에 있어 나타나는 염증이다. 뼈속에서도 더운 기운만 있고 찬 기운과 교류가 안되면 골다공증, 백혈병 등이 생긴다. 또 방광에서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의 교류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광염이 생기고 디스크, 좌골신경통, 전립선비대증 등도 발병한다. 폐에서 기류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결핵이 된다. 혈액 속에서 기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가 열을 받아 터지게 된다. 특히 여자들은 자궁출혈이나 악성대하증으로 발전한다.

더운 기운 서늘하게 바꾸는 약제
구창 · 자궁출혈 · 악성대하증 치료

가을엔 서늘해야 맛있는 열매가 열리듯 우리 몸도 서늘할 때가 있어야 피라는 열매를 얻는다. 더운 기운만 있으면 피가 마르며 위에서 언급한 난치병들이 생긴다. 더운 기운은 많고 찬 기운이 모자라는 체질을 소양인 체질이라 한다. 더운 기운을 서늘한 기운으로 전환시켜서 기류현상을 정상화시키는데 소용되는 약이 바로 황백이다.

복용법 1회 4g을 달여서 하루에 두 번 복용한다. 사물탕과 같이 복용하면 금상첨화다.



"정서불안엔 참선이 특효"
동대부중 특별명상반 운영

"기분이 이상해요. 다리하고 어깨도 아프구요. 하지만 참선을 계속해서 수업시간에 떠드는 것도 없어지고 집중력이 길러졌으면 좋겠어요."

처음 참선실수를 경험한 동대부중 김수민(2학년5반)군은 특별명상반 활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며 참선의 느낌을 이렇게 말한다.

동대부중(교장 우하수)은 16일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의 일환으로 특별명상반을 개설했다. 특별명상반은 정서가 불안하고 충동성이 높은 이른바 정서지진아 교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2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기초심리검사를 해서 충동성과 불안감이 높은 학생 130명을 우선 추려냈다. 이후 개개인 면접을 거쳐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60명을 선정, 30명은 참선반활동을 하고 나머지 30명은 대기자로 분류했다.

고우익교법사는 "1기생 30명과 대기자 30명을 두달 간의 참선이 끝난 후에 다시 심리검사를 해 비교 분석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선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통계자료가 될 것"이라 밝혔다.

참선지도는 황선정상담연구원(자비의 전화)과 고우익 우인보교법사가 맡고 있다.

"복지관에 공부하러 오세요"
신학기 청소년프로그램 다양

신학기를 맞아 교계 복지관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일제히 개설 운영한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교과과정 지도 외에도 예체능 계열의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 02-852-0525)은 어린이 대상의 영어교실, 무료호신술교실, 전과목을 지도하는 공부방, 글쓰기교실 등을 마련했다. 청소년 기능교실의 생활영어, 컴퓨터 등은 교재비만으로 들을 수 있는 강좌들이다.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하성자, 0551-31-8017)은 초등학생을 위해 꾸러기 스포츠 활동, 학습지도, 컴퓨터교육을 받는 오름나래교실, 아동예절학습당, 너른벌 공부방 등을 개설했다. 또 글쓰기교실, 느티나무공부방, 어린이영어, 아동무용, 종이접기교실, 중학영어, 중학수학 등도 마련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스님, 0371-762-8131)은 일반·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애프터 스쿨을 운영한다. 7월29일부터 31일까지는 야외집단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자립심을 키워줄 대안학교도 개설한다. 일반·장애아동이 함께 긍정적 생활태도를 기를 푸름이놀이교실, 청소년 독서실, 상담실 등도 상설하고 있다. 중1년생들에게 국어·영어·수학을 지도하는 학습지도코스, 노인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명륜청소년구급단, 청소년 스터디 클럽 등도 있다.

영수 컴퓨터 글짓기 예체능 지도
대안학교 · 유적탐방 등 눈길
비용싸고 취미생활에도 제격

문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옥스님, 0662-652-4242)은 초등학교 교과 전과목을 지도하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한달에 한번, 전남권 유적지를 돌아보는 역사기행도 있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스님, 02-806-1377)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구연동화, 속셈, 미술, 피아노, 합창, 논술교실 등을 개설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웅스님, 02-817-8052)은 초등학교 1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및 전과목을 지도하는 아동속셈교실을 연다.

26일 개관하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상덕, 02-282-1100)은 맞벌이부부 결손가정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교실, 컴퓨터 글짓기 등을 가르칠 어린이기능교실, 학습지도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불교학생회 다니면 비행 줄어"
패싸움등 일반학생보다 10~20% 감소

유승무교수 분석

불교학생회에 가입한 중학생은 일반 중학생에 비해 비행 경험이 10~20%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승가대 유승무교수(사회복지학)가 〈불교와 사회복지〉 제2호에 발표한 '불교 청소년 복지의 방향 모색'이란 논문은 설문조사(담배, 음란비디오, 패싸움, 본드, 가출, 성관계 등의 호기심이나 유혹 경험과 관련한 질의, 모집단 표본 267부) 결과 불교학생회 집단이 일반학생 집단에 비해 비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경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행행위의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교수는 논문에서 종교적 요인이 청소년비행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으며 불교적 자원을 활용, 청소년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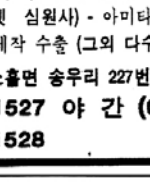
명성여중 진로지도교 선정

명성여중(교장 안은자)은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진로지도 선도학교로 선정돼 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 11개 구청별로 인성교육·학습지도·학습평가·진로지도·의식교육 등 5개 분야에 총 55개 학교가 선도학교로 선정됐다.

명성여중의 진로지도는 대부분 체험지도를 통해 이뤄질 방침인데 방과후의 산업체, 노동부등 직업 관련기관, 전문대학, 직업학교 방문으로 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어린이 법회를…' 출간



설법과교리

사단법인 불국토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소장 혜총스님)는 〈어린이 법회를 의한 설법과 교리〉를 출간했다.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의 두번째 연구총서인 〈어린이 법회를 위한 설법과 교리〉는 9월부터 2월까지 매주 열리는 법회에 각각의 주제와 교리교육을 쉽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불자들의 실천방법도 제시해 주고 있다.

월간 '연꽃' 3월호 나와

어린이 포교 교양지 월간 〈연꽃〉 3월호가 나왔다.

3월호에는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타임머신 '나라를 구한 팔만대장경', 사찰속 환경이야기 '생태보존', 만화 '문수가 족이 펼쳐보는 백유경' 창작동화 '침보비를 뿌리는 여의주' 등이 실려 있다. 심리테스트 '내가 가는 길'을 따라 자신의 가치관을 탐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중리복지관 여성교실 열어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제8기 여성문화교실을 개강한다. 4월1일부터 모집하는 이번 여성문화교실의 교육은 6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회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부처님조성 · 석탑 · 석등 · 석비 · 부도 · 불사건축 · 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물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봉축현수막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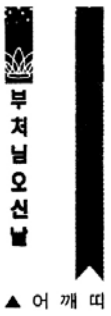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이웃과 함께

▲ 불자의집 교패



부처님오신날

▲ 어 깨 띠

▲ 차량용 스티카



〈일반〉 〈고급〉
▲ 리 본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이번 봉축행사에 각 사암에서는 봉축위원회 지정 현수막을 사용하여서 불교계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공식 지정업체로 선정된 감로기획에서는
국민적 축제인 불기254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현수막을 질기고 품질이 우수한 최고급 천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덕 큰스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가 격 표 ◈

품 명	규 격	가 격
현 수 막	90cm×6m	40,000원
	90cm×8m	50,000원
	90cm×10m	60,000원
불자의집 교패	2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1,000원
차량용 스티카		300원
어 깨 띠	1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500원
리 본 일 반	5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20원
리 본 고 급		330원
리 본 귀빈용		1,000원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 · 7 FAX (02)738-8682

불자 세상보기

종교·시민단체 北 직접지원 가능

정부규제완화 검토…고령 이산가족 방북 신고제로
"남북화해의 출발점"…교계 지원책 구체화 필요

앞으로 북한 방문이나 남북간 종교·문화·경제협력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적십자사를 통하지 않고 비정부기구(NGO), 특히 이산가족, 종교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통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북한내 '관광특구'를 개발하고 △당국·비당국간 '틈새 대화'를 적극 모색하며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기존의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북측에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의키로 했다.

이어 통일부는 18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민간단체 대표들의 대북지원 협의 및 분배결과 확인을 위한 방북허용 △언론사와 기업체가 협찬·후원하는 대북지원 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바자 등 이벤트성 행사 개최 허용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내 식료품공장·합영농장 등 협력사업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대북지원 창구다원화는 95년 대북식량지원작업이 시작된 이래 종교및 사회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종교계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 4년간 국내의 단체 및 개인독지가들이 대북구호용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금액은 총 2백51억원(2월말 현재). 이중 대북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종교단체는 99억5천만원(기독교 55억원, 천주교 32억원, 불교 9억2천만원, 원불교 2억3천만원, 천도교 2천5백만원 순)의 대북성금을 냈다.

종교계는 특히 올들어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붐을 조성하고 있다. 불교계와 개신교는 16일 각각 중국 베이징과 호주 시드니에서 북한 종교인들을 만났다. 불교계는 6월초 미국 LA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불교지도자 통일기원법회' 일정과 부처님 오신날 공동발원문 채택을 논의했으며, 기독교계는 '한반도의 나눔과 평화통일' 방안을 협의했다.

통일관련 전문가들은 "종교·시민단체에 의한 사회·문화·예술·체육·학술 등 분야의 교류는 남북간 교류 및 접촉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사회의 개방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간 사회·문화의 동질성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정부의 민간차원 남북교류확대 방침에 따라 종교계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13일 중국 베이징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남북불교실무자 회담.



종교의 눈

"동족은 한 가지요 잎"

"동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석가종족은 부처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잎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증일아함경〉

법타스님(은해사 주지)은 최근 〈승가〉 제15호에 발표한 '북한의 변화와 남북불교의 교류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현재 우리 민간단체가 남북해빙의 관계를 식량난 지원으로 일조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소중한 돕기 위해 골수기증을 위한 '릴레이 채혈' 행사를 17~24일 개최. 이씨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씨의 부인이 교포 1천여명에게 호소, 골수기증을 위한 혈액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화고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각종 장지현정사(미주평불협 상임부회장)는 "현재 각 종교 및 교파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 포교와 선교활동을 지양하고, 종교의 근원적인 목적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대북식량지원과 약품, 의류 등 생필품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화원 피복비로 이웃돕기

서울 성북구 환경미화원 4백51명은 16일 매년 하반기와 동절기 각각 지급되는 피복비를 올해는 받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청에 반납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헌 작업복을 수선해 입거나 동료간에 작업복을 나눠입는 등의 방법으로 7천2백만원의 피복비를 절감해 관내 결손가정 및 영세민 복지기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

PC통신 명예훼손 20대 구속

서울지검 특수2부는 17일 PC통신 동호회 시삽(운영관리자)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를 지원한 회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등)로 김진석(23)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우이동 자신의 집에서 김모(24)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김씨는 홀뱅킹을 통해 통신회원들의 돈을 빼돌리고 임신중인 내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중"이라는 등 9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김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서울지검에 허위고소한 혐의다.

철로에 돌놓아 열차 탈선

서울지방철도청 공안과는 15일 철로에 돌을 올려놓아 열차가 탈선하게 한 혐의(철도법 위반)로 김모(13)군 등 10대 4명을 붙잡아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김군 등은 지난 9일 경춘선 성북역에서 화랑대역 방향 3.2km 지점 철로위에 두께 5cm 크기의 콘크리트 블록 7개와 자갈 10여개를 올려놓아, 춘천발 청량리행 열차의 기관차 앞 바퀴가 탈선해 1시간 30분 동안 멈추도록 한 혐의다.

빚갚으려 회사어음 159억 위조

서울지검 조사부는 17일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회사어음 1백50억원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위조등)로 (주)J기연 서울사무소장 고병식(43)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운영자금 조달 및 어음만기 연장을 위해 어음을 발행하겠다"며 회사대표를 속여 1억원짜리 회사명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뒤 H종금을 통해 9천8백여만원에 할인받는등 모두 43차례에 걸쳐 1백59억여원을 위조한 혐의.

젓갈장사 할머니 10억 기증

서울 노량진동 유양선(65) 할머니는 13일 30여년동안 젓갈장사를 하며 힘들게 모은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충남 서산 한서대에 기증했다. 34년 서산시 양대동에 태어난 유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한번도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남편과 헤어진 뒤 60년대 말부터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젓갈장사를 해왔으며 현재는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 외동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

암투병 동문살리기 골수기증

연세대 재학생과 교수들은 지난 91년 연세대를 졸업한 동문 이주헌(33)씨를 "탈북주민 472명이 증언한 북한 식량난의 실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체적으로 탈북자 472명과 그들의 가족 등 2583명의 북한 주민 가운데 모두 744명(29%)이 굶주림 영양실조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원인은 744명 가운데 384명인 52%가 아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295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불교운동본부가 지난해 9월말부터 두차례에 걸쳐 중국의 연변, 단동, 장백 등에 숨어사는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증언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1, 2차 조사 결과를 합쳐 분석해낸 것이다.

탈북자가족 사망률 32%

굶주림등으로 2년새 3백만명 사망
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보고서 발표

"탈북자 가족의 사망률이 불과 한두달 사이 24%에서 32%로 무려 8%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년간 사망자는 최소 3백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는 13일 종로성당에서 개최된 3.13 학술회의에

백두대간 산림파괴 심각

강원도내 임야 19년새 8분의 1 줄어

국토의 허파인 백두대간이 각종 개발사업 및 관리부실로 생태계가 단절되는등 환경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6일 강원도의 자연파괴 실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대관령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11개 개발사업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등 3개 국립공원이 일종의 생태섬으로 고립되고 있고 산림면적도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이 산림청 및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밝힌 강원도내 임야면적은 76년 75만ha에서 95년 66만ha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산성비 피해도 증가해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와 속초에는 신맛이 날 정도로 강산성비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들었다

도둑이 들끓고 있다. 서울 모중학교에서는 2학년 12개반에 설치한 컴퓨터의 핵심부품이 대량 절도당하는 등 초·중·고 각급학교마다 도난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또 당진군에서는 가축절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가하면 은행, 아파트, 상점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도난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직장을 잃은 20대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임신한 아내와 도둑질을 하다 붙잡히는 안타까운 사건도 벌어졌다.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범죄율이 6% 증가한다는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일면 동정의 소지도 있으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물욕이 어우러진 탐심의 결과일 뿐이다. 〈편집자 주〉

도둑질 탐심버려 청렴한 마음 지녀라

▨보살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 줄 알기에, 남을 사랑해서 침해함이 없다. 물건이 남의 것일 경우에는 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풀잎일 때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는 법이 없다. 하물며 다른 생활필수품이야 이를 것이 있겠는가? 〈화엄경〉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 선근을 키워야 하나니라. 네가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사마디를 닦게 하려면 더욱더 훔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할지니 이것이 여래선불세존께서 세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시니라. 만약 도둑질한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자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새는 잔에다 물을 부으면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비록 수많은 겁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가득 채우지 못하리라. 〈능엄경〉

▨도둑질하는 마음을 버리어 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으며 그 마음은 청정하여 가만히 훔치려는 생각조차 없다. 이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불설장아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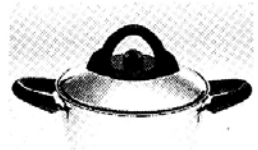
▨남의 재물에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는, 후생(後生)에 사람이 되어 부락(富樂)을 얻는다. 〈태자쇄호경〉

▨삼가 도둑질하지 말 것이니, 도둑질하면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한다. 탐심을 일으켜 남의 물건을 훔치면 후보(後報)에 축생이 된다. 〈범천신책경〉

▨아난아! 어떻게 마음 가지는 것을 내가 계율이라 하는고.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도둑질 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네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塵勞)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도둑질할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도둑질할 마음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사도에 떨어지리니. 〈능엄경〉

새상품

음식 부패않는 냄비



조리한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음식물이 쉬지 않는 냄비 '키친 매지션'이 시판됐다. 이 제품은 냄비의 가장자리에 실리콘 패킹을 장착, 뚜껑을 닫으면 진공상태를 만듦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균의 침입을 차단해 음식물 조리후 상온에서 1주일 이상 두어도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는다. 또 국물이 많은 음식물을 자동차에 장시간 싣고 다녀도 쏟아질 염려가 없다.

신신스텐레스, 가격은 6만원~11만원. (0341)84-7371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팔상탑주(八相塔呪)책자내용의 요점설명

1)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록

2)양택풍수측면:
①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②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③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④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⑤자녀가 없어 아이갖기를 간절히 원할 때
⑥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⑦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⑧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스님들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팔상탑주 처방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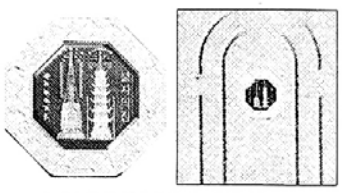
◎본 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의 신도들에게 풍수적으로 불가사의한 효험력을 나타내는 팔상탑주를 적용하여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 불자님들께는 본 책지를 요약한 카다로그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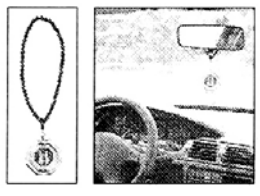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소재 :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 : 8cm×8cm ·가격 : 60,000원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풍수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살방이라 하여 어느시점이든 기가 약해졌을때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갑자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점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자체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의 상서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맞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소재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규격 5cm×5cm ·가격 60,000원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떼어 놓을래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량 내부 전체에 강력한 우주에너지를 취합시키고 발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충만케 해주고 그로인해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뻗어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뻗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재가 있거나 살재가 온 사람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1)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2)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3)규격 : : 30cm×30cm
(4)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종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장특허등록 : 제211260호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팔상탑주란?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인의 여덟방위에는 주역의 괄괘에서 말하는 길상(吉相)인 팔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팔상(八相)은 여덟가지의 인생사(人生事) (1)결혼 (2)명성 (3)부 (4)가정 (5)지식 (6)진로 (7)조력자 (8)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발전을 각방위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괄괘의 괄각형안에 음양의 불탑다라니 신주(神呪)와 오행상의 길(吉)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결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름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괄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 화 : (0335)34-9490, 34-9491 야 간 : (0342)706-3060

시 론

벌써 허리띠 푸나

근심으로 이룬 세상 걱정으로 살아간다. 사실 그렇다.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다. 부처님도 집이 있으면 집을 걱정(有宅憂宅)하고 밭이 있으면 밭을 걱정(有田憂田)한다고 말씀하셨다.

IMF체제 백일 지났건만 흥청망청 옛버릇 '고개'

지금 우리에게는 IMF가 화두다. 죽을 각오로 일하지 않으면 그 한파가 빚은 동사(凍死)는 사필귀정이다. 외채가 2천억 달러, 달러당 1500원으로 계산하면 3백조원으로 국가 4년 예산과 맞먹는다. 이를 갚아야 우리는 IMF체제를 벗어나게 된다. 이를 이겨내려면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산더미빚의 수치로부터 벗어나려는 구국의 마음으로 장농속 금반지마저 아낌없이 헌납했음이 아닌가.



장 백 일
〈국민대 교수 · 문학평론가〉

IMF체제가 겨우 1백일을 넘겼다. 아직도 가야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그런데 요즘 흥청망청 살던 옛버릇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하루 실업자가 1만명씩 늘고, 직장잃은 가장들이 산과 거리를 방황하고 서울역은 구직 노숙자들로 그 처량함이 눈물겹다. 실직자 가족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침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거품 망령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IMF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이 망국적 작태들도 가지가지다.

한산했던 거리가 다시 자동차물결로 넘쳐난다. 대형할인매장을 찾던 주부들의 발길이 백화점으로 몰린다. 가격을 40%나 올린 프랑스화장품 샤넬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른다고 한다. 또 강남의 나이트클럽으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한병에 50~60만원하는 위스키 발렌타인 21년산과 접시당 10만원하는 튀김안주도 꼬리를 물고 팔린다고 하니 진정 IMF가 끝났다고 생각해서인가. 우리 국민들의 망각이 이다지도 빠르단 말인가.

지난 주말 고속도로로 서울을 빠져나간 차량만도 19만여대. 한달 전보다 2만여대가 늘었으며 전국 고속도로는 늘어난 행락차량으로 체증을 빚었고 IMF전인 지난해 11월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한다. 공무원골프해금조치가 나오기 무섭게 골프장들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떨어졌던 골프장 회원권 값이 다시 오른다고 하니 국난극복의지가 어디로 실종됐단 말인가.

사실 IMF는 이제부터다. 1년반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는 우리에겐 뜨거운 감자다. 낙제점수인 F학점의 우리 경제를 A학점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보통 쉬운 문제인가. 지금 우리는 와신상담으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우리 경제를 재생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건전소비는 적극 권장하면서 과소비 풍조는 자제하고 외화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고통과 희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의 자성과 안정이 필요하다. 정치혼란은 곧 사회불안을 심는 씨앗이다. 자기 당의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구시대적인 구태의연함만을 보이고 민초들만 고통나눔에 앞장서라고 한다면 누가 수긍하고 선뜻 나서려 하겠는가. 정치가 잘못되면 '政'은 '民'을 치는 '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득권 보호에만 급급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인에게 '與民同苦'와 '與民同樂'을 타이르고 있는 맹자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 일부의 해이해진 작태에 정치권이 먼저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다.

기득권자들부터 자성 건전소비 생활화해야

우리는 역사적으로 IMF보다도 더 큰 시련을 이겨낸 저력의 민족이다. 흐트러진 정신을 다시 추스리고 허리띠를 새롭게 졸라매자. 지난해 연말 IMF가 시작되었을 때 6·25 이후 최대 난국이라는 이 IMF체제를 어서빨리 이겨내고자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던 그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 눈물에 젖은 빵을 씹어본 사람만이 빵의 고마움을 안다고 했다. 아직은 눈물로 빵을 먹어야 하는 때이다.

열린마당



◇올해 봉축행사는 소외된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자비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IMF시대 봉축행사

혼들리고 있는 경제, 그 여파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한가지가 있다면 바로 부처님 오신뜻을 온누리에 전하고자 하는 봉축의 마음일 것이다. 올 봉축행사는 예년에 비해 겉치레를 자제하고 실속을 다지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교계 각 단체와 사찰의 IMF시대 봉축행사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제등행렬대신 자비탁발

직지사 관할사암

김천 구미 상주 예천 문경 등 제8교구 관할하의 5개지역 사암연합회 회장단은 11일 직지사(회주 녹원)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해마다 실시해 온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을 올해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김천사암연합회를 필두로 각 지역별로 날짜를 정해 자비의 탁발을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도출은 종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IMF시대에 부응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보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자비의 탁발로 대신하는 것에 대해 사암연합회 연석회의는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축제보다는 자비행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때가 때인만큼 보여주기 행사보다는 불교본연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복지시설 · 군부대등 위문

부산 삼광사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부처님 오신날을 계획중이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불우이웃돕기와 천마재활원, 정화양로원 방문등이 바로 그것. 성금 전달은 물론 직접 방문해 그들의 외로움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실시한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어 꾸준히 후원을 해 온 53사단, 해군사관학교를 찾아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게도 부처님 오신 참뜻을 전할 예정이다. 요즘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함께 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것이 삼광사의 설명이다. 매년 실시하던 행사지만 어려운 시기를 맞아 더욱 의미가 크다고 판단, 비중있게 치를 예정이다.

봉축탑 · 대형현수막 축소

제주불교연합

제주불교연합회봉축위원회(위원장 중원)는 IMF시대를 감안 봉축탑 및 대형현수막 등 장엄물은 가급적 축소키로 의견을 모아 경제난국을 타파하는데 불교계가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각 신행단체별로 일정한 장소에서 봉축행사를 실시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이벤트형식의 축제를 치르기로 결의했다.

오는 4월 25, 26일 양일간으로 예정된 봉축이벤트행사는 해변공연장등 공개장소에서 탑돌이, 제주불교대합창제,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로 구밀 예정이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바자회와 사찰전통음식 및 전통차시음장, 향토음식점 등 풍물장터도 연다. 불자가 훈써주기, 염주달아주기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우이웃돕기 연등달기

맑고향기롭게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는 매년 '남을 위해 다는 연등하나'행사를 통해 모아진 성금을 파주 대비양로원 등에 전달해 왔다. 올해는 이 행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길상사에 새로 보금자리를 꾸몄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진행중이어서 사회상황을 반영해 등명칭도 '세상의 모든 아픈이들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삶이 괴로운 노인들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기들을 위하여, 육신의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하여, 일터를 떠나야만 한 이들을 위하여,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사는 당신을 위하여'등으로 다양하게 준비했다. 이 등달기로 모아진 성금은 IMF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을 위해 쓰게된다.

지난해 사용 연등 재활용

우리는선우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축복의 등, 감사의 등, 용서의 등, 인연의 등, 통일의 등, 자비의 등' 달기 행사를 올해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사에 사용되는 등은 지난 해에 달았던 등을 재활용의 차원에서 사용한다. IMF로 모든 물가가 올랐지만 등값은 여전히 한등당 1만원을 유지해 많은 불자들이 부담없이 등밝히기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등달기로 모아진 성금은 장충단공원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한마당잔치 비용으로 쓸 열 예정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소중한 마음을 불자들과 함께 나누고, 장애인과 일반인이 하나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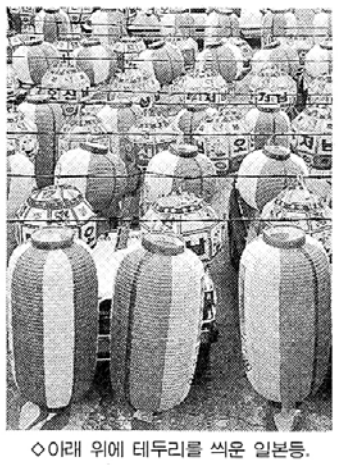
'자비실천사업단' 구성

대불련

대불련(회장 박성철)은 '부처님 자비로 이웃과 함께'라는 올해 봉축 정신을 실천하고자 IMF 경제한파로 더욱 소외받는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나선다. 대불련 소속 1만여명의 대학생들이 노력봉사활동을 전개, 봉축기간중 불교계 사회봉사단체들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불련은 '자비실천 사업단'을 설립했다. 사업단은 생명나눔실천회와 나눔의 집 등 불교계 봉사단체와 연계해 대학생들이 헌혈하고 정신대할머니를 위로하는 방문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각 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봉축기간(4.1~5.5) 중 결식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보육원 등의 활동에 1일 노력봉사자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아래 위에 테두리를 씌운 일본등.

"전통燈을 답시다"

조계종봉축위 왜색등 퇴치 적극나서 전통마당극등 IMF형 봉축준비도

국가경제 위기로 사회분위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종 봉축위원회도 IMF형 알뜰봉축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4월1일~5월5일까지를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간으로 정해 민족문화의 토대로써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행사로 꾸밀 계획이다.

왜색등 추방운동은 바로 한국불교정체성 되찾기다.〈본지 97년 5월21일자 참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봉축등이 일본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봉축기획단이 일본, 대만, 중국 등을 답사하고 각국 등을 비교해 삼국시대에 사용된 접등(지등)의 형태를 복원했다. 기존의 등과 봉축기획단이 재현한 전통 만월등의 차이는 봉축 등의 아래 위테두리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 봉축위는 불자들이 직접 제작한 전통 등의 사용을 널리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등이 갖는 밝음·소원·지혜의 의미를 통해 위축돼있는 우리사회에 희망과 나눔의 정을 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관광인구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외국인 관광객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영어와 일어로 된 홍보팜플렛도 제작했다. 한국광광공사의 각 지사를 통해 세계 20여개국에 이미 배포했으며, 국내 관광업체와 연결해 외국인 관광단까지 모집하고 있다. 봉축위는 이들 외국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봉축행사의 하나로 민속장터, 전통마당극 등의 프로그램을 구상중이다.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축제는 국민적 일체감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불교문화를 대중화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은자 기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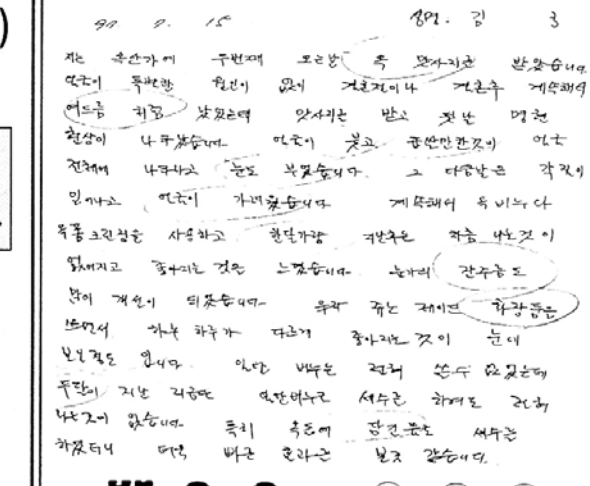
민속 홍 화 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씨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얼굴미용



백옥 옥 옥
팔반 팔 이
염주 지 씨
옥 옥 옥
벨 네 이
트 외 불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본점 습堂 777-0105(우편판매가)

사 · 과 · 문

귀의 삼보 하옵고,
종단 종정스님 및 불자여러분의 건강과 안과태평을 기원 드립니다.

소승이 지난 1997년 본지에 공고한 내용중 1992년 10월 14일자로 이혜봉(대산)스님의 종정 불신임안 가결은 1993년 12월 10일자 였으므로 바로 잡으면서 아울러 속된 속어로 공고한 사실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

1998년 3월 일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학암(재규) 합장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선관위 산중총회

대구 동화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무공)는 4월 10일 심검당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동화사주지 선임의 건 등을 비롯 기타 종무현안 등의 안건이 진행된다.

쌍계사 보살계 · 정대불사

하동 쌍계사(주지 선곡)는 4월1일부터 3일까지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및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이번 보살계법회는 전계대화상 고산, 갈마아사리 도견, 교수아사리 보성스님을 계사로 실시된다. 또 육조봉찬회 및 종제도 개최한다.

금산사 자비의 탁발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18일 코아백화점 광장에서 제2회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탁발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금산사가 남부시장 등 5곳에서 탁발을 실시해 모금된 6백40여만원의 성금 전액은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과 무의탁 복지시설, 북한어린이 의약품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태고종

종무원장 · 기관장 회의



총무원(원장 인곡)은 18일 회의실에서 전국시도 교구종무원장 및 각급 기관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25일 선암사에서 개최되는 승려대회에 대해 논의를 갖고 총무원 현관식, 대통령에게 드리는 메시지 낭독,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국난극복과 군운융창 기원 천일기도 입제식도 갖는다.

천태종

전국연리회 단합대회

전국연리회 단합대회가 14, 15일 양일간 부산 삼광사에서 열렸다.

연리회는 전국 사찰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들의 모임으로 이번 단합대회에서는 지도교사들의 법회운영 경험, 정보교환들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삼룡사 21돌 기념법회

삼룡사(주지 경천)는 22일 법당에서 21주년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경천스님은 법문을 통해 "강산이 2번 변한다는 20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 21주년을 맞았다"며 "성숙된 불자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각종

서울심인당 사무지도

통리원(통리원장 성초)은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지구 각 심인당 사무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사무지도에서는 97년 재정감사 및 신년 사업에 대한 종단 차원의 행정지도로 이뤄진다.

미타종

월광문도회 26일 회의

총무원(총무원장 직무대행 권성우)은 26일 오후 4시 경남 거제 대연사에서 월광문도회(회장 이혜봉) 회의를 갖는다.

권성우 총무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는 월광문도회가 종단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설정하면서 개최되게 됐다"며 "문도회 활성화 방안 및 종단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융종

경제위기극복 기원법회

총무원(총무원장 보인)은 26일 오전 11시 정동문화예술회관에서 창종 17주년 기념법회 및 경제위기 극복을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8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법회는 1부 기념법회, 2부 수계식으로 진행된다.

원효종

경남교구 보살계 실시

경남교구(종무원장 박송파)는 23일 울산 몽련암에서 보살계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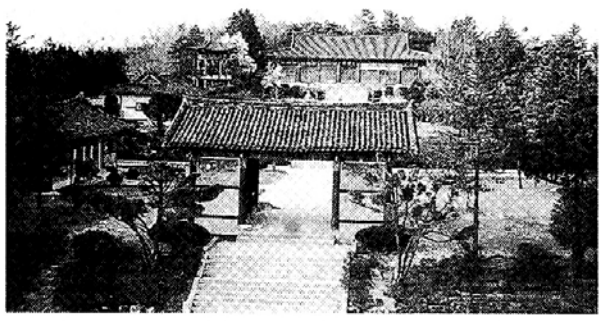
종정 법흥스님이 전계화상으로, 부종정 벽송스님이 갈마화상으로 나선 이번 보살계에는 30개 말사 5백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무등불심' 일구는 종합도량

무각사 내달 11일 개원 5천여평에 건물 11동 갖춰

단기출가 수련원 개설
시민선방 점심 법회도



◇상무대 이전으로 방치됐던 무각사는 4월11일 개원 법회를 갖고 도심포교에 나선다. 4개 본사협 사무실도 입주해 호남지역 불교센터로 자리잡게 됐다.

상무대 이전으로 폐사위기에 놓여 있던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가 4월 11일 개원법회를 갖고 신행포교의 종합도량으로 탈바꿈한다.

무각사는 94년 상무대 이전으로 소유권이 광주광역시로 이관됐으나 송광사가 지난해 8월 13일 5년간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광주포교당으로 재탄생된 것.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5천여평의 대지에 72년 창건된 무각사는 1백10평의 대웅전, 2층 종각, 견성당, 상지당 등 전통식 건물 11동으로 구성된 대형사찰이다.

무각사는 개원에 앞서 첫 사업으로 29일 '제1회 광주지역 불교지도자교육'을 실시한다. 불교지도자 교육은 7백여곳의 사찰 주지스님과 각 신행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매월 열린다. 무각사는 또 5월부터 단기출가를 위한 수련원도 개원한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수련원은 발우공양, 불교의식 실수 등 체험위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련원은 어린이, 청소년등 각종 신행단체의 수련회장으로도 개방된다.

특히 무각사 주변에 관공시설, 은행, 상가 등 신도시가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법회, 시민선방 등을 비롯 계층별 법회와 강좌도 개설해 1백30만 광주시민 포교의 새장을 연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밖에도 무각사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송광사 백양사 등 조계종 4개 교구본사협의회 사무실이 입주했으며, 각 신행단체의 법회공간으로도 개방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중앙에 위치한 무각사 인근에는 2천년까지 시청, 교육청, 방송국 등을 비롯 35만세대가 입주 호남지역 불교포교의 중심도량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김중근 기자



"컴퓨터 배우러 독서실 오세요"

삼성물산 구립신림독서실에 PC 20대 기증

(주)삼성물산은 18일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관장 청아스님)에 486컴퓨터 20대와 보안경 20대를 기증했다. 추인보부장(인사과)은 "비록 사무실에서 쓰던 중고품이지만 학생들이 쓸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닦아 깨끗하게 가져왔습니다"고 말했다.

독서실 1층 도서실에 컴퓨터 설치를 끝낸 후 추부장과 청아스님은 컴퓨터기증식을 갖고 기증서를 교환했다. 청아스님은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

광주 대각사서 목사 강연 '종교화합'

복지시설도 자매결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종교간 화합이 장이 마련돼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 대각사(주지 도산)가 봉축행사 일환으로 4월 12일 방철호목사(주월성결교회)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는 방철호목사뿐만 아니라 조비오신부(가톨릭 교육원장)를 비롯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광주지역 각 종교 지도자들도 참석한다.

특히 이날 강연회에서는 대각사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호산마을과 개신교 복지시설인 서울 상계동 양지동산(원장 한종임)과의 자매결연식도 갖는다. 호산마을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철거위기에 놓여있는 양지동산의 행정적 지원은 물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종교간의 화합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도산스님은 "종교적 갈등과 문화적 대립은 21세기를 향한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며 "종교간의 교류는 화합은 물론 국민적 총화단결을 위한 초석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광주지역의 종교간의 교류는 지난해 12월 광주 남부경찰서 경승단이 덕명사를 비롯 4개 사찰에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회암사지 전차훈련장 백지화

유적 훼손위기 벗어나

발굴복원이 한창 추진중인 회암사지(사적 128호) 인근에 군부대 전차훈련장을 확대하려던 당초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부대측은 "전차훈련장으로 사용하려던 부대 울타리 안쪽 회천읍 회암리 산3-4일대 1천2백7평과 11-1일대 1천8백67평 등 3천2백74평의 부지가 뒤늦게 군부대부지가 아닌 회암사터로 확인돼 전차훈련장 확장계획을 백지화시켰다"고 16일 양주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암사복원추진준비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은 "현재 회암사지 인근에는 군부대, 레미콘공장 등이 있어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며 "공장이전은 물론 발굴지역과 추가발굴지역은 군사시설에서 제외시키는 주변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농산물 직거래장 인기

백제 최대의 사찰터인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한켠에 자리한 농산물 직거래장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부터 익산시 금마농협이 주관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은 매주 토·일요일에 이뤄지며 익산시 금마지역의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무공해 채소를 비롯 봄내음 가득한 산나물, 토종닭이 낳은 유정란 등이 판매된다.

영어 청소년 법회 '화제'

연등회관 우리는 선우

형님·누나들이 영·수 지도



◇우리는 선우 대학생회 선배들과 함께 공부하는 고등학생 회원들.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특별공부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연등국제불교회관과 우리는 선우 법당에서 실시되고 있어 화제다. 연등국제불교회관의 '청소년영어법회'가 우리는선우의 '선우공부방'이 바로 그것.

다른 법회와 달리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청소년 영어 법회의 교재는 〈Buddhism for Youngstudents〉. 크리스틴과 캐서린 자매 등 외국인 청소년불자도 참석해 'Life of the Buddha(부처님의 생애)'를 돌아가면서 읽으며 토론과 대화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02)735-5347.

우리선우 대학생회(회장 박찬웅)가 중심이돼 자발적으로 꾸려진 선우공부방도 있다. '미래불교를 이끌어갈 선재들의 꿈을 청년불자의 힘으로 엮어내자'며 대학생회원들이 매주 토·일요일 오후 3시 영어와 수학과목을집중 지도해 준다.

선우공부방은 학과 공부외에 앞으로 고3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참선교실, 기초교리교실 등도 열 계획이다. (02)278-8672 〈은〉

신라고찰 법광사지 방치

불사리탑등 유물 훼손·도난 위험

신라시대의 고찰 법광사지(경북도 기념물 20호·포항시 신광면)의 각종 유물이 논밭에 그대로 방치돼 유실이 우려되고 있다.

진평왕때 원효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법광사는 인근의 보경사를 말사로 거느렸을 만큼 큰 사찰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전소돼 폐허가 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논밭으로 바뀐 절터에는 석탑, 쌍귀부, 당간지주, 주춧돌 등 많은 중요한 유물들이 남아 있지만 도난 위험이 높다.

현재 4층까지만 남아 있는 불사리탑은 68년 도굴되기도 했으며, 상당수 유물이 아직 땅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발굴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절터 옆에는 근래에 세워진 또다른 법광사가 건립돼 있다.

대전대불청 시민위안 잔치

27~29일…헌혈 행사도

대불청 대전지구(지구장 송석범)는 27~29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전시민 위안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7~28일 양일간 수희청년회, 대전불교대 학생, 운전불자연합회 회원, (주)가산종합건설 사원들이 참여하는 헌혈운동이 진행되고 29일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의 법회와 공옥진씨의 무대가 마련된다. (042)285-2319

김천사암련회장 법등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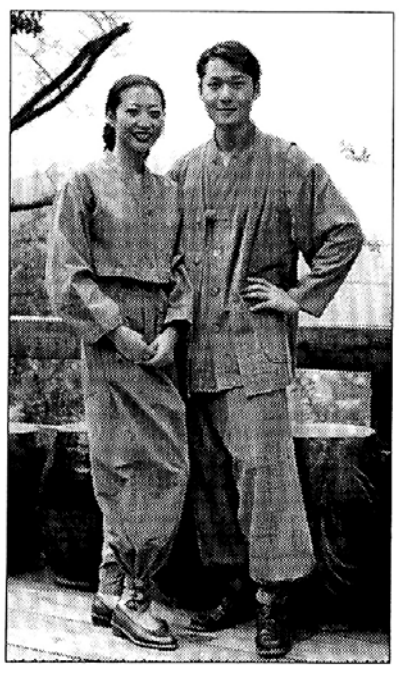
경북 김천불교사암연합회는 11일 직지사 설법전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법등스님(직지사 부주지)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회장에 천태종 금강사주지 지도스님과 계림사주지 명륜스님을 사무총장에는 칠불사 주지 성운스님을 선출했다.

매월 첫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입니다.'

민족의 멋 우리의 옷 예 맥 생활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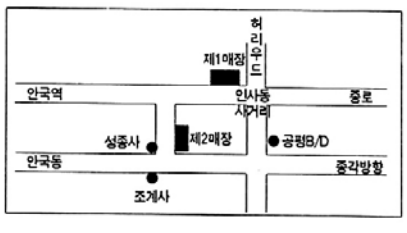


우리옷 "예맥"의 제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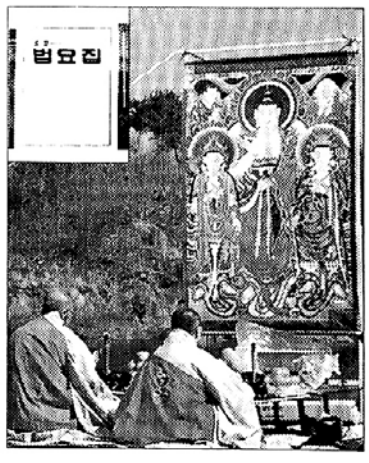
- 수준 높은 천연 염색 실크 제품
- 가벼운 소재와 전통미의 생활 한복 및 아동복
- 각종 연회 예복 제작
- 스님들의 간편복
- 신도님들의 단체복, 기도복 제작
- 기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본 사 : 조계종 포교원 앞 위치
직 영 매 장 : 인사동 4거리 위치
전국대리점모집 : 佛子로서 본찰 주지 스님 추천서 요
※ 판매책임지 구합(여 30세 이상 불자)

본 사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원당BD 202호)
(株)예맥 어패럴
전 화 : 737-0804~6 팩스 : 723-4599
제1매장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4번지
☎ (02)723-4600
제2매장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1 ☎ (02)738-3939



다중용 법요집 및 괘불



〈 괘 불 〉
- 규 격 : 높이 7자, 폭 4자 5치
- 특 징 : 방수완벽, 조립간편
- 가 격 : 90만원(괘불대 포함)

▶ 괘도내용 : 법회식순과 찬불가, 기초교리
감 수 : 암도 큰스님

佛教布教資料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厚岩洞 195-6
電 話 : (02)772-9052, FAX : (02)755-0479
(02)672-1333, 723-4599

민통선內 첫 사찰 정안사 개원

천태종 양구군 해안면에…民·軍 합동법회 등 열어

6·25이후 처음으로 민통선지역에 사찰이 건립됐다.

강원도 최북단 양구군 해안면 오유2리에 건립된 천태종 정안사(주지 무안)는 21일 도용 종정, 운덕 총무원장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들어갔다.

정안사는 94년 1천2백여평의 부지에 기공식을 갖고 4년여의 불사끝에 법당(39평), 요사채(60평) 등을 갖추고 낙성됐다.

6·25당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해안은 해발 1천3백40미터의 백암산이 있는 오지로 4백50여가구 2천6백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해안지역은 대부분 불자였던 주민들이 6.25직후 타종교(교회3곳, 성당 1곳)의 전도활동으로 갈수록 개종하는 불자가 늘어나 포교의 사각지역으로 전락된 곳이다. 그러나 68년 10여명의 불자들이 천태종 해안분회를 결성하면서 전법활동이 싹트기 시작했다.

86년 구성된 신도회가 한옥을 구입, 지역불자들의 숙원사업인 사찰건립불사를 발원했으며 94년 2월에는 청년회를 조직하는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불법홍포에 매진하고 있다. 정안사는 어린이, 청소년법회를 비롯 민군합동법회,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교의 마당을 넓혀갈 계획이다. 특히 해안은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를 찾는 외래객이 연간 10만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 이들을 위한 포교전략도 개발할 방침이다.

신도회장 최인순씨는 "초창기 해안지역의 불자는 무속에 가까웠을 뿐 아니라 허물어져가는 절터가 고작이었다"며 "불법을 전하기 브다는 불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양구=김중근 기자〉



◇우리나라 최북단 민통선 마을인 해안면에 6·25 이후 처음으로 포교도량 정안사가 낙성됐다.

중학생불자 늘고있다

동대부중 신입생조사
불자 28.7% 차지
작년비해 2.1% 증가

종립학교의 98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현황조사에서 예년에 비해 불교신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부중의 경우 신입생 3백62명 가운데 불교 28.7%, 개신교 32.3%, 천주교 7.5% 무교 27.6%로, 전년도 신입생과 비교할 때 불교는 2.1% 증가, 개신교 16% 감소, 천주교 2.7% 감소, 무교 12.7%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고우익교법사(동대부중)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며 "청소년 포교의 청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밀양 홍제중학교의 경우 신입생 70명 가운데 47명이 불교, 개신교 5명, 무교 1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 해동중학교는 총 3백45명의 신입생 가운데 불교가 1백8명, 개신교가 1백7명, 천주교 23명, 무교 1백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성여중 명성여고 동대부고 금정중 등 종립학교의 신입생 종교현황조사 결과는 4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깨·사운동 연구자료집' 발간

이념·사업등 학술적 정리…실무지침서 역할

조계종 총무원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연구기획단(단장 능관)'은 '깨사운동'의 이념과 목적사업을 학술적으로 정리한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연구자료집〉 1·2권을 발간했다.

깨사운동의 학술적인 이념을 처음으로 정리한 이 자료집은 깨사운동을 불교학·사회병리학·사회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명했다. 특히 연구기획단이 분석한 '불교단체 사회성 프로그램 실태조사 보고서'는 전국 1백85개 불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불교 사회화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눈길.

보고서는 △90년대 불교사회화운동은 80년대 민중불교운동에서 환경, 사회 등으로 영역을 넓혔으며 △'불교의 사회 참여'란 화두에서 '종단 개혁' 문제에 주요 관심 영역을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연꽃마을·관음손마을등
목욕서비스 '가동'

교계 복지단체들의 지역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 자원봉사가 활발히 전개된다.

관음손마을간병인회(회장 혜원)는 3월말부터 부산지역 독거노인과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머리감겨드리기 봉사를 월칠 계획이다. 매월 1회 노인 요양시설인 부산 보현행원을 방문해 목욕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대구불교사회복지회(회장 무공)는 3월부터 목욕봉사활동을 개시했으며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도 4월1일부터 저소득층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실시한다. 연꽃마을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일주일에 한 두차례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한다.

연꽃마을 노인복지시설 21곳

'팔공산 보살선원' '인천 경로의원' 등 잇단 개원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교계 최초의 노인전문 수행도량인 팔공산 보살선원과 노인무료병원인 연꽃마을 인천 동구경로의원, 노인무료급식소, 노인의집,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을 잇달아 개설했다.

보살선원(대구 동구 덕곡동)은 약 6천여평의 부지에 1차로 연건평 3백평의 건물을 건립하고 50여 노인들의 복지와 수행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시설. 27일 삼존불봉안식을 갖는다.

연꽃마을은 이와함께 인천에 '연꽃마을 인천 동구경로의원'(032-765-3677)과 노인무료급식소, 노인의 집,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을 개설, 18일 오전 인천 동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경로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진료 및 치료, 정기건강검진,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경로식당은 매주 월~금요일 점심공양을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연꽃마을은 경로의료원 10개 등 모두 21개의 시설을 운영하게 됐다.



◇연꽃마을은 18일 인천 동구 경로의원을 개원했다.

목포불교대학 24일 개교

조계종 전법거점지역 지정후 첫 성과

조계종 전법의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월주)는 24일 전법거점지역인 목포에 불교대학(학장 보선)을 개설하고 현판식 및 개교식을 거행했다. 목포불교대학은 전법도량 지원금 3천만원과 관할 교구본사인 대둔사에서 5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개교준비를 해왔다.

학장 보선스님은 "불교대학 개설은 불교세가 약한 이 지역의 숙원불사였다"며 "초·중·고·대학생회 구성과 각종 교양강좌를 열어 지역포교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불교대학은 이날 개교식에 앞서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대둔사주지 천운스님 등 4백여명의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역-중앙시장-불교대학 구간에서 거리탁발을 실시했으며, 21일에는 교육원장 암도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철웅스님 31일 경제난 극복법회

파계사 진동루서



대구 파계사 성전암 조실 철웅스님이 IMF한파 극복을 위해 20년만에 처음으로 산문을 나와 법문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파계사(주지 성우)가 31일 오후 1시 진동루에서 개최하는 영산대재에 초청법사로 참석한다.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법문을 한다. 스님은 성전암에서 20년간 두문불출하며 수행정진해 왔다.

한편 이날 법회는 불자연예인 김병조씨의 사회로 1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영산재와 2부법회로 철웅스님 초청대법회가 이어진다.

목탁소리

인사가 만사라는데

임 연 태 〈취재1부 차장〉

"인사가 만사다."

늘 듣는 이 말이 새삼스러워 지는 때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을 넘기는 동안 우리는 정부의 수많은 인사소식을 접했다. 국가의 틀을 새로 짜는데 있어 적임자를 능력에 맞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의 가장 큰 지혜일 것이다.

그런데 불교계는 지난 한달간의 정부인사에 상당한 우려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관급 인사에서 불자는 3명이 발탁됐고 기독교 천주교인이 대거 기용됐다는 것, 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종무실장은 신학 전공자,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가 집사라는 것이 주는 인사상의 종교분포는 많은 불자들을 우려케 하고도 남는다.

일을 할 사람의 종교 혹은 과거 이력이 그 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첫인상은 차치하고라도 불교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타종교의 독실한 신자라는 점은 앞날을 걱정하게 할 소지를 충분히 준다. 물론 불자들의 걱정을 성급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 하는 것도 안보고 걱정부터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불자들은 장로대통령 시절의 암담하고 황당했던 종교편향 사례들을 아직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편향 사건들이 정책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거의가 개인적인 종교편견에 젖은 사람에 의해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됐다. 그 자연스러움이 불자들에게는 분노를 안겨다 주었다. 그 자연스러움의 근원은 무엇이었나. 분위기다. 장로 대통령과 특수전학교의 헤불이 무관치 않았던 그런 분위기 말이다.

지금의 인사대로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불교계와 관련된 각 부서에 그런 분위기가 짙게 베일 것이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불교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우이길 바란다.

뉴스 & 뉴스

조계종 교과서위 내달 창립

조계종포교원과 전국교법사단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13일 포교원회의실에서 교과서연구위원회 구성을 위한 2차 준비모임을 열어 이 위원회 창립대회를 4월18일 서울견지동 불교회관에서 개최키로 하는 한편 위원장에 포교부장 원혜스님을 추대키로 했다.

초파일 양심수사면 건의

5월3일 부처님오신날 양심수 추가 사면이 단행된다. 국민회의는 16일 간부회의을 열고 화해와 원상회복 차원에서 부처님오신날 양심수 추가 사면·복권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진관스님 석방 환영법회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출소 환영법회가 25일 오후4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봉행된다. 진관스님은 9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13일 제15대 대통령 위임 측하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봉축용품유통사업단' 설립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는 포교·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봉축용품유통사업단을 설립했다.

사업단은 봉축위원회에서 공식 지정한 캐릭터를 사용한 전통 만월등, 버튼, 현수막, 어깨띠, 리본 등을 판매한다. 또 모자, 조끼, 셔츠, 점퍼 등이 의류 품목으로 마련됐다. (02)725-8420

25일 군승단대의원 선출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25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군승단은 이날 총회에서 △군법당 운영의 신도참여 △각군 법당 매달 군승단에 재정보고 등을 의무화 한 군승단칙 개정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호법의원과 대의원도 선출하며, 총회에 앞서 군법당 운영사례 및 연구발표, 분임토의도 진행한다.

군불자 봉축위문품 보내기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군장병불자에게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군불교진흥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만5천여 군장병불자들에게 봉축위문품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문품은 군법사가 없는 법당에 우선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하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위문품을 받아본 병사들이 1백여통의 감사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히고 "예산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칠 수 없는 일"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동참문의 02-749-5135)

또한 올해 중점사업으로 △군법당 시설 보수 및 부처님 동산 조성 △군법당 사무용품 보내기 운동 △1사찰 1군법당 결연맺기 등을 추진키로 했다.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켜줄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액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0)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불교방송 기구 대폭 축소"

6국14부서 2국7팀으로…불교TV와 통합도 시사

성낙승사장 조계종 종회서 구조조정 밝혀

불교방송 성낙승사장은 불교방송의 6국 14부를 2국 7팀으로 축소하고 상무직제 폐지 및 부장급이상 선발 해고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조계종 130회 임시 중앙종회'에 사장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성낙승사장은 불교방송의 구조조정 윤곽을 이같이 제시했다. 또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돼 왔던 불교TV와의 통합문제에 대해 가까운 시일은 아니더라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양 방송사의 통합설이 분분했던 가운데 불교방송 사장이 공식적으로 통합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불교방송은 12일 부장급 이상 간부직 사원 15명에 대한 일괄 사표를 받는 등 사실상의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 언급에 대해 일부에서는 성사장이 중앙종회를 겨냥해 미리 구조조정안을 만드는 등 자구책 마련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고 이에따른 종단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교방송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돼 긴축재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렇게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 기구축소 등으로 방송제작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교방송은 17일 '제7차 노사협상'과 18일 노조총회에서 △정규직 사원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 △상반기 상여금 300% 반납, 하반기 상여금 추후 협상 △본사 계약직 사원 17명 정리해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기구축소가 이루어질 경우 부장급 이하 간부 및 사원들의 정리해고도 피할 수 없어 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불교방송 불교TV 통합' 문제는 현재 불교방송이 재단법인으로, 불교TV는 주식회사로 등록돼 있고 종단과의 관계 등 이해가 얽혀 있어 법적, 인적 통합이 쉽사리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그러나 불교TV 사장인 정우스님이 불교방송 이사로 영입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이사영입이 양 방송사의 통합을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 방송사의 통합여부에 대해 불교TV 기획조정실장 남현스님은 "범 종단 차원에서 지원하는 종합미디어센터 등과 같은 복합방송 기구가 신설될 때만이 가능하다"며 "양 방송사의 통합은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이나 재정 확충상 효율적이다"고 찬성의 뜻을 표했다.

김주일 기자

방송단신

월운스님 btn '교리강좌'

불교TV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11시~11:50분에 방송되는 기초교리 강좌의 진행자가 23일부터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으로 교체됐다.

월운스님은 해박한 불교지식과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초발심자들이 알아야할 기초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BBS 고승열전 '원효대사'

BBS는 26일부터 오전6시25분~6시35분까지 고승열전 '원효대사'편을 방송한다.

불교 고승대덕의 일대기를 다양한 음향효과를 사용해 전달해 주는 인기프로 고승열전 '원효대사'편에서는 〈금강삼매경론〉〈대승기신론소〉 등의 수많은 저서와 불교의 대중화에 이바지한 스님의 일대기를 흥미 있게 소개한다.

EBS '부탄 종교생활' 방영

EBS는 27일 저녁 7시10분~7시35분까지 용의 함성이 들리는 나라 '부탄사람들의 독특한 종교생활'을 방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히말라야 동쪽 기슭에 위치한 부탄의 자연환경과 종교생활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7세기경 티벳의 한 왕으로부터 불교를 전파받은 부탄은 부처의 화신인 '구루 린포체'의 업적을 기리는 '제추' 의식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된다.

화려한 가면극 등 밀교 의식이 영상으로 꾸며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탄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신행수기 당선작

특별상(종단협회장상)

아니, 미국까지 와서 ④

인과응보의 법칙 알게돼 8정도 수행덕목 삼아 뉴욕의 이웃에 전법 발원

나는 언니의 권고에 따라 가끔 교회도 가보고 부흥회도 가 봤다. 아멘을 외치고 통성기도를 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세계임을 절감했다. 그렇지만 난 그들을 이해했다. 그럴 수도 있으려니. 그것에 마음을 걸고 살아가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일체가 유심조 아닌가!

나는 천상 부처님 제자이다. 부처님 법 속에 내 마음이 열려지고 있으니까. 괴로움도 슬픈 일도, 즐겁고 환희에 찬 느낌도 변화하는 과정임을 알았다. 그러한 진리를 부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셨다. 그러니 어디에 매달리거나 끄달릴 필요가 없다.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생활. 마음의 자유로움은 자신감에서 비롯되고, 자신감은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체험했다. 적극적인 생활은 그 생활의 순간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삼매력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발생케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 위로받고 즐거움과 평안을 얻게 된 것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곳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몰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매주 부처님 법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계기로 이곳 뉴욕의 많은 불자님들과 소중하고 고마운 인연을 맺고 있다.

나의 서원을 이루는 길목, 미국에 유학오신 H스님과 인연이 닿아 97년 10월 경전학습, 수행정진, 사회봉사의 3대강령을 교육목적으로 법사양성교육원을 뉴욕 최초로 설립하여 경전공부를 하게 되었다. 20여명의 동참 도반들께서 한결같이 경전공부가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수료식에서 소감을 들려줬다.

수법사 수료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오계를 받았다. 정식 불자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불자로서의 의무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마음으로 했다. 불자가 지켜야 할 기본덕목인 팔정도를 행함으로써 수행의 본을 삼으리라.

"이 세상에 기독교교리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교경전 하나만 가지고도 극락정토와 인류사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없어서 이 현실 세계가 갈등과 전쟁 반목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실행이 없기 때문입니다"는 스님의 법문이 마음에 절실하게 와 닿았다.

형여 불자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면 보살행에 대한 불자로서의 실행을 올곧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경우엔 상대를 탓하기 전에 늘 자아성찰의 계기를 삼아야겠다는 생각이다. 불교인구가 적은 이곳에서 불자의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는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면모를 세계의 중심도시 뉴욕에 알려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이들에게 정신적 위안처를 마련했으면 한다.

부처님 법 만난 즐거움과 그로 인해 자신감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의 불자이고 싶다. 부처님 법은 정법이기에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았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닫고 자업자득의 진리를 안다면 억지로 선한 일을 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런 흐름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어떠한 회유로써 개종권고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흔들릴 수 없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삶을 중요롭게 해주고, 금방 도움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마음이 가지 않는다. 제행무상의 길을 알고 나의 주인공은 자신임을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셨기에, 곧 내가 나를 만들었음을 뚜렷하게 알았기에.

김연장 〈미국 뉴욕시 거주〉



그림 · 이준석

자비와 축복의 상징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⑤

나뭇가지


◇마르티니 作 '수태고지'(부분) 1333년 作. 우피치미술관 소장.

불교에서의 버들가지는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을 상징한다. 중생의 고난을 살피는 관세음보살은 33종의 모습으로 현신하는데 33현신의 제1위가 양류관음(楊柳觀音)이다. 흔히 왼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오른 손에는 버들가지를 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는 버들가지가 실바람에도 나부끼듯이 미천한 중생의 작은 소원도 귀기울여 듣는 보살도의 자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버들가지를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을 표현한 대표적인 양류관음도인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후불벽화.

왼쪽 그림에서 성모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리는 천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 많이 나는데 귀한 이들에게 흔들어 축복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학림 〈예천 법화암 주지〉


◇전남 강진군 무위사 극락전의 양류관음도(1476년 作).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이상 절약됩니다.

(월400분 사용기준)

오래 쓰시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요금은 20%이상 할인됩니다 (월사용료 2,000원 별도)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기본료(월)	16,500원
통화료(10초당)	평상(19원) 할인(15원) 심야(10원)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특별할인 판매합니다.

소리가 보인다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이란?

PCS 016 가입시,「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 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 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 나라

주관:현대불교신문사
후원: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02)732-1522, 737-8881,
FAX:(02)737-0697 (02)737-0698, 0696

● 특가 판매 ●

- LG LGP 1300
- 현대 걸리버 1100
- 삼성 애니콜 1100, 2000

시중 최저 가격!

※ 98년 3월 가입자에 한하여
특가판매와 440분의 무료통화 시간을 드립니다.